

2017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7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2017)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 100선 /
국립중앙도서관 [편].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7
p. ; cm

색인수록

ISBN 979-11-5687-381-5 04020 : 비매품

ISBN 978-89-7383-654-3 (세트) 04020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

독서[讀書]

선정 도서[選定圖書]

서평(평론)[書評]

029.1-KDC6

028.1-DDC23

CIP2017015259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15259)

- 발간사 -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을 펴내면서

“책이란 사람들의 영혼을 번거롭게 하고 마음을 노하게 하는 모든 이미지로부터 도피시켜 주는 마술적 작용이다.” 독서를 통해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프랑스의 소설가 겸 평론가인 아나톨 프랑스의 말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서 잠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여름 휴가철입니다. 사실 바쁜 현대인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 독서를 생활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휴가철은 그나마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의 시간인 만큼 좋은 책을 골라 읽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지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유로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일반 교양도서 100권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매월 엄선한 ‘사서추천도서’ 중 80권과 서평전문가가 추천하는 도서 20권을 실었습니다. 사서추천도서는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사서들이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를 제외한 좋은 책을 엄선한 것으로, 이 중 휴가철에 이용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도서를 다시 골랐습니다. 또한 언제나 책을 마주하는 서평전문가들이 휴가철에 초점을 맞추어 추천한 도서를 함께 실었습니다. 여기에는 간략한 서평과 저자 소개, 책 속에서 뽑은 좋은 문장, 함께 읽으면 좋은 책과 같은 정보도 함께 담았습니다.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이 귀중한 시간 속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이번 여름휴가는 더위를 잊게 해 줄 좋은 책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장

박주환

발간사	05
일러두기	10

사서
추천도서
80선

001. 그 산 그 사람 그 개	12
002. 글쓰는 삶을 위한 일 년	13
003. 기쁨의 정원	14
004.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	15
005. 만약은 없다	16
006. 먼지 먹는 개	17
007. 모나리자 바이러스	18
008. 뒤풀이, 살인사건	19
009. (권영민 교수의) 문학 콘서트	20
010.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21
011. 없는 사람	22
012. 영국에서 사흘 프랑스에서 나흘	23
013. 완벽한 인생	24
014. 월요일의 문장들	25
015. 일곱 가지 이야기	26
016. 천천히, 스미는	27
017. 피프티 피플	28
018. 한 스푼의 시간	29
019. 홀	30

철학

020. 인간 인터넷	31
021.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	32
022.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34
023. 굿 라이프	35

024.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	36
025. 슬픈 불멸주의자	37
026. 웃음의 가격은 얼마인가	38
027. 의심의 철학	39
028. 일본인 심리상자	40

○○○○○○○○○○○○○○○○○○○○
사회 · 경제

029. 가족이 날 아프게 한다	41
030. (데이비드 버커스) 경영의 이동	42
031. 기억이 사라지는 시대	43
032. 요리책 쓰는 선비 술 빛는 사대부	44
033.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	45
034. 우리들의 변호사	46
035. 워킹 브레인	47
036. 이야기 우리 문화	48
037.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49
038. 전쟁사에서 건진 별미들	50
039. 중독 사회	51
040.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52
041. 행복한 나라의 조건	53
042.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54

○○○○○○○○○○○○○○○○○○○○
교육 · 자기개발

043. 담담하게 걷고 뜨겁게 뛰어라	55
044. 땡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56
045. 멈추고 정리	57
046. (2030년 학력 붕괴 시대의 내 아이가) 살아갈 힘	58
047. 옥스퍼드는 어떻게 답을 찾는가	60
048. 잘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61
049. 창의성, 내 아이의 미래에 마법을 부리다	62

자연과학

050. 가능한 최선의 세계	63
051. 개미와 공작	64
052. 동물에게 배우는 노년의 삶	65
053. 매혹하는 식물의 뇌	66
054. 바이탈 퀘스천	67
055.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68
056. 아인슈타인의 주사위와 슈뢰딩거의 고양이	70
057. 틀리지 않는 법	71

기술과학

058. 그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72
059. 녹	73
060. 뇌과학자들	74
061. 뭐든지, 호르몬!	75
062. 수면밸런스	76
063. 알파하우스를 꿈꾸다	77
064. 여행 잘하는 사람으로 큰다면	78
065. 지방의 누명	79
066. 코타로와 나	80
067. 햇빛의 선물	81
068. 헤어	82

예술

069. 그림의 맛	83
070. 동양인은 모나리자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84
071. 명작 뒤에 숨겨진 사랑	85
072. 발칙한 예술가들	86
073. 위작의 기술	88

역사 · 지리

074. 개인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89
075. 누가 이슬람을 지배하는가	90
076. 보석 천 개의 유혹	91
077. 세상을 바꾼 100가지 문서	92

078. 안나푸르나에서 밀크티를 마시다	93
079. 톰크린	94
080. 파리의 열두 풍경	95

서평전문가
추천도서
20선

081. 다시, 피아노	98
082. 보이는 것과의 대화	99
083. 인벤투로지	100
084. 인포메이션	101
085. 자기애적 사회에 관하여	102
086.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책 읽기	103
087. 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104
088.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우연학 입문	105
089. 이렇게 읽을 거면 읽지 마라	106
090. 한 치 앞도 모르면서	107
091. 눈 이야기	108
092. 시대의 소음	109
093. 식물도시 에도의 탄생	110
094. 제국과 낭만	111
095. 펄컨	112
096. 다시, 연습이다	113
097. 베를린 일기	114
098. 수잔 이펙트	115
099.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	116
100. 하루키씨를 조심하세요	117

2017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목록	118
서명 색인	122
저자명 색인	124

알려두기

수록범위

-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와 《내일신문》의 '사서가 추천하는 오늘의 책'에 실린 서평 도서 80선을 수록하였습니다.
- 서평전문가의 휴가철 추천도서 20선을 수록하였습니다.

배열

- 문학 | 철학 | 사회·경제 | 교육·자기개발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역사·지리 등 주제 분야별로 나눈 후,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서평전문가 추천도서는 추천자의 성명 가나다순 아래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 도서의 표지, 서명, 저자명, 발행처명, 발행년을 소개하고 추천자의 추천 글, 간략한 저자 소개,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3권씩 수록하였습니다.

※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7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은 수록된 이미지를 제외하고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 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http://www.kogl.or.kr/>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80선

그 산 그 사람 그 개



평젠밍 지음
박지민 옮김 | 펍북스 | 2016

사서의 추천 글

평생을 바친 우편배달 일을 아들에게 물려주며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 산, 그 사람, 그 개」, 언제 어디서든 쪽잠을 자는 가족들의 이야기 「잠」, 뱀이 많은 마을에서 사람들과 뱀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뱀과 이웃으로 살기」 등 중국 대표 작가 평젠밍의 단편 소설 아홉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실린 소설들은 작가의 고향인 후난성 시골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을 담고 있는데 중국 개혁이후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표제작 「그 산, 그 사람, 그 개」는 1983년 중국 우수단편 소설상을 수상, 저자가 각색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다.

바쁜 일상과 디지털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련한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저자 소개

평젠밍(彭见明) 1953년 중국 후난성 핑장현에서 태어났다. 1970년 핑장현 극단에서 8년간 무대미술 일을 했으며 핑장현 문화연맹 주석, 웨양시 작가협회 주석, 후난성 작가협회 부주석, 중국 작가협회 전국위원, 후난성 중국화협회 고문 등을 역임 했고, 중국 국가 일급 작가이다. 그의 여러 작품은 일본, 미국,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현재는 글 쓰는 일 외에 화가로도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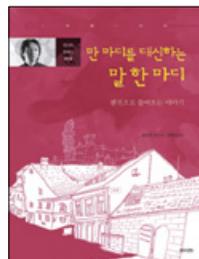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그래서 길에 올랐다. 장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그리고 과거와 이별하려 마지막 여정에 오른 늙은이가 함께 길에 올랐다.”(13쪽)



백년부부
지아오 보
2016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
류전원
2015



나의 아름다운 죄인들
김숨
2009

글쓰는 삶을 위한 일 년

사서의 추천 글

수전 티베르기앵은 원 살의 나이에 작가의 삶을 시작한 늦깎이 작가다. 그녀에게 글 쓰는 삶이란 매 순간에 대한 교감과 내면과의 대화이기 이전에 꾸준한 습관이다. 어떻게 글쓰기를 꾸준히 이어가는가? 책에는 365일, 삶이 이야기가 되는 티베르기앵의 12달의 강의가 담겨있다.

글 쓰는 삶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일기쓰기'다.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글쓰기인 일기서부터 글쓰기 훈련을 시작한다. 2강은 그와 비슷한 '퍼스널 에세이'를 살펴보고 3강은 '오피니언에세이와 여행에세이'를 소개한다. 4강은 '단편소설과 초단편소설'로 점차 그 범주가 넓어진다. 5강부터 마지막 12강까지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더욱 깊은 글쓰기를 다룬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예시와 연습문제들이다. 한 번쯤 작가의 삶을 동경해왔던 독자라면 연습문제에 답하는 것부터 글쓰기를 시작해보자. 오늘부터 일 년 동안, 내면에 존재하던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글 쓰는 삶'으로 채워가길 권해본다.

저자 소개

수전 티베르기앵(Susan Tiberghien) 미국 태생으로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다.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회고록 『황금을 찾아서(Looking for Gold)』, 『돌고 돌아 중앙으로(Circling to the Center)』, 『발자국(Footsteps: A European Album)』을 비롯해 다수의 글을 썼다. 대학원 프로그램, 카를 구스타프 융 센터, 미국과 유럽의 작가 학회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1993년에 창립한 제네바 작가 모임을 이끌고 있다.



수전 티베르기앵 지음
김성훈 옮김 | 책세상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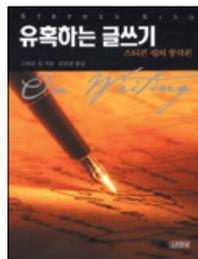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유시민
2015



작가 수업
도러시아 브랜디
2010



유혹하는 글쓰기
스티브 호킹
2002

책 속 한 문장

“그전에는 글쓰기가 지겹고 두렵고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지만 일기 쓰기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존중하고 아껴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26쪽)

기쁨의 정원



조병준 지음
산티 | 2016

사서의 추천 글

저자가 ‘꽃을 든 남자’가 아닌 ‘꽃을 키우는 남자’가 된 것은 엄마의 옥상 텃밭을 물려받고 나서부터다. 부모의 부재를 채우려고 텃밭을 일구었다. 그러면서 옥상 텃밭을 가꾸는 일이 할 일 없는 도시 노인네의 소일거리가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삶의 존엄성을 지켜간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1장에선 꽃, 나무, 채소에 얽힌 추억, 생명을 키우는 경험과 경이로움을 이야기한다. 2장에선 시련을 뚫고 피어나는 꽃, 고목에서 자라나는 새순, 진흙탕에서 피는 연꽃에서 받은 위로와 격려를 적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5년 만에 회복해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된 저자의 경험도 녹아있다. 3장에서는 여행하면서 카메라에 담은 세계의 정원과 마음에 담은 추억을 독자와 공유한다.

유쾌한 글이지만 내용은 진솔하다. 옥상 정원의 단호박부터 안나푸르나 설봉의 앵초까지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은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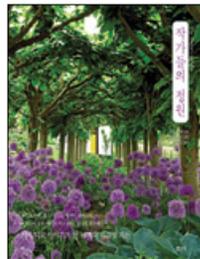
저자 소개

조병준 1992년 《세계의 문학》 가을호에 ‘평화의 잠’ 외 3편의 시로 등단했다. 방송개발원 연구원, 광고 프로덕션 조감독, 극단 기획자, 방송 구성 작가, 대학 강사, 번역가 등 여러 직업을 거쳤고,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나눔 나눔 나눔』,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 『사랑을 만나러 길을 나서다』, 『따뜻한 슬픔』, 『나는 세상을 떠도는 집』 등이 있다.

책 속 한 문장

“인생의 기본이 고달픔이 아니었다면, 아픔과 서글픔, 배고픔, 그런 폼자 돌림이 아니었다면, 화양연화의 한 시절이 그토록 선명하게, 그토록 화사하게 기억에 남겨질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꽃 피는 시절에 감사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삭막한 시절에도 감사할 일이다.”(308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작가들의 정원
채키 버넷
2015



타사의 정원
타사 튜디
2013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
헤르만 헤세
2013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

사서의 추천 글

예순다섯 할배가 된 아들이 치매 중기의 노모를 위해 매일 삼시 세끼 요리를 하여 밥상을 차리고 마주앉아 밥을 먹는다. ‘1년 이상은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요양원을 마다하고 난생 처음 부엌에 들어가 ‘엄마를 위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간병의 시간이 정글정글하면서도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작고 예쁜 방울같이 보여 “징글맘”이라 부르는 노모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진다. 매일 최후의 만찬이 될지 모를 엄마의 밥상을 직접 차리며 벌어지는 엄마와의 알콩달콩 행복한 이야기, 순간순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풀어놓았다. 어머니를 위해 요리하며 깨달은 인생의 맛(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5개 파트, 44개 에피소드 속에 엄마를 위해 만든 46품의 건강식 요리 레시피가 함께 실려 있다.

이 책을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과 복지 정책이 현실성 있게 변화되길 기대해본다.

저자 소개

정성기 치매 중기의 노모를 위해 매일 삼시 세끼를 요리하는 예순다섯의 할배다. 요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광고와 잡지 일을 하며 청춘을 보냈다.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불효를 씻고자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직접 모시겠다고 작은 집을 구해 곁을 지키고 있다. 2008년부터 경북 영주에 있는 노인요양원 이당원의 자문위원으로 있다.



정성기 지음
헤이박스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
사카이 준코
2016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선재
2017



오늘, 난생처음 살아 보는 날
박혜란
2017

책 속 한 문장

“어차피 짊어져야 할 명에라면 이왕이면 의연한 자세로 보람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게 백번 낫겠지.”(150쪽)

만약은 없다



남궁인 지음
문학동네 | 2016

사서의 추천 글

단호한 제목이 눈길을 끈다. 저자는 촌각을 다투는 ‘선택’과 수많은 ‘만약’에 직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다. 죽음과 비극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글을 썼고, 그 글을 가공해 책으로 묶었다.

1장에선 응급실에서 마주하는 ‘날것의 죽음’을 기록했다. 환자의 죽음과 고통, 치료하는 의사의 번민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죽음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게 해준다.

2장은 삶에 관한 기록이다. 무거운 분위기가 갑자기 가볍게 바뀐다. 그 간격이 커서 잠시 다른 책처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나름대로 평범한 일상과 웃기기도 슬픈 에피소드가 새롭다. ‘한 취객이 부모님 안부를 묻고 출생의 비밀을 큰소리로 설명하는데, 그런 참신한 욕은 처음 들었다’는 너스레는 발랄하다 못해 웃음을 자아낸다.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는 의사의 노력이 배어있다. 병원 응급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의료계의 현실을,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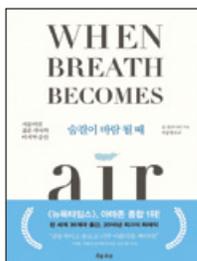
저자 소개

남궁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마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현재 충남 홍성 소방본부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이다. 2016년 「죽음에 관하여」로 의료계의 신춘문예라 불리는 ‘한미수필문학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책 속 한 문장

“그보다도 더 복잡한 세계가 응급실에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선, 180만 분의 1이라는 우연이 몇 번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들은 즐거워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아니면 예기치 않았던 친구들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소우주 안의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역시 분주할 것입니다.”(201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숨결이 바람 될 때
폴 칼라니티
2016



외과의사 영명이 노출 사건
한치호 외 41명의 의사들
2015



종합병원 청년의사들
이왕준, 박재영
2014

먼지 먹는 개

사서의 추천 글

미세먼지, 황사 등의 공해로 골머리를 앓는 우리에게 제목과 같은 먼지 먹는 개가 나타난다면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 반가울 것이다. 하지만 그 개가 인간에 의해 비윤리적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라면?

소설에 등장하는 더스트 빈은 병원균을 빨아들인 뒤 흔적 없이 사라져 '친환경' 생물 세정제로 판매되는 유전자 변형 물고기다. 끝없는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더스트 몬스터를, 더 나아가 인간 스스로를 위협하는 더스트 휴먼을 만들었다. 하지만 책 속 인물들은 원치 않는 임신, 생계의 압박 등에 매몰돼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에 무너지고 만다. 개개인의 절박한 상황에서 도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기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메시지는 명확해 보인다.

더스트 빈을 두고 여러 인물과의 관계를 엮는 등 기발한 상상력과 흥미로운 서사가 돋보이는 흡입력 강한 책이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면서도 속편을 기대해도 좋을 만큼 재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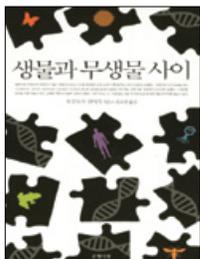
저자 소개

손슬지 2013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문학나무》 봄호에 참여했으며, 2015년 엔블록 미스터리 걸작선 공모전에 당선되었다. 등단작 「한 알의 여자」(단편소설)를 통해 탄탄한 문장력을 지닌 작가, 감정의 절제를 통한 심리적 거리 확보와 상징·은유와 같은 미학적 장치에 능숙한 작가라는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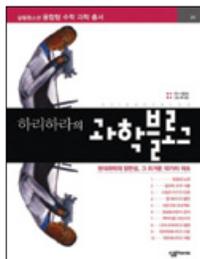


손슬지 지음
새움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생물과 무생물 사이
후쿠오카 신이치
2008



(하리하리의) 과학블로그
이은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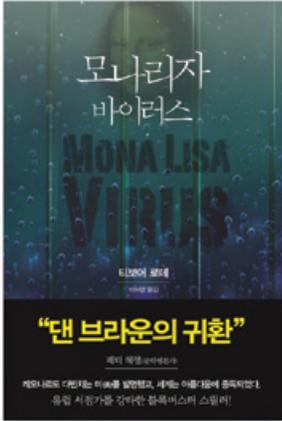


나무
베르나르 베르베르
2008

책 속 한 문장

“다른 동물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짐승은 오로지 사람뿐이다.”(268쪽)

모나리자 바이러스



티보어 로데 지음
박여명 옮김 | 북핍 | 2016

사서의 추천 글

미스 아메리카의 꿈을 품은 참가자들이 탄 버스 안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한다. 멕시코 아카폴로로 향하던 그들에게 들이닥친 의문의 사고는 미국 전역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 주고, 세계 곳곳에서는 종말의 징후가 건잡을 수 없이 확산하게 되는데... 이 모든 사건의 열쇠는 다름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에 숨겨져 있다.

저자 티보어 로데는 '댄 브라운의 귀환'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또 하나의 흡입력 강한 지적 추리 스릴러를 창작해냈다. 현대인의 광기에 가까운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의 실체가 폭로되고, 르네상스시대와 현재를 오가며 아름다움의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리는 가운데 모나리자의 비밀이 밝혀진다.

오늘날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미적 욕구가 수단 가지의 산업으로 구현되고 상품화되는 이 세대에,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소설이다. 아름다움은 선인가, 악인가. 이에 대한 답은 독자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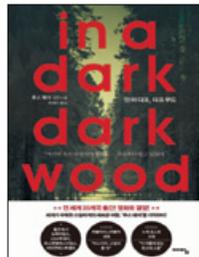
저자 소개

티보어 로데(Tibor Rode) 1974년 독일 함부르크 태생으로, 법학을 전공하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현재 경제, IT 관련 법무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첫 소설, 「영원의 바퀴(Das Rad der Ewigkeit)」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데뷔했고,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한 역동적인 묘사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검증이 필요 없는 스릴러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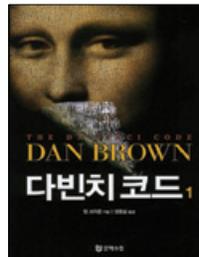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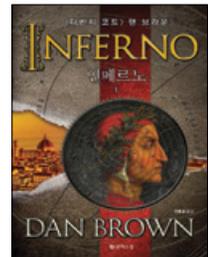
“대체 우리의 뇌에 아름다움의 여부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건 누구일까요?”(281쪽)



인 어 다크, 다크 우드
루스 웨어
2016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
2004



인페르노
댄 브라운
2013

뫼르소, 살인사건

사서의 추천 글

프랑스 문학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자리매김한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에 도전장을 내민 책이 나왔다. 세계 3대 문학상인 콩쿠르상 최우수 신인상 수상작이자 뉴욕타임스 최고의 도서로 선정된 『뫼르소, 살인사건』이 그것이다. 1942년 출간되어 어머니, 알제리인 그리고 살인자 뫼르소 자신에게 선고된 죽음을 이야기하며 인간에 대한 실존주의적 질문을 던졌던 『이방인』. 하지만 독자들은 살해된 알제리인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지 않았고, 오로지 주인공 뫼르소의 고독한 실존에 공감하기 바빴을 뿐이다.

저자 카멜 다우드리는 이름 없이 죽임당한 알제리인의 동생 ‘하룬’을 화자로 내세워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했다. 하룬은 죽은 형에게 ‘무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한 희생자에 대한 위로를 촉구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알제리에서 벌어진 프랑스의 학살과 이에 대한 전 세계의 침묵을 고발한다.

출간 이후 70년간 한 살인자의 고민에 공감했다면, 이제는 희생자에게 다가가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도 새로운 이방인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현실에 대한 고민과 함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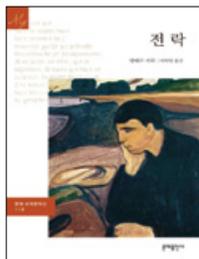
저자 소개

카멜 다우드(Kamel Daoud) 1970년 알제리에서 태어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다.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한 뒤, 오랑 시의 프랑스어 일간지 《코티디앵 도랑(LE QUOTIDIEN D'ORAN)》의 기자로 일하며, 《뉴욕 타임스》, 《르몽드》 등 세계 유수의 언론 매체들에 명석한 분석과 도발적 비판을 담은 시사 칼럼들을 기고해 큰 반향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으로, 2014년에는 이슬람 종교 재판인 파트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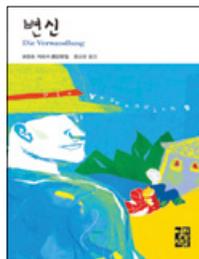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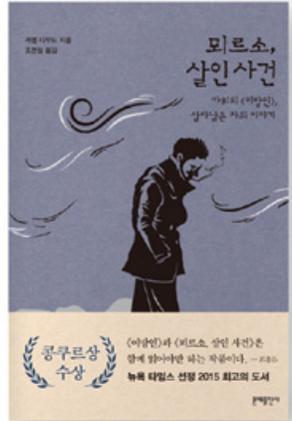
이방인
알베르 카뮈
2011



전락
알베르 카뮈
2010



변신
프란츠 카프카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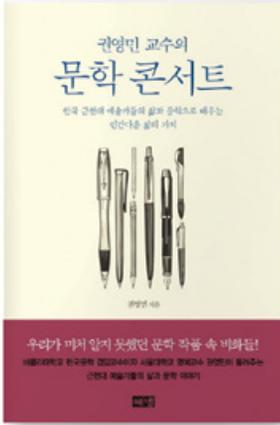


카멜 다우드 지음
조현실 옮김 | 문예출판사 | 2017

책 속 한 문장

“오늘, 엄마는 아직 살아 있네.”(7쪽)

(권영민 교수의) 문학 콘서트



권영민 지음
해냄 | 2017

사서의 추천 글

‘문학콘서트’는 30여 년간 문학을 연구한 국문학자 권영민 교수가 한국 문학의 숨겨진 이야기를 강연한 내용이다.

윤동주의 시 원고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20대 조지훈과 박목월의 경주 경천 역에서 한편의 시 같은 첫 만남, 동시대 예술가로서 시인 구상과 화가 이중섭이 고통과 정신적 지향을 함께 한 우정 어린 사연들을 이야기한다. 또한 작가가 한국의 명문으로 꼽고 있는 김구 선생의 글쓰기방법, 저자가 이상의 소설 속 카페 NOVA를 찾아 신주쿠를 헤맨 이야기, 청계천 헌책방에서 정지용의 『백록담』 초판을 찾아낸 이야기 등이 펼쳐진다.

문학가들의 숨결을 느끼기 위한 작가의 체험이 자연스럽고 서정적인 문체와 함께 어우러져 근대 문학가들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일상에 지칠 즈음 문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문학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저자 소개

권영민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한국문학 겸임교수로 활동 중. 현대문학상, 김환태평론문학상, 서울문화예술평론상,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만해대상 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현대문학사』, 『우리 문장 강의』, 『서사 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 『한국민족문학론연구』, 『이상 문학의 비밀 13』, 『오감도의 탄생』, 『정지용 시 126편 다시 읽기』, 『문학사와 문학 비평』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김구 선생은 유명한 문장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나의 소원」과 같은 명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글 자체가 아니라 글을 쓰는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234쪽)



단숨에 읽는 한국근대문학사
한국근대문학관
2016



권영민 평론선집
권영민
2015



한국 근대시의 과제와 문학사의 주제들
김진희
2015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사서의 추천 글

문학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시를 쓰고 밤새워 책을 읽느라 학교에서는 낙제했지만,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 교사가 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포기하자 사람들은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서울 생활을 버리고 인도 명상센터로 갔을 때 무모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힐난을 들었다. 시인 류시화의 이야기다.

수많은 길 중 평범한 길을 포기한 채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간 곳에는 그만의 확신이 있었다. 남의 답을 모방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개척해냈고, 그만의 지혜와 고민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과 같은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을 감동케 했다.

그의 은사 황순원 선생이 “시는 젊었을 때 쓰고, 산문은 나이 들어서 쓰는 것이다. 시는 고뇌를, 산문은 인생을 담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을 잊지 않은 류시화의 세 번째 산문집이다. 저자가 수년 동안 인도를 여행하고, 삶을 살아오며 깨닫고 겪은 일들에 대한 그만의 해안이 미사여구를 배제한 담백한 문장 곳곳에 녹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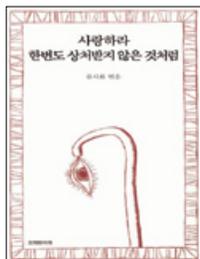
저자 소개

류시화 시인이자 명상가.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8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된 바 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등 명상과 인간의식 진화에 대한 주요 서적 40여 권을 번역하였다.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을 비롯하여,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등을 집필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다
류시화
1991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류시화
2005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백영옥
2016



류시화 지음
더숲 | 2017

책 속 한 문장

“하지만 그 불완전하고 상처 입은 자신을 아름답게 재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삶의 예술이다.”(241쪽)

없는 사람



최정화 지음
은행나무 | 2016

사서의 추천 글

정이현, 권여선과 같은 선배작가에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현실에 도사린 불안을 그리는 데 탁월하다’고 평가받은 최정화는 만연하게 사회에 뿌리내린 불신을 소재로 장편 소설을 써냈다. 소설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우리가 외면하고자 했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빼곡히 담아내면서 뉴스에서 단편적으로만 접하던 현실의 무게를 나누게 한다.

주인공 무오는 그저 돈이 필요해 모리자동차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일에 가담하게 된다. 목적 달성을 위해 연고 없는 무오를 뒤에서 조종하는 이부는 따뜻한 형 노릇을 가장하여 무오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압박한다. 노조원들의 신임을 두텁게 얻어 시위현장에서 동료들을 선동하는 ‘도트’를 미행하고 위협하는 한편, 무오는 노조원과 함께할수록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고 이부와 도트 사이에서 이중적인 행동을 보인다. 노조원들은 당하지 않으려 쉽게 믿지 않지만 믿지 않아서 끝내 당해버리고 만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책을 덮고도 무오의 시선에 머무르게 된다.

저자 소개

최정화 2012년 창비신인소설상에 단편소설 「팜비치」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첫 소설집 『지극히 내성적인』(2016)을 펴낸 뒤 언론, 문학 독자들, 평단의 고요하고 잔잔한 수면에 파동을 일으켰고 ‘개인의 내면에 도사린 불안을 그리는 데에 탁월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단번에 주목을 받았다. 연이어 단편 「인터뷰」로 2016 제7회 젊은작가상을 수상,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작가 중에 한 명으로 부상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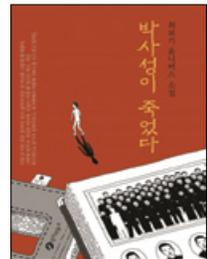
“두 달 넘게 함께 생활하면서 무오가 알게 된 것은 투쟁하는 이들이 왜 목에 핏줄이 서고 얼굴이 벌게지도록 소리를 높이는지였다.”(199쪽)



올빼미 무덤
강희진
2016



지극히 당연한 여섯
박덕경 외 5인
2016



박사성이 죽었다
최보기
2016

영국에서 사흘 프랑스에서 나흘

사서의 추천 글

영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저자는 ‘같은 값이면 좀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프랑스 시골 마을로 이사간다. 프랑스계 영국인인 아내의 조부모님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사 후 집이 커진 만큼 가족도 늘었다. 한 명이었던 아들은 세 명이 되었다. 개, 고양이, 말, 닭 등 동물 식구만 9마리이다. 동물 구조가 천직인 듯한 아내와 아이들 덕에 각종 동물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나간다. 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애초에 꿈꿨던 평화롭고 고요한 전원생활은 불가능해 보인다. 생업인 영국에서의 순회 코미디 공연은 줄어들어가고 글을 쓰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데….

스스로를 희화화 하는 모습과 재치 있는 상황 묘사에서 영국식 유머가 느껴진다. 영국 중산층이 도시를 탈출해서 프랑스 시골마을에 적응하는 과정이 유쾌하고 위트있게 그려져 있다. 시골에서도 패션을 포기할 수 없는 저자가 말끔하게 차려입고 뜻하지 않게 몸개그를 하는 모습은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키득거리며 웃고 나서, ‘아, 브렉시트 때문에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노파심이 드는 건 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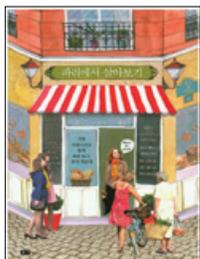
저자 소개

이안 무어(Ian Moore) 영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작가이다. 화려한 꽃무늬 셔츠와 세련된 수트를 즐겨 입는 영국의 모드족이기도 하다. 10년 전 영국을 떠나 프랑스 루아르 계곡 시골 마을에 정착한 그는 화려한 도시의 쇼비즈니스맨과 프랑스 시골 농장의 일꾼으로 전혀 다른 두 인생을 살고 있다.



이안 무어 지음
박상현 옮김 | 남해의봄날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파리에서 살아보기
제인 페이크
2015



프랑스의 작은 마을
최상운
2011



빌 브라이슨 발칙한 영국산책
빌 브라이슨
2009

책 속 한 문장

“영국의 문제는 잘못된 법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도 잘 지키는 데 있는 반면, 프랑스인들, 특히 프랑스 농부들은 각자 실용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게 문제다.”(386쪽)

완벽한 인생



이동원 지음
포이에마 | 2016

사서의 추천 글

한국시리즈 7차전을 끝으로 은퇴를 앞둔 투수 우태진에게 느닷없이 경찰이 찾아온다. 강남 한복판의 은행 무장 강도가 내건 협상 조건은 태진이 선발투수로 공을 던져야 한다는 것. 태진이 한 회를 막아낼 때마다 인질 세 명을 풀어주지만, 그가 경기를 포기하는 순간 누군가가 죽는다. 한 때 천재 투수로 이름 날리며 강속구만을 고집하던 태진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던질 수 있다는 너클 볼을 던질 때, 지난 몇 년간 해내지 못했던 아웃카운트를 연속으로 잡아내며 경기장은 흥분으로 가득 차는데... 은행 강도와 경찰, 투수 우태진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2014년 세계문학상 수상 작가 이동원은 한국인이 열광하는 야구를 주제로 완벽한 인생에 관해 이야기한다. 슈퍼스타가 퇴물로 전락하기까지 전혀 완벽한 인생이라 할 수 없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면서 제목의 아이러니가 더 도드라진다. 저마다의 사연이 우리네 인생과 닮아있음을 느끼며 저자가 전하는 인생 이야기에 빠져 봐도 좋겠다.

저자 소개

이동원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에선 경제학을 전공했다. 군 제대 후 2004년부터 영상작가원에서 시나리오를 배웠고, 그 후로 영화와 만화 시나리오를 써왔다. 첫 소설 『수다쟁이 조가 말했다』를 2013년에 출간했고, 2014년에는 도스토옙스키적 소설 『살고 싶다』로 제10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완벽한 인생』은 그의 세 번째 장편소설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마운드가 무덤처럼 보이는 이들,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평가받는 투수들, 스스로에게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선수들이 야구가 더 하고 싶어 던지는 공이 너클볼이다.”(76쪽)



살고 싶다
이동원
2014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
박연선
2016



땃글부대
장강명
2015

월요일의 문장들

사서의 추천 글

당신의 월요일은 안녕하십니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곤해지는 월요일 아침.

출판사 편집자로 7여 년간 직장생활을 한 저자는 수많은 월요일을 시작하며 월요일병을 이기는 법을 책에서 찾았다. 「오늘, 월요일」, 「정답이 없는 질문들」, 「슬픔이 오려하면, 일을 한다」, 「일상이 시가 되는 순간들」 등 4개 파트에 직장인들의 마음을 위로할 49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다. 다독가답게 다양한 책에서 빛나는 문장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좋은 문장들과 더불어 그 문장들이 저자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지긋지긋한 월요일 아침, 마음에 와 닿는 좋은 문장들을 만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 힘겹게 버텼던 시간의 단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처럼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을 선사하길 바라며 오늘 또 다시 무거운 월요일을 맞은 당신에게 안부를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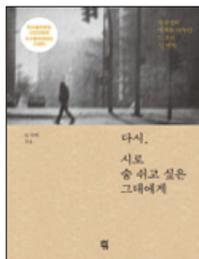
저자 소개

조안나 대학 시절 과외, 패밀리레스토랑 서버, 사립학원 국어강사, 미술관 전시시스템 등 열 개의 아르바이트를 거치며 힘겹게 졸업했다. 졸업 후 7년간 4번의 출판사 퇴사를 기록한 뒤 비로소 진정한 프리랜서가 되었다. 첫 번째 퇴사 후 『달빛책방』을 쓰고, 두 번째 퇴사 후 『당신을 만난 다음 페이지』를 썼다. 대학생 때 시작한 블로그를 십이 년째 운영하며 책과 관련된 모든 일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있다. 틈틈이 책과 관련된 칼럼을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현재 남편과 함께 미국의 인디애나 주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살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달빛 책방
조안나
2011



다시, 시로 숨 쉬고 싶은 그대에게
김기택
2016



밤은 책이다
이동진
2011



조안나 지음
지금이책 | 2017

책 속 한 문장

“남아 있는 채소와 꿈꿨던 열린 재료들로 만든 ‘정체 불명의 국’일지도 모를 우리 인생도 계속 매일 만들다 보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47쪽)

일곱 가지 이야기



가노 도모코 지음
박정임 옮김 | 피닉스 아프리카에
2016

사서의 추천 글

우연히 서점에서 ‘일곱 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의 소설을 발견한 열아홉 살 여대생 고마코. 그녀는 책 표지의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소년에 대한 뜻밖의 향수로 책을 충동구매한다. 얼마 전 자신의 동네에서 겪은 미스터리한 사건과 소년이 겪은 첫 장의 ‘수박 주스’ 이야기가 닮아있음을 느낀 그녀는 작가에게 팬레터를 보낸다.

그런데 작가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답장을 보내온다. 뿐만 아니라 고마코의 사건까지 풀이한 ‘해결 편’을 보내주는데... 고마코 주변의 소소한 수수께끼들은 날카로운 추리력을 보여주는 작가의 편지와 버물리며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제3회 아유카와 데쓰야 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소설 속에 소설이 등장하고, 소설과 고마코가 겪는 미스터리가 겹치는 등 구성이 아주 흥미롭다. 고마코와 작가가 이어나가는 일곱 개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따라가며 함께 추리해 보아도 좋겠다.

저자 소개

가노 도모코(加納朋子) 후쿠오카 현 기타큐슈 시에서 태어났으며, 분쿄 여자 단기대학 문예과를 졸업했다. 이 작품으로 제3회 아유카와 데쓰야 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하였고, 1995년 『유리 기린』으로 제48회 일본추리작가협회 상을 수상했다. 그 밖의 작품으로 『마법 비행』, 『손안의 작은 새』, 『월요일 물방울 모양』, 『나선 계단의 앨리스』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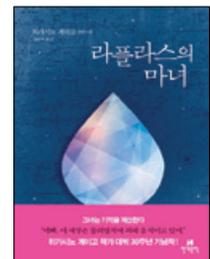
“스핑크스의 심원한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사과를 왜 떨어뜨리는지 까마귀는 왜 우는지 같은, 사소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수수께끼는 일상에 넘쳐 나고 있었습시다.”(6쪽)



나가에의 심야상담소
이시모치 아사미
2016



산자와 죽은 자
넬레 노이하우스
2015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오
2016

천천히, 스미는

사서의 추천 글

버지니아 울프, 오스카 와일드, 마크 트웨인 등 영미 작가 25인의 산문집으로 버지니아 울프와 조지 오웰,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몇몇 글을 제외 한 3분의 2 이상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들이다.

우리와 같은 시대라 부르기엔 조금 멀고 옛날이라 부르기엔 조금 가까운 시절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창작된 서른 두 편의 글들로,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화·도시화 때문에 생긴 삶과 공간을 다룬 글, 생태의 변화를 다룬 글, 상실·죽음·고통 같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조건을 다룬 글, 작가의 삶에 생채기로 남은 사건을 다룬 글 등이 「삶이 늘 시적이지는 않을 지라도」, 「내가 바람이라면」, 「어떤 질문」, 「소소하고 은밀한」, 「길 위에서」 등의 5개 파트로 나뉘어져 실려 있다.

당대를 사로잡았던 문필가들의 작품으로 누가 보아도 흥미롭고 공감이 갈만한, 아름답고 섬세한 글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산문 말미에는 간단한 작가 소개가 함께 실려 있다.

저자 소개

G. K. 체스터튼, 도로시 세이어즈,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로버트 바이런, 리처드 라이트, 마저리 키넨 롤링스, 마크 트웨인, 맥스 비어블, 메리 헌터 오스틴, 버지니아 울프, 알도 레오폴드, 앨리스 메이넬, 오스카 와일드, 윌리엄 포크너, 제임스 서버, 제임스 에이지, 조지 오웰, 존 버로스, 찰스 디킨스, 케네스 그레이엄, 토머스 드 퀸시, F. 스콧 피츠제럴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홀브룩 잭슨, 힐레어 벨록 19~20세기 영미 작가 25인



G.K. 체스터튼 외 영미작가 25인
강경이 옮김 | 봄날의책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학
야마모토 시로
2015



미국의 아들
리처드 라이트
2012



세상에 예쁜 것
박완서
2012

책 속 한 문장

“용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행동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중에는 훌륭하지 않은 행동도 있다.”(157쪽)

피프티 피플



정세랑 지음
창비 | 2016

사서의 추천 글

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연결된 50명의 삶이 느슨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모르는 사람쯤으로 여겼던 낯선 이가 친구의 가족으로, 손님으로, 사제관계로 미세하게나마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들이 전하는 고민과 갑작스러운 사고는 낯설지 않다. 한규익으로 대변되는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의 사연, 김시철의 시선으로 바라본 층간소음 문제, 최애선과 배운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썩크홀 추락 사고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렇다. 저마다의 사연 속에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생생히 녹아있다.

다채로운 개개인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사람쯤으로 알고 넘어갔던 것들이 하나의 큰 세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50개의 사연에 귀 기울이는 저자의 노력은 그들에 대한 위로다. 특정 주인공이 없으나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 바로 우리네 이야기다.

저자 소개

정세랑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편집자였던 이력이 묻어나오는 단단하고 정갈한 문장으로 줄거리를 뒷받침한다고 평가받는다. 2010년 《판타스틱》에 「드림, 드림, 드림」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이만큼 가까이』로 2013년 제7회 창비장편소설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로 『넋니가 보고 싶어』, 『지구에서 한아뿐』, 『재인, 재욱, 재훈』, 『보건교사 안은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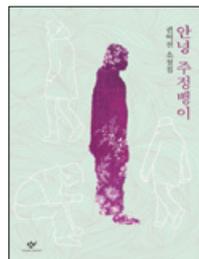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언젠가 선미의 쌍꺼풀이 다섯겹이 되고 여섯겹이 되더라도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76쪽)



재인, 재욱, 재훈
정세랑
2014



안녕 주정뱅이
권여선
2016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2016

한 스푼의 시간

사서의 추천 글

홀로 사는 노인 명정에게 뜻밖의 목직한 택배가 하나 도착한다. 외아들의 이름으로 먼 외국에서 온 것이나, 아들은 출장길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이 흘렀다. 상자 속엔 마치 죽은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을 한 로봇이 들어있다.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명정에게는 ‘은결’이라는 이름의 가족이, 세탁소 고객이자 마을주민인 시호, 준교에게는 친구가 생긴다. 세탁기 속 젖은 면직물 더미가 엉켰다 풀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엉키고 풀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간다.

인공지능 로봇인 은결은 스스로 점차 진화해가는 한편, 샘플이기에 연산 오류로 풀이되는 ‘사람다운’ 행동을 한다. 시호와의 불편한 만남을 피해주기 위해 20분을 돌아 장을 봐오는 것이 그렇다. 은결의 순수함은 저자 구병모의 여리고 섬세한 문장들과 더해져 읽는 이의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한다. 책을 읽다 보면 문득 0과 1의 기계어 연산으로 작동하는 로봇에게 위로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구병모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편집자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집필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2015년 소설집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로 민음사 오늘의문학상, 황순원신진문학상을 수상했다. 제2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한 『위저드 베이커리』는 신인답지 않은 안정된 문장력과 매끄러운 전개, 흡인력 있는 줄거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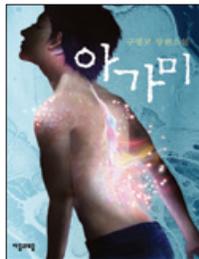


구병모 지음
예담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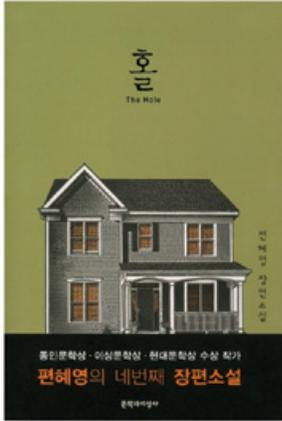
아가미
구병모
2011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구병모
2015

책 속 한 문장

“아무리 약품을 집중 분사해도 직물과 분리되지 않는 오염이 생기게 마련이듯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르면 제거도 수정도 불가능한 한 점의 얼룩을 살아내야만 한다.”(157 쪽)



편혜영 지음
문학과지성사 | 2016

사서의 추천 글

책의 앞표지 디자인은 불 켜진 환한 집이다. 뒤표지엔 그 빛이 사그라져 어둠 속에 잠겨버린 집이 있다. 이 집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0대 대학교수 오기가 병원에서 눈을 뜨는 장면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동자뿐이다.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아내는 죽고, 오기만 홀로 살아남았다. 갑작스런 불행으로 비관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아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고, 빈정과 조롱이 늘었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오기에게 속물이라고 했다. 그런 아내가 떠난 후, 오기와 장모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 오기를 헌신적으로 간호하던 장모는 어느 순간부터 오기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고, 오기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적으로 서술한다. 반응할 수 없는 몸 대신 기억을 움직여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조립해 나간다. 결말로 갈수록 긴장감과 서늘함이 배가 된다. 의지가 몸에 감혀버린 상황에서도 거짓말과 오해와 변명은 계속된다. 삶의 서글픔을 느끼게 하는 편혜영의 네 번째 장편소설이다.

저자 소개

편혜영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소설집 『아오이가든』,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애』, 『밤이 지나간다』, 장편소설 『재와 빨강』, 『서쪽 숲에 갔다』, 『선의 법칙』 등을 출간했다.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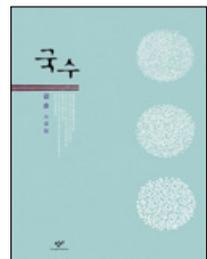
“권력을 가진 자는 오만해서 손쉽게 악행을 저지른다. 분노나 박탈감은 곧잘 자존감을 건드리고 비굴함을 느끼게 하고 참을성을 빼앗고 자신의 행동을 쉽게 정의감으로 포장하게 만든다.”(78쪽)



(2014) 김유정문학상
이장욱, 편혜영 외
2014



선의 법칙
편혜영
2015



국수
김숨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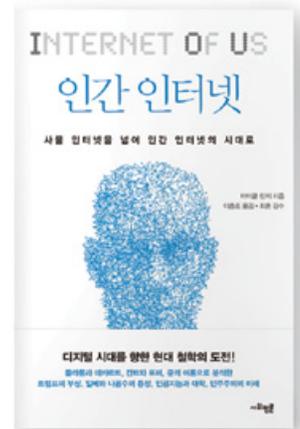
인간 인터넷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인식론 분야의 권위자인 저자가 디지털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새롭게 조명한다. 디지털 삶의 형식이 당연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철학적 논쟁으로 풀어간다. 우리는 인터넷과 그에 따른 경이로운 선물 상자 덕분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인터넷이 진실을 통제하고 왜곡하는 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 역시 널리 인정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대한 양의 정보추적과 지식 습득의 편이성 때문에 인터넷 문화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저자는 이 단순한 사실로 인하여 인간의 창조성과 정체성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초 연결된 지식 습득을 가능케 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갖게 한다. 우리의 삶이 인터넷과 친밀해질수록 미래에 대해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다가가야 한다는 게 저자의 메시지다.

저자 소개

마이클 린치(Michael Lynch) 코네티컷대학교 철학 교수, 코네티컷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소장 등 역임. 언어철학과 형이상학, 인식론 분야의 권위자이자 '다윈주의 진리론'의 옹호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으로서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저서를 꾸준히 발표, 코네티컷대학교에서 우수연구메달을 받았다. 저서로는 『이성 예찬』, 『하나와 여럿으로서의 진리』, 『사실적인: 왜 진리가 중요한가』 등이 있다.



마이클 린치 지음

이충호 옮김 | 사회평론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불편한 인터넷
솔 레브모어, 마사 누스바움
2012



(디지털 사회의) 인터넷 윤리
윤미선
2016



정치의 미래와 인터넷 소셜 의지
예병일
2014

책 속 한 문장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증언 기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261쪽)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



후지하라 가즈히로 지음
고정아 옮김 | 비즈니스북스 | 2016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독서매체와 독서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책을 읽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와 독서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다양한 작품을 인용하여 독서의 본질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독서의 힘을 제시한다.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이 무엇인가? 이 책 안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21세기는 개개인 각자가 자기만의 독자적 행복론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개개인의 행복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양이 중요하다. 행복을 추구하는 교양은 개개인이 획득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독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 도달한다. 자신의 행복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직접 책을 읽고 스스로 세계관과 인생관을 구축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할지 결정해야 한다.

인생에서 독서가 주는 힘

독서를 통해 인생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의 힘을 익힐 수 있다. ‘집중력’과 ‘균형감각’이다. 집중력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힘이다. 이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습관을 통해서 익힐 수 있다. 또 하나 ‘균형감각’은 세상 전체와 자신이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작가는 어린 시절에는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균형감각을 익히는 환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를 꾸준히 단련시킬 수 있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독서는 자신의 내적 세계관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신의 세계관이 넓어지면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이나 타인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집중력과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나 관용의 기초도 다질 수 있다.

책은 뇌를 확장해 주는 도구

한 사람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타인이 획득한 뇌 조각을 자신의 뇌에 연결하면 경험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 독서는 책을 쓴 사람과 바로 마주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뇌 조각을 자신의 뇌에 연결해 주는 도구가 된다. 그것이 바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획득하게 되며 다양한 뇌 조각을 축적할 때 뇌가 더 활성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독서 시간이 많아지면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고 식견을 축적해 놓아야 한다.

21세기 성숙사회에서는 정보 편집력을 요구한다. 정보 편집력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익힌 지식과 기술을 조합해서 ‘모두가 수궁하는 답’

을 스스로 도출하는 힘이다. 선택지의 폭을 넓혀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기본으로 한 정보 편집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책은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자

단순히 책을 읽고 '인풋'한다고 해서 독서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은 아니다. '아웃풋'이 없는 인풋은 긴장이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지루하다. 아웃풋이 중요한 이유는 책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의견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감상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쓰고 말하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점차 강고하게 진화하고, 논리적인 적합성이 강화된다. 그것은 마침내 '의견'으로 결실을 보게 된다.

책을 읽고 마음에 닿는 한마디를 자신만의 표현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독서가 더욱 즐거워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책의 부록에는 저자가 추천하는 '직장인을 위한 필독서 14권' 소개도 들어 있는데, 대부분 국내에도 번역돼 있어서 유익한 참고가 된다.

저자 소개

후지하라 가즈히로(藤原和博)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리크루트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VIP급 특별 사원인 펠로우로 재직하며 출중한 성과를 기록했다. 뒤늦게 독서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독서를 통해 인생을 바꾼 그는 2003년 도쿄의 스키나미 구립 와다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도내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교장이 되었다. 현재 오사카 부 교육 특별고문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교육개혁 실천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직장인을 위한)
독서법**
추현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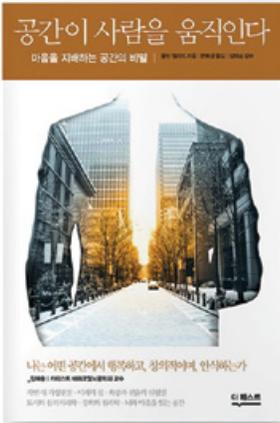


(게코스키의) 독서편력
릭 게코스키
2016



독서의 신
마쓰요카 세이고
2013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콜린 엘러드 지음
문희경 옮김 | 더퀘스트 | 2016

사서의 추천 글

공간이 단순한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양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성 베드로 대성당이나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그 건축물이 지닌 의미와 목적에 따라 설계된 결과이다. 저자는 공간과 심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랑, 욕망, 권태, 불안, 경외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축 구조의 특징을 생생하고 재치 있게 풀어낸다.

현대 건축은 전통적인 설계 구조를 벗어나 증강현실, 가상공간 등 접목시킨 또 다른 공간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 생체정보를 결합한 스마트 기술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기분이 되며, 무슨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준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술의 발전이 대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지적도 놓치지 않는다. 급변하는 환경과 그에 따라 재구성되는 공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간의 미래와 그 안에 담긴 인간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콜린 엘러드(Colin Ellard) 신경과학과 건축 및 환경 설계를 접목시켜 '심리지리학(Psycho-geography)'을 이야기하는 워털루대학교의 인지신경과학자이자 도시현실연구소 소장이다. 지은 책으로 『당신의 현 위치』가 있다.

책 속 한 문장

“인간이 벽돌, 모르타르, 회반죽, 창문을 배치하기 시작한 시대부터 세상을 보는 효과적인 인공 창문의 역할을 하는 전자 화면의 발명에 이르기까지, 환경 설계의 역사는 우리가 세계를 보고 세계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의 역사로 볼 수 있다.”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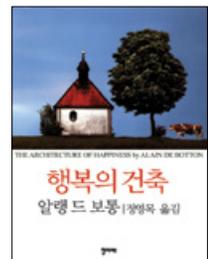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
승효상
2016



창을 순례하다
도쿄공업대 쓰카모토
요시하루 연구실
2015



행복의 건축
알랭 드 보통
2011

굿 라이프

사서의 추천 글

『굿 라이프』는 야생늑대와의 동거생활을 기록한 『철학자와 늑대』의 저자 마크 롤랜즈가 도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새로운 장르의 철학 소설이다. 이 책은 철학과 소설을 혼합한 이야기로 읽어 갈수록 심오하면서 절묘함에 깊숙이 빠져들게 한다. 원고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 ‘미시킨’의 탄생과 죽음까지 그 일생의 흐름에 따라 주요 사건들을 다룬다. 이야기는 아들 니콜라이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허름한 옛집 2층 침실에서 야무지게 묶여 있는 의문의 원고 봉치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인생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 무한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빈 원고지를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를 통해 깨닫는다. 마크 롤랜즈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좋은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주인공 미시킨을 통해 명쾌하게 제시한다. 또한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삶과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저자 소개

마크 롤랜즈(Mark Rowlands) 영국 웨일즈 뉴포트 출신, 현재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다. 대표적 저서로는 『철학자와 늑대』, 『철학자가 달린다』, 『동물의 역습』, 『우주의 끝에서 철학하기』 등이 있다.



마크 롤랜즈 지음
강수희 옮김 | 추수밭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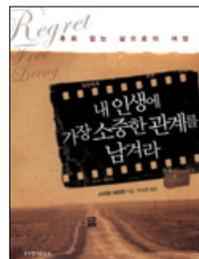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에머슨 인생학
서동석
2015



(참 좋은 인생을 만드는) 생각의 차이
김옥림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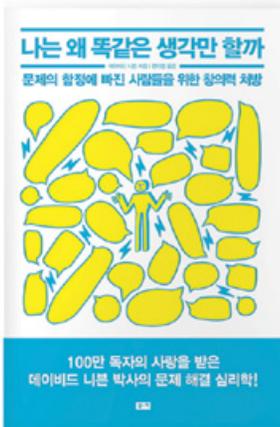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관계를 남겨라
스티븐 아터번
2011

책 속 한 문장

“걱정하는 마음을 실질적인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실천적 지혜다’.”(214쪽)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



데이비드 니븐 지음
전미영 옮김 | 부키 | 2016

사서의 추천 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갇혀 근심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면서 초반에서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는다. 하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명한 심리학자인 저자는 문제의 함정에 빠져드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10가지 생각 전환법을 소개한다. 일상에서 문제를 우선시할 때 실패할 확률이 17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를 낙담시키고, 위협하고, 소진시키기 때문이다. 이 때 새로운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스티븐 스피버그의 데뷔작 <조스>는 훌륭한 사례다. 애초에 수백만 달러나 쏟아 부어 상어 모형을 제작하고자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영화 제작은 없어질 위기에 놓인다. 그런 상황에서 스피버그는 상어가 나오지 않는 상어 영화를 만들자고 발상을 전환한다. 결국 <조스>는 1975년 개봉 당시 사상 최대 흥행 실적을 거두며 스피버그를 천재 감독으로 탄생시켰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터득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처방전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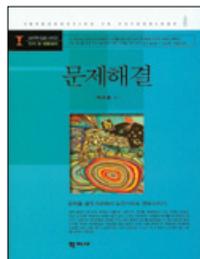
저자 소개

데이비드 니븐(David Niven) 심리학자이자 사회과학자이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와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작품은 미국에서만 100만부가 넘게 판매된 『100가지 간단한 비밀』시리즈, 국내에서 출간된 책으로는 『나와 함께 행복을 초대하라』, 『잘했어를 모르는 아내, 미안해를 모르는 남편』, 『모두가 말하는 성공을 깨면 나만의 성공을 만들 수 있다』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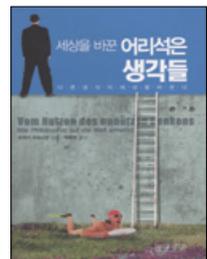
“자신과 경쟁하라.”
(141쪽)



문제해결
박주용
2016



나는 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현철
2016



세상을 바꾼 어리석은 생각들
프리더 라옥스만
2008

슬픈 불멸주의자

사서의 추천 글

블로와 영생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인류사의 거대한 화두인 만큼, 죽음은 인간 의식의 기저에 깊숙이 스며들어 인간 문명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세 명의 저자가 인간과 죽음의 역사에 대해 30여년간 연구하여 이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책의 1부는 공포 관리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저자들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스리기 위해 '문화적 가치관'과 '자존감' 등 두 가지 방어기제를 이용한다고 말한다. 2부에서는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불멸성을 손에 넣기 위해 각종 의례, 예술, 신화, 종교 등을 발명하는 등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핀다. 마지막 3부에서는 현대인들이 죽음을 다루는 모습, 또는 다루는 데 실패한 양상을 짚어 본다.

죽음은 살아 있는 한 필사적으로 저항할 대상인 동시에 삶의 감사함을 무엇보다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존재다. 이 책을 따라 인류가 죽음과 함께 걸어온, 그리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길을 들여다보고 이 둘의 관계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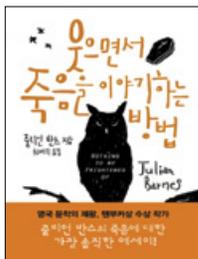
저자 소개

셸던 솔로몬(Sheldon Solomon) 현재 스키드모어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아 존중, 문화, 종족 간 대립 등에 대해 협동 연구를 시작했고 이는 공포 관리 이론의 창시와 실증적 평가 연구로 이어졌다.

제프 그린버그(Jeff Greenberg)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탐구를 연구 주제로 삼고 있으며, 여러 차례 관련 상을 수상했다.

톰 피진스키(Tom Pyszczynski) 죽음, 자유, 고립과 같은 인간 존재의 문제에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실험적 실존심리학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줄리언 반스
2016



중세의 죽음
서울대학교
중세르네상스 연구소
2015



죽음에 관한 철학적 고찰
구인회
2015



셸던 솔로몬, 제프 그린버그,
톰 피진스키 지음
이은경 옮김 | 흐름출판 | 2016

책 속 한 문장

“죽음 그 자체보다 누구나 인젠가는 죽는다는 인식이 인간 존재 핵심에 존재하는 고뇌이다.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불멸 추구의 길로 이끈다.”(330쪽)

웃음의 가격은 얼마인가



울리히 슈나벨 지음
배명자 옮김 | 새로운현재 | 2016

사서의 추천 글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구분하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데 익숙하다. 전통적으로 이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 반면, 감정은 보다 변덕스럽고 애매 모호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최근 감정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저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감정에 의존하는지 역설한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와 대담, 일화를 통해 감정의 본질과 가치를 통찰한다. 저자는 감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일상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또한 정보 범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감정 과부하에 걸린 채 행복이라는 과제를 짐처럼 안고 가는 현대인들에게 균형 잡힌 감정 사용법을 알려 주고자 한다.

우리가 감정을 완벽히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스릴 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 책은 자신도 몰랐던 감정의 정체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감정 이해의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저자 소개

울리히 슈나벨(Ulrich Schnabel) 독일 최대 종합 주간지 《차이트》의 인문 과학 분야 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세계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들어오나?-의식 연구가의 작업장 순례기』(공저), 『종교는 왜 멸망하지 않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 등의 저서를 펴냈다.

책 속 한 문장

“감정은 우리에게 무엇이 재밌고 무엇이 아픈지 알려줌으로써 생존을 도울 뿐 아니라 학습과 기억에 영향을 미쳐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빨리 잊을지 결정한다.”(124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감정은 어떻게 진화했나
이시카와 마사토
2016



인간의 모든 감정
최현석
2011



감정본색
나카노 노부코, 사와다 마사토
2015

의심의 철학

사서의 추천 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의심하기보다는 납득하며 살아간다. 현대 과학이 점점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서 우리는 정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주저하는 양상이다.

저자는 질문하지 않는 과학, 의심하지 않는 삶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킨다. 인공지능과 생명연장기술의 경이를 수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부상하거나 심화될 수 있는 노동 문제와 사회계층 문제, 빈부격차, 인간성 상실 등을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말하며,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사르트르, 베나민, 포퍼, 아렌트 등 11명의 저명한 사상가들을 ‘의심의 학파’로 명명하고 그들의 핵심 명제를 탐색한다. 이 책을 따라 경제, 종교,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이 품은 문제의식과 사유의 과정을 살피며, 시대를 초월하는 삶의 문제를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좋겠다.

저자 소개

이진우 연세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에서 철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니체학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포스텍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니체의 인생 강의』, 『니체, 실형적 사유와 극단의 사상』, 『지상으로 내려온 철학』,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치철학』, 『프라이버시의 철학』 등이 있다.



이진우 지음
휴머니스트 | 2017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빌헬름 슈미트
2017



철학 古典 강의
강유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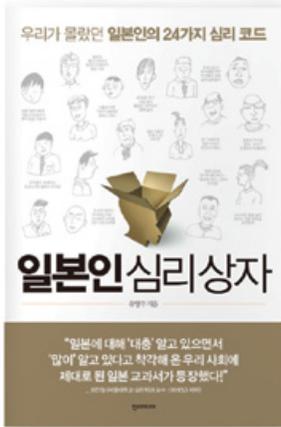


(만화로 보는)
지상 최대의 철학 쏘
프레드 반렌트 글,
라이언 언래비 그림
2013

책 속 한 문장

“철학은 과학과는 달리 특정한 분야의 문제와 지식을 다루지 않는다. 철학은 삶 전체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삶에는 정답이 없다.”(6쪽)

일본인 심리상자



유영수 지음
한스미디어 | 2016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작가가 3년간 도쿄 특파원 시절에 직접 체험한 삶과 학술적 지식을 토대로 일본인의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일본사회에서 시사면에 보도되었던 기사들 가운데 일본인의 독특한 심리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를 심리학적으로 다루었다.

일본은 왜 수술보다는 시술을 선호할까, 배우는 왜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날 삼바 춤을 쳤을까, 천만 관객 영화 <해운대>는 왜 일본에서 흥행에 참패했나 등이다. 또한 현대도 진행형인 후쿠시마 주민들의 방사능 공포, 평생 안고 가야할 대지진의 공포, 만화 <진격의 거인>이 인기를 끄는 이유, 많은 한류 팬들의 행방,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한국인들에게 감동한 이유 등 일본인과 일본사회에 대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색다른 이야기들이 흥미를 끈다. 이 책을 통해 과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게 된다. '서로 잘 안다'는 착각이 오히려 한·일 갈등의 원인이라면 그 오해를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저자 소개

유영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SBS 사회부 및 경제부 기자로 22년째 일하고 있으며,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1년간 방문 연구원 활동, 2010년부터 3년간 SBS 도쿄특파원으로 활약하였다.

책 속 한 문장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이웃이다.”(339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일본제국vs.자이니치
이범준
2015



일본을 바꾼 동일본 대지진
박형준
2012



쓰나미의 아이들
모리 겐
2012

가족이 날 아프게 한다

사서의 추천 글

누구나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가족,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가 좋으며, 그림 같은 가족을 바란다. 하지만 그런 가족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가정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가족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여행작가협회장이자 문필가인 시모주 아키코가 가족에 대한 생각과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풀어낸 글이다.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암이다. 암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가족이라는 병의 원인도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가족은 구성원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론 스트레스도 준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무엇보다 신체의 병은 원인을 인식하고 직시하면 고통이 덜해지고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으로 인한 마음의 병은 아무리 외면하고 지나치려 해도 어디든 뒤쫓아 와서 마치 귀신이 목말을 타듯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녀가 느낀 ‘가족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소통과 개성의 인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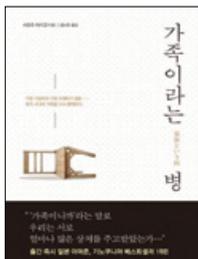
저자 소개

시모주 아키코(下重 暎子) 일본 NHK 아나운서 출신의 문필가로, 평론, 논픽션, 소설, 수필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작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일본여행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가족이라는 병』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인생이라는 작문』, 『자신에게 솔직하게 산다』, 『30대 여성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라』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시모주 아키코 지음
강수연 옮김, 강수민 그림
경향BP | 2017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가족이라는 병
시모주 아키코
2015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
데보라 태인
2015



나는 착한 딸을 그만두기로 했다
아사쿠라 아유미,
노부타 사요코
2017

책 속 한 문장

“좋은 아이, 좋은 부모, 좋은 가족이라는 형태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지 말고, 반항하거나 장난치거나 때를 쓰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법을 터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족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219쪽)

(데이비드 버커스) 경영의 이동



데이비드 버커스 지음
장진원 옮김 | 한국경제신문사
2016

사서의 추천 글

“위대한 경영자들은 제품을 혁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혁신합니다.” 데인 앳킨슨 CEO의 말로, 경영자들이 제품과 전략보다 업무 환경을 혁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과를 내게 하는, 인력과 관련한 열세 가지 방법을 설명한다.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이메일을 금지하라’, 고객만족은 직원만족에서 나온다는 ‘고객을 2순위로 두어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안식휴가를 취하라’, 직원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을 해고하라’ 등이다. 이들 정책을 기존의 경영 관리 방법과 비교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도 제시한다.

저자는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하려면,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제거해야 할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한다. 새로운 경영 방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책이다.

저자 소개

데이비드 버커스(David Burkus) 오렐로버츠대학교의 경영학 교수로 베스트셀러 작가인 동시에 유명 팟캐스트의 진행자이기도 하다. 2015년에는 유럽의 권위 있는 경영 잡지 《싱커스 50》에 선정됨으로써 미래의 경영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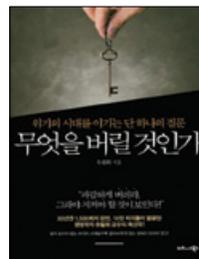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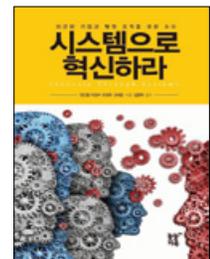
“경영진이 직원의 발전을 우선시한다면, 직원들은 고객을 돌보게 될 것이다.”(66쪽)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야마다 아키오
2016



무엇을 버릴 것인가
유필화
2016



시스템으로 혁신하라
안근용, 박경수,
한정욱, 신태웅
2015

기억이 사라지는 시대

사서의 추천 글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손은 『물질과 기억』에서 기억을 인간의 고유한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본성이라고 보았다. 기억이 인간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면, 기억 방식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인간은 자신의 기억을 점토판, 책을 거쳐 디지털로 저장하고 공유해왔다. 지식은 조직화되었고, 집단 기억이 만들어졌다. 조직화된 지식은 인간 잠재력을 확대시켰고, 집단 기억은 문화적 정체성 형성의 단초가 되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기억은 어디에나 있지만 태생적으로 불안정하다. 한편 저자는 글로벌 기업이 기억 보존의 주체가 될 경우, 지식의 공공성 확보 및 문화적 정체성 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결국 기억이 사라지는 시대는 변화 그 자체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이다. 디지털 시대 기억의 수집, 소유, 보존, 프라이버시 등의 여러 쟁점이 결국 우리의 문제라는 자각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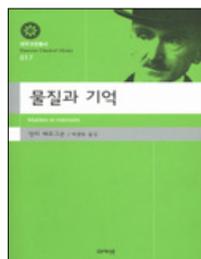
저자 소개

애비 스미스 럼지(Abby Smith Rumsey) 문화사학자이자 디지털 콘텐츠 큐레이터. 모든 미디어에서 문화적 기록물을 생성, 보존,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디지털 보존, 온라인 교육,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의 역할,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 새로운 정보 기술이 역사와 시간 개념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연구하고 글을 써 왔다.



애비 스미스 럼지 지음
곽성혜 옮김 | 뉴노북스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물질과 기억
앙리 베르그손
2005



공공도서관 문 앞의 야만인들
에드 디 안젤로
2013



괴델, 에셔, 바흐
더글라스 호프스태터
1999

책 속 한 문장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일이다.”(68쪽)



김봉규 지음
담앤북스 | 2016

사서의 추천 글

오랜 전통의 종가에는 다양한 문화가 전승되어 왔다. 당대의 수준 높은 가치관과 지혜가 누적되며 녹아 든 그 문화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소중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다. 종가에는 그 종가에만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음식과 술이 있다. 그런 음식과 술에는 종가를 탄생시키고 부흥시킨 선조들의 삶과 관련된 일화가 담겨 있어 흥미를 더한다. 또 그 음식에는 종가의 특수한 환경과 관련해 형성된, 고유한 색깔과 특징이 있기 마련이다. 이 책은 전국 종가 43곳에 전해 내려 온 음식 및 술의 유래와 역사, 거기에 담긴 사연이나 일화 등을 중심으로 술과 음식을 만드는 법, 현재의 전승 현황을 소개한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종가 음식의 유래나 사연을 살펴보면, 조상이 평소 즐겼던 음식, 궁궐에서 하사한 음식과 술, 왕가에서 시집 온 며느리가 전수한 음식, 빈민 구휼을 위해 만든 음식, 종가 주변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조상의 정신이 담긴 음식 등 다양하다. 전국 각 지역 종가에서 전해 오고 있는 오랜 전통의 술과 음식 이야기와 흥미로운 사연을 접하면서 우리의 음식 문화와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게 된다.

저자 소개

김봉규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영남일보》에 논설위원으로 입사했다. 편집국 기자와 문화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치며 우리 예술과 문화를 오랫동안 취재해 왔다.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혼과 문화에 대한 글을 주로 써 왔다. 저서로는 『현관기행』, 『불맥, 한국의 선사들』, 『마음이 한가해지는 미술산책』, 『길 따라 숲 찾아』, 『머리카락 짚신』, 『한국의 혼 누정』, 『조선의 선비들 인문학을 말하다』 등이 있다.

책 속 한 문장

“도토리죽을 비롯해 할머니가 남긴 《음식디미방》 음식은 그 음식 자체보다도 거기에 담긴 정신, 즉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고 사익보다 정의를 먼저 생각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분반야 실천할 소중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143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조선 백성의 밥상
한식재단
2014



맛있는 역사,
인류의 식생활을 보다
국립제주박물관
2016



조선 세프 서유구
곽미경
2016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지구촌에 사랑과 평화를 심은 이야기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지를 오가며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에피소드 38편이 담겨져 있다.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사)한끼의식사기금 윤경일 이사장이 ‘오순절 평화의 마을’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센터’ 등에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애환을 통하여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자 국제 구호단체를 결성하게 된 애기부터 기아로 인해 쓰레기장에 머리를 들이밀고 먹을 것을 뒤지는 사람들,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식수 부족으로 구멍물을 마시는 사람들, 비소가 섞인 물을 마시며 신음하는 사람들, 집이 없어 공동묘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등 절대빈곤의 현실과 이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까지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오지에 학교와 도서관을 지어 주고, 빈곤퇴치를 위한 각종 구호사업과 자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제3세계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희망을 심어온 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창한 것보다 소박한 것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된다는 저자의 말이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든다.



윤경일 지음
서교출판사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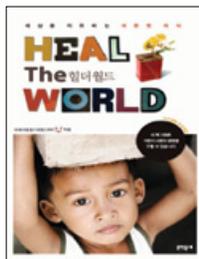
저자 소개

윤경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칼럼리스트로 학창 시절부터 나눔에 대한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방법을 모색해 왔던 그는 2004년 국제구호단체인 (사)한끼의식사기금을 설립했다. 지난 12년 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등 오지를 다니며 지구촌의 가난한 이들을 만났다. 현재 부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중이며, 『로마와 사랑에 빠지다』, 『알고 보면 나는 바보다』,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다른가』 등의 저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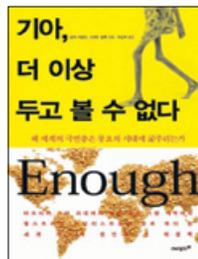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우리는 천사의 눈물을 보았다
박종인, 한현우, 전병근, 이학준, 최현묵, 이용수, 송해진, 광청렬
2008



힐 더 월드
국제아동돕기연합
2008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로저 서로우, 스코트 킬먼
2010

책 속 한 문장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현상이 반복되어도 스스로 인지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교육은 이러한 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면서 자신의 역량을 길러 준다.”(70쪽)

우리들의 변호사



박준영 지음
이후 | 2016

사서의 추천 글

“재심, 다시 재판받을 권리”를 말한다. 저자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전문변호사’로 깃지 않은 범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공권력의 잘못된 판단에 맞서며 사회정의 실현하려고 한다. 1부에서는 저자가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다. 어려웠던 유년시절을 통해 재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 계기들을 보여준다. 2부와 3부에서는 다양한 재심 사건들의 진행 과정을 담고 있다. 4부에서는 재판과정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겪게 된 부조리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책 속 사건이 공론화될 수 있게 된 ‘스토리 펀딩’은 후원이 필요한 주제를 기사로 연재하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기사의 뜻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소셜 펀딩이다. 저자는 본인의 변론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후원해준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재심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다면 사법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우리 사회에서도 기대해볼 만하다.

저자 소개

박준영 작은 섬 노화도에서 태어났다. 사법 시험 공부를 시작해 2002년에 합격했다. 수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국선 변호에 열중하던 2008년 운명의 사건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을 만났다. 국가기관의 도움 없이 형사 재판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최초 살인 사건 사례가 된다. 탈북자 간첩 사건을 변호하게 되면서, 재심과 공익 사건만 맡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지은 책으로 『지연된 정의』(공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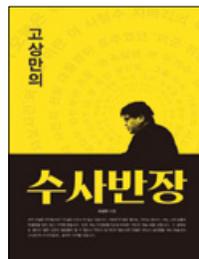
책 속 한 문장

“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살아보니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188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판사유감
문유석
2014



고상만의 수사반장
고상만
2017



지연된 정의
박상규, 박준영
2016

워킹 브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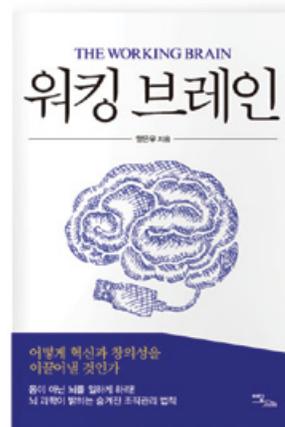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앞으로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저자는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창의력과 통찰력이 더욱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워킹 브레인』은 두뇌의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어떠한 기업문화를 구축해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저자에 따르면, ‘일’에서 ‘사람’ 중심으로 관리문화를 바꿔, 두뇌가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만 미래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뇌의 특성과 관련한 여러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조직문화 관리방법을 알려준다.

저자의 말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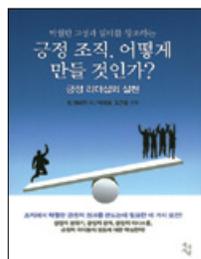
저자 소개

양은우 LG전자, 두산전자, CJ프레시웨이 등 국내 대기업에서 전략과 기획 업무를 수행했으며 다양한 컨설팅과 저술 및 강연 활동을 거쳐 현재는 한국능률협회(KMA)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찰의 기술』, 『주식회사 고구려』, 『CEO의 편지』 등 자기계발과 경영 분야에 관한 책을 꾸준히 써오고 있고, 최근에는 뇌 과학과 기업경영을 접목한 신이론의 개발과 전파를 위해 노력 중이다.



양은우 지음
이담북스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긍정 조직,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김 캐머런
2016



반영조직
구기욱
2016



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
양은우
2016

책 속 한 문장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벗어나 낯선 것을 보는 순간,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구·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72 쪽)”

이야기 우리 문화



김진섭 지음
지성사 | 2016

사서의 추천 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모여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된다. 이 책은 신화와 전설, 각종 고전 문헌을 근거로 동물, 음식, 인물, 소통, 그리고 일상 속 우리문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신성한 존재였던 까마귀가 불길한 새가 된 이유, 전골에 깃든 선비정신, 문신이었던 강감찬이 장군으로만 알려진 이유, 십이지신의 숨겨진 비밀, 우산이 우리사회에 정착되는 과정 등 여러 이야기를 각종 그림과 함께 들려주며 잊고 있었던 우리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문명의 발전으로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우리에게도 전파되었다. 할로윈 행사를 크게 하는 등 다른 나라의 축제를 더 챙기는 반면에 우리 고유의 문화에는 오히려 관심이 줄어드는 양상마저 보인다. 우리 문화에 대해 재미있게 소개하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하다.

우리 문화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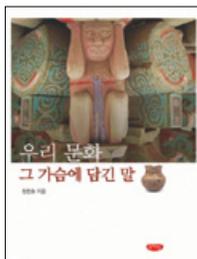
저자 소개

김진섭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 현재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캠퍼스 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 건국기 재상열전』,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우리 문화 이야기』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 하나 없는 이러한 천하의 미물들을 민가에서 의인 화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사람 다워야 사람임을 말하기 위해서이다.”(184쪽)



우리 문화 그 가슴에 담긴 말
장진호
2015



살맛 나는 한국인의 문화
정경조, 정수현
2016



(처음 만나는) 우리 문화
이이화
2012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사서의 추천 글

저성장, 인구 감소, 기술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우리는 일단 올라타야 하는 상황이다. 저자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 책에서 미래의 기술변화로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지, 그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무엇이고 기업과 개인,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경제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앞으로 동질화(봉쇄), 몰량전, 전면전의 강자의 전략이 아닌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 선택과 집중, 국지전의 약자의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해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창의적인 발상, 전략적인 판단능력, 정서적인 공감능력,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등인 기계와 차별화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 소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소장, 99%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보앱 ‘집코치’를 운영하는 (주)새로운 생각의 대표이기도 하다. 인기 경제 팟캐스트 ‘나는 폼사리다’의 패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선대인의 빅픽처』, 『문제는 경제다』, 『(5천만 경제 호구를 위한) 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 등이 있다.



선대인 지음
인플루엔셜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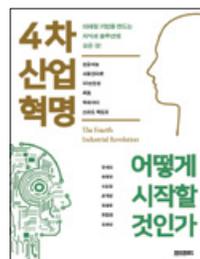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세상을 바꿀 테크놀로지 100
닛케이 BP사
2017



당신의 직업이 사라진다
데이비드 서, 이선
2017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한석희, 송형권, 이순열, 조익영, 장원중, 변종대, 임채성
2016

책 속 한 문장

“거대한 조직에 속해 있어 겉으로는 강자로 보이지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분야든 자신만의 시장을 스스로 확보한 개인이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다.”(189쪽)

전쟁사에서 건진 별미들



윤덕노 지음
더난출판사 | 2016

사서의 추천 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는 격언이 전쟁터만큼 절실한 장소도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전쟁을 통해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온 먹거리를 살펴본다. 수많은 전쟁사가 기록하듯이 필요에 의해 새로 개발되거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전혀 다른 가치를 인정받은 많은 음식이 있음을 알려준다. 음식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던 식재료는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에서 빛을 발해 생존을 이어가기도 했다. 우리가 잘 아는 건빵, 부대찌개, 카레, 콩밥, 풍뎉, 초콜릿, 상추, 팝콘 등의 음식이 전쟁과 얽히게 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놓았다.

그런 음식들의 변화과정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단결이 국난극복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부대찌개의 유행은 부끄러운 역사의 잔재가 아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자랑스러운 증거물이다. 풍뎉는 스위스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결력의 상징이다. 이처럼 음식 하나라도 전쟁의 승패,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젓 먹던 힘까지 다했을 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자 소개

윤덕노 매일경제신문사에서 2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베이징 특파원 및 미국 연구원으로 일했다. 20여 개국의 외국 경험과 기자 생활로 얻은 방대한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음식과 문화사에 대한 고찰을 다양한 에피소드로 풀어냈다. 주요 저서로 『음식잡학사전』, 『차이나쇼크』 등이 있다.

책 속 한 문장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물리적인 전쟁뿐 아니라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살기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에서도 그런 노력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427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식탁 위의 한국사
주영하
2013



(세계 속의) 음식문화
구난숙, 권순자,
이경애, 이선영
2017



붕어빵에도 족보가 있다
윤덕노
2012

중독 사회

사서의 추천 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중독자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음식 중독, 돈 모으기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종교 중독, 걱정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중독 행위자인 우리들이 속한 이 사회가 바로 ‘중독된’ 사회라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다. 책의 1부에서는 ‘중독자들의 시대’로 불릴 만한 우리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중독 관련 용어들을 풀이해 가며 중독을 이해한다. 우리가 잘 아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등만이 아니라 흔히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관계중독’과 중독의 슬픈 이면으로서 ‘동반중독’을 소개한다. 관계중독과 동반중독에 대한 이해는 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킨다. 2부에서는 ‘중독된’ 개인과 사회에 드러나는 중독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에너지 고갈의 원인-부정주의’, ‘타협 또는 타락-윤리적 퇴행’, ‘중독 사회를 유지하는 주춧돌-두려움’ 등에 대해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3부에서는 중독의 과정 혹은 이 중독 사회가 유지되는 비밀에 대해 밝힌다. 이 사회의 중독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4부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다룬다. 치유의 첫 걸음은 내가, 이 사회가 중독에 빠졌다는 사실을,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독 시스템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워 변화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개인과 사회는 중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 소개

앤 윌슨 샤프(Anne Wilson Schaef) 지난 20년 이상 물질 중독이나 과정 중독 문제에 관한 각종 상담과 특별 강연,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광범위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 저서로는 『여성의 현실』, 『동반중독』, 『중독조직』, 『일하는 여성을 위한 명상록』, 『과정 속의 삶』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기술 중독 사회
켄타로 토야마
2016



포기하는 힘
권귀현
2016



결심중독
최창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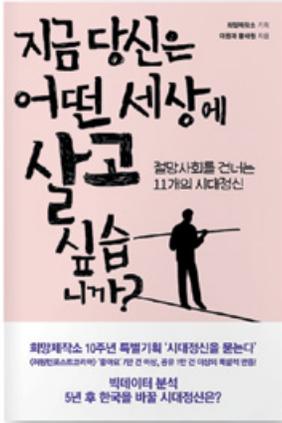


앤 윌슨 샤프 지음
강수돌 옮김 | 이상복스 | 2016

핵심 문장

“중독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일부로 머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냉철한 눈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그 중독 시스템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20쪽)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이원재, 황세원 지음
서해문집 | 2017

사서의 추천 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보면,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사회 양극화 같은 단어가 떠오른다. 이 책에서 경제·사회·복지·과학·산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인에게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점, 이대로 5년 후의 한국 사회, 이 5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대정신’을 담은 키워드로 우리나라를 진단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의 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

저자 소개

이원재 《한겨레》 기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희망제작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간싱크탱크 ‘여시재’의 기획이사를 맡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다.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등의 책을 썼다.

황세원 《국민일보》 기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팀장을 거쳐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노동을 주제로 연구 및 활동을 해왔다. 지은 책으로 『한집 줄게 새잡 다오』(전자책),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공저)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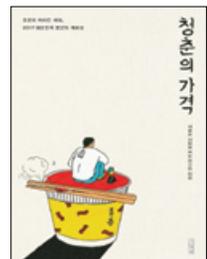
“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문화만 생겨나도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그동안 번데기 때 죽었던 많은 것들이 나비가 돼서 날아오를 것입니다.”(195 쪽)



축적의 시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015



에너지에 대한 모든 생각
조석, 이지평, 김창섭
2016



청춘의 가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7

행복한 나라의 조건

사서의 추천 글

행복한 삶의 비결은 뭘까? 이 책에서 저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한 '가장 행복한 13개국'을 여행하면서 약 300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왜 행복한지' 들려준다. 코스타리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캐나다, 파나마,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콜롬비아, 룩셈부르크를 다니면서 저자는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행복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결정한 삶의 자세로, 행복 비결은 한 사람의 인격에 찰떡처럼 붙어 있어서 도저히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일부가 된 정서라고 한다. 행복한 나라 사람들의 얘기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속도를 줄이고 소소한 매 순간을 즐기며, 스스로 행복해지도록 이 책을 통해 연습해 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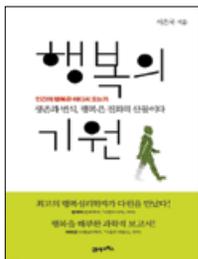
저자 소개

마이케 반 덴 불(Maïke Van Den Boom) 대학에서 미술치료를 공부하고 마케팅 분야에서 일했다. 네덜란드에서 13년, 멕시코에서 2년간 살면서 자연스레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독일 전역을 돌며 '행복한 사회', '행복한 삶'에 관해 강연을 하고 있다.



마이케 반 덴 불 저음
장혜경 옮김 | 푸른숲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행복의 기원
서은국
2014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앤서니 그랜트, 앨리슨 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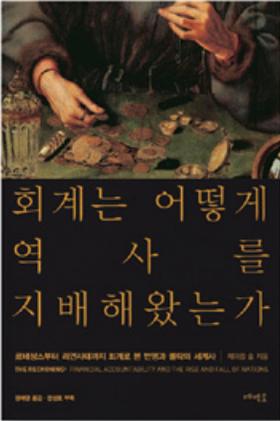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사이토 도시야, 오히라 미치요
2012

책 속 한 문장

“평온은 타인과 미래를 믿고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사물이건 사람이건 사건이건 손에서 놓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전체 구도를 살핀 다음 다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265쪽)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제이컵 솔 지음
정해영 옮김 | 메멘토 | 2016

사서의 추천 글

중세시대, 회계는 탐욕의 상징이었다. 르네상스 이후, 제노바와 피렌체 등 이탈리아 도시 공화국은 회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력하여 번성하였다. 루이 14세는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회계 장부의 기록을 중단하였고, 프랑스는 그 후 재정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이처럼 회계는 국가와 사회의 번영과 몰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회계는 책임을 묻고 평가하는 도구이다. 이 책임성은 이루기 어려우며, 지난 수백 년간 회계의 역사는 책임성을 이루기 위해 싸워온 역사다.

저자는 회계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회계의 책임성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적 사례를 들며 이야기한다. 역사를 통해 책임성 있는 회계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현재도 기업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책임성 있는 회계는 이루기 어려우며 필수적이다.

르네상스부터 리먼 사태까지 회계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최적의 책이다.

저자 소개

제이컵 솔(Jacob Soll) 역사학자이자, 맥아더 지니어스 상 수상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역사학,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16~18세기 서유럽의 정치사, 문화사, 제도사를 연구함. 저서로는 『‘군주론’의 출간(Publishing “the Prince”)』, 『정보의 거장(The Information Master)』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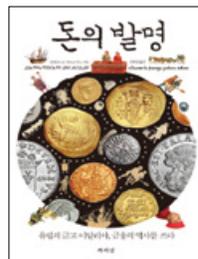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회계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힘인 동시에 자칫 닳아질 수 있는 이 중성이 있다.”(70쪽)



인류 최악의 미덕, 탐욕
스테파노 자마니
2014



돈의 발명
알레산드로 마르초 마뇨
2015



회계학 이야기
권수영
2013

담담하게 걷고 뜨겁게 뛰어라

043

사서의 추천 글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바르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산 간척지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정주영 회장 친필 글 내용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속가능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알아야 할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그것을 ‘담담함’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담담함’은 무심함 또는 소극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명확한 방향을 만들어 가는 태도이며,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다. 여러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현명하게 문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정리한 후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라고 한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한다.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인생 선배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 보길 바란다.

저자 소개

김동현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30대 중반 개인 사업을 하다가 접는 쓰라린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후 듀폰이나 몬산토 등 주로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하며 세일즈맨의 길을 걸어왔다. 네덜란드계 기업, 콜비온 퓨락의 한국지사 대표로 12년을 근무한 후 30여 년의 직장생활을 마감했다.



김동현 지음
북스토리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단단해지는 연습
조너선 페이더
2016



생각을 이기는 행동의 힘
센다 타쿠야
2016



나는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김병준
2015

책 속 한 문장

“허울일 수 있는 껍데기에 가려진 ‘나’가 아니라 껍데기를 벗어버렸을 때의 온전한 자아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맑아져야 한다. 담담해져야 한다.”(55쪽)

땡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강의모 지음
더시드 컴퍼니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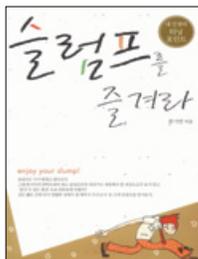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누구나 문득,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긋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일지 모른다. 이 책에는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무엇인가를 계기로 삶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스토리 세 편이 실려 있다. 그들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 소설가 김탁환에게는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날치떼”의 무리를 본 순간이, 『연탄길』 작가 이철환에게는 수없이 출판을 거절당한 원고와 직면하게 된 때가, 개그맨 박영진에게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난 박성광이 손을 내밀던 순간이, 소녀 시절 몸이 아파 한없이 움츠러들었던 소설가 정세랑에게는 선생님의 격려가 바로 터닝포인트였다. 자기 삶의 가치를 성공의 높이나 크기로 재단하지 않고,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향해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긴 스토리 세 명의 인생이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책을 통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은 사람들을 만나본다면 자신에게 찾아올 터닝포인트를 식별하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저자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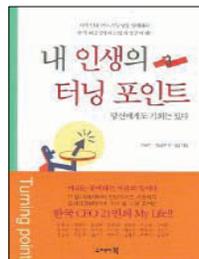
저자 소개

강의모 대학 졸업 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으며, 마흔을 넘어 학창 시절의 꿈인 방송 작가로 입문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의 프리즘을 가진 저자는 후반 삶의 주제를 ‘함께 따뜻해지는 나눔’으로 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배워서라도 하자’라는 각오로 인생의 또 다른 터닝포인트를 준비하고 있다. 저서로는 『노년에 인생의 길을 묻다』, 『아까운 책 2012』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슬럼프를 즐겨라
한기연
2005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안철수, 김남주 외 19인
2005



결단
천천, 슈지엔
2008

책 속 한 문장

“우리 삶에서 실패의 기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 무대를 만드는 데 튼튼한 발판이 된다. 사랑의 아픔을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꿈의 상처는 다른 꿈을 향하는 열정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꿈은, 실패한 꿈을 먹고 자란다!”(103쪽)

멈추고 정리

사서의 추천 글

완벽한 정리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 다르다. 우리는 흔히 정리라고 하면 집안정리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정리만이 아닌 집과 일상,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세히 제시하며 진정한 비움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건이 넘치는 집이라면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미련없이 버리고 정리하며 공간비우기를 할때 행동이 바뀌고 결국 비움이 시작된다. 일상에서의 관계는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때론 거절하는 관계 정리를 통해 나의 삶에 휴식의 자리를 마련한다. 잠동사니로 집을 가득 채우고, 빈틈없는 스케줄로 일상을 채우는 것처럼, 사람들은 피상적이고 유해무익한 관계들로 마음을 복잡하게 채운다. 진정한 비움으로 가는 길은 빈곳을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고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저자가 제시하는 비움 프로젝트를 통해 집 안에 가득한 물건들을 정리할 뿐 아니라 삶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다보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채우는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저자 소개

루스 수쿱(Ruth Soukup)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매월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개인 재정 분야의 최고 블로거인 '리빙 웰 스펀딩 레스(LivingWellSpendingLess.com)'의 설립자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물건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깨닫고는 블로그를 통해 '잠동사니 없는 삶을 위한 31일간의 도전'을 시작했는데,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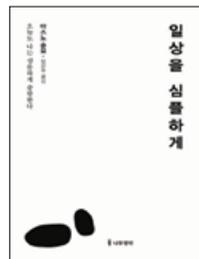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버리고, 비우기
가비 림멜레
2017



버리니 참 좋다
오후미
2016



일상을 심플하게
마스노 슌묘
2017



루스 수쿱 지음
김현주 옮김 | 코리아닷컴
2016

책 속 한 문장

“집과 관련하여 진정한 비움이란 단순히 치워도 되는 물건이 무엇인지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모습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집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사용할지, 궁극적으로 집에 있으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23쪽)

(2030년 학력 붕괴 시대의 내 아이가) 살아갈 힘



텐게 시로 지음
장현주 옮김 | 오리진하우스 | 2016

사서의 추천 글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며, 함께 발간한 보고서인 ‘일자리의 미래’에서는 앞으로 5년간 선진국에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살아갈 힘을 길러 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책은 ‘오래된 뇌’, 소위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뇌에서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을 단련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 영역이 관여하는 능력을 ‘살아갈 힘’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어떤 방법으로 오래된 뇌를 강화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살아갈 힘’이 되어 주는가.

“‘살아갈 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다. 자신의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그것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생각을 표현하고,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여 자신의 위치를 획득해 가는 힘이다.”

공학박사로, 42년 동안 소니에 근무하면서 많은 사원을 접해 본 저자는 그 사람의 학력(學力)과 학력(學歷)이 행복한 삶으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책상 앞에 붙들려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아이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노는 아이가 훨씬 강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한다. 그것은 놀이를 통해 몰입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습관화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충분히 ‘몰입’ 체험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크게 변한다.”

태아는 장시간에 걸쳐 좁은 산도를 통과하는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자는 누구나 이 출생의 체험으로 갖게 되는 탄생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기 부정감’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 탄생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감적 수용, 그것도 ‘무조건적 수용’이 필요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나쁜 언행, 거짓말, 곤란한 성격 등까지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그 아이의 존재를 수용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이에게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쏟아 100퍼센트의 관심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사람들이 탄생 트라우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능력 발휘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 수용에 의해 브레이크를 제거하면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기업 경영이라는 세계에서 배웠다.”

저자는 인디언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통파 마을의 인디언은 ‘살아갈 힘’이 넘쳐난다고 말한다. 이처럼 현대 문명의 허상에서 벗어나 대자연과 마주할 때 타인의 시선은 없어지고 사람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아갈 힘’을 찾게 된다.

“아이들을 책상에서 일어나게 하고 대자연 속으로 데려가 실컷 놀게 해보자.”

이 책에 제시된 아이들의 ‘살아갈 힘’, 강인함을 기르기 위한 방법을 아이 교육에 활용해 보면 좋을 듯하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통해 행복한 어른이 되게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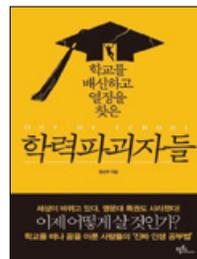
저자 소개

텐게 시로(天外伺朗) 1964년 도쿄공업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 후 42년간 소니(SONY)에 근무하였다. CD, 워크스테이션 NEWS, 애완견 로봇 AIBO 등의 개발을 주도했다. 호로트로픽 네트워크를 주재하여 의료 개혁과 교육 개혁에 관계하고 있고 명상과 단식을 지도하고 있으며, 텐게숙(天外塾)이라는 기업 경영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운명의 법칙』, 『우주의 근본과 연결되는 명상법』, 『경영자의 행동력(運力)』 등 다수가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실컷 놀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
김태형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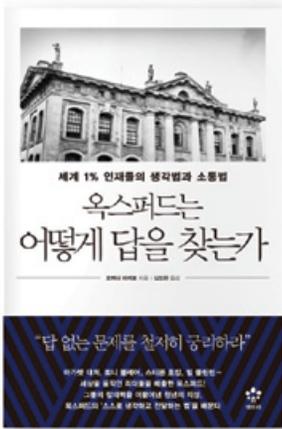


학력파괴자들
정선주
2015



자녀를 위대하게 키우려면 사랑으로 코칭하라
손성수
2008

옥스퍼드는 어떻게 답을 찾는가



오카다 아키토 지음
김정환 옮김 | 엔트리
2016

사서의 추천 글

옥스퍼드인들은 어떻게 답을 찾는가? 저자는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옥스퍼드인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기술을 재학 중에 터득해 발휘한 덕분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 기술을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준비 기술', '생각하는 기술', '말을 만드는 기술', '전달하는 기술', '피드백 기술' 등이다.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에 관한 책을 세 권 찾아서 한동안은 그것만 읽어보게"라는 지도교수의 조언도 보탠다. 특정 주제나 분야에는 공통되는 사고하는 '틀'이 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대학의 교육 이념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상식의 타파'다.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인재가 되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답을 찾고 실천하는지 살펴보고 실행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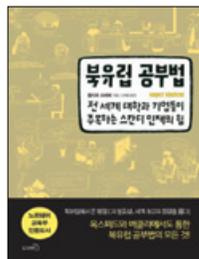
저자 소개

오카다 아키토(岡田昭人) 옥스퍼드대학 교육학대학원에서 일본인으로서 최초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도쿄외국어대학에서 일본인과 유학생에게 교육학과 이문화 커뮤니케이션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옥스퍼드 공부법』, 『교육의 기회 균등』, 공저로는 『국제교육학의 전개와 다문화 공생』 등이 있다.

책 속 한 문장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려면 먼저 자신의 머릿속을 ‘정리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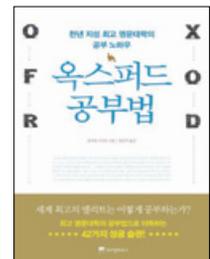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복유립 공부법
올라프 슈에베
2016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무엇을 공부하는가
후쿠하라 마사히로
2015



옥스퍼드 공부법
오카다 아키토
2015

잘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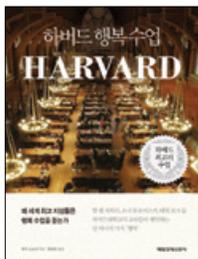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득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깊이 또한 달라진다. 그러니 선택이 곧 미래이며 목표가 곧 삶이다. 저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인생, 가슴 뛰는 일을 제쳐두고 돈을 위해 일하는 인생, 자신이 꿈꾸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인생, 명예와 이익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 등 이렇게 사는 삶은 ‘쪽팔린’ 인생이며 중요한 것은 허영심, 명예, 자존심이 아니라고 말한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기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자신의 내면에 지혜의 힘을 길렀을 때 가능하다. 인생의 목표가 ‘잘사는 것’에서 ‘스스로에게 쪽팔리지 않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더욱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쪽팔리지 않고, 품격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가 담긴 책이다.

저자 소개

리민(李敏) 하문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다년간 청소년교육 방면에 종사했다. 석사과정 때부터 이미 잡지와 주간지 등에 교육 분야 소설, 산문, 시, 문학평론 등 100여 편의 글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사회과학과 인문 분야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저서로는 『100명의 위인이 청소년에게 전하는 인생 철학』, 『나와 다른 부자의 생각』, 『나를 위한 기적』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하버드 행복 수업
유키 소노마
2017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루미나타 D. 새비억
2016



그릿
앤절라 더크워스
2016



리민 지음
남은숙 옮김 | 정민미디어 | 2016

책 속 한 문장

“세상의 모든 기회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또한 기회는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기회를 준비하며 주어진 인생에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127쪽)

창의성, 내 아이의 미래에 마법을 부리다



문정화 지음
영진미디어 | 2016

사서의 추천 글

저자는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서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힘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에 의해 길러진다고 말한다. 창의성은 가상의 상상력을 현실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내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 구성요소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내는 '유창성', 둘째,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융통성', 셋째,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는 '독창성', 다섯째,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정교성' 등이다. 각 장에서 간략한 예화와 테스트를 통해서 부모의 창의적 생활습관을 위한 첫걸음을 떼도록 도와준다. 창의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려준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창의적인 아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지침서를 읽어보고 생각의 틀을 바꾸어 아이와 함께 창의성을 위한 생활습관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저자 소개

문정화 오글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한국영재학회 부회장이자 창의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저서로는 『또 하나의 교육, 창의성』, 『내 아이를 위한 의사결정능력 코칭』, 『내 아이를 위한 창의성 코칭』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며 창의적 행동을 시도해보자.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처음부터 내 사전에 없었던 것처럼.”(183쪽)



(내 아이를 위한) 의사결정능력 코칭
문정화
2013



(내 아이를 키우는) 상상력의 힘
미셸 루트번스타인
2016



창의적인 아이로 만드는 12가지 해법
줄리아 카메론
2016

가능한 최선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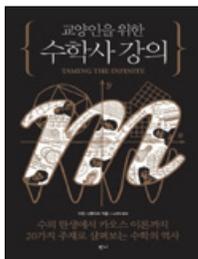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가능한 최선의 세계란 어떤 세계일까?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단자론』에서 가능한 최선의 세계를 구상한 이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최선의 세계인지, 혹은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세계가 될 수 있는지 많은 궁리가 이루어져 왔다. 17세기 수학자 모페르튀는 모든 가능한 운동은 그 작용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최소작용의 법칙이 최선의 세계에 대한 해법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생각은 계몽철학자 볼테르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이후에 물리학에서의 정상작용의 원리, 경제학에서의 최적화 개념, 게임이론에서의 균형 개념, 진화생물학에서의 적응 개념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이 책은 갈릴레오의 진동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원리와 함께 최선의 세계를 파악하려고 한 많은 학자들의 노력을 서술하면서 근대과학의 근간을 이룬 이론들의 성립과정을 보여준다. 수학공식으로만 표현되는 이론이 오늘날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탐색하는 도구가 된 과정을 일람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지적 여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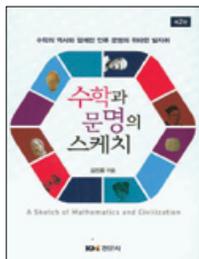
저자 소개

이바르 에클랑(Ivar Ekeland)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수학과 교수. 태평양 수리과학연구소 소장. 프랑스의 수학자로 난해한 수학 개념을 상상력이 풍부한 사례와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 『쥬라기 공원(Jurassic Park)』에 카오스 이론을 자문해준 것으로 유명하다. 저서로는 『수학과 의외성(Mathematics and the Unexpected)』, 『망가진 주사위(The Broken Dice)』 외 다수가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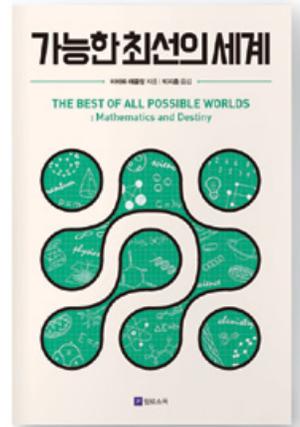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
이언 스투어트
2016



수학과 문명의 스케치
김진웅
2016



물리학자의 철학적 세계관
에르빈 슈뢰딩거
2013



이바르 에클랑 지음
박지훈 옮김 | 필로소픽 | 2016

책 속 한 문장

“세상은 하나의 시계다. 우리는 시계를 보면서 시계를 만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5쪽)

개미와 공작



헬레나 크로닌 지음
홍승효 옮김 | 사이언스북스 | 2016

사서의 추천 글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발표된 생명 진화를 기본 원리를 제시했다. 우리가 다윈주의라고 부르는 이론이다. 하지만 기원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이론이다. 하지만 얼핏 다윈주의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다. 일개미들의 자기희생과 수컷 공작들의 아름다운 깃털이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개미’와 ‘공작’은 각각 진화론의 쟁점이었던 이타주의와 성 선택을 대표한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저자는 개체의 번식과 생존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듯 보이는 일개미들의 자기희생과 수컷 공작들의 아름다운 깃털을 다윈주의가 어떤 논리를 통해서 설명해내는지 흥미롭게 서술한다.

책의 1부에서는 다윈주의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성 선택과 이타주의의 여러 주제를 제시하고, 2부에서는 화려하고 위험한 수컷 공작의 꼬리가 생존과 번식의 경쟁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성 선택의 문제를, 3부에서는 하나의 개미 혈연집단이 오직 여왕개미의 번식으로도 구성되도록 번식을 포기하는 일개미의 이타주의를 다룬다. 덧붙여 개미와 공작 이외에도 다양한 종들의 동식물의 예를 언급하고, 진화생물학의 핵심 개념들도 정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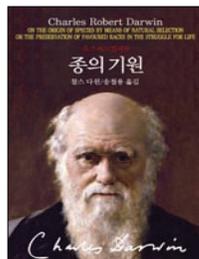
저자 소개

헬레나 크로닌(Helena Cronin)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 런던 정치 경제 대학(LSE)에서 과학사와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런던 정치 경제 대학의 자연 철학과 사회 과학 연구소 공동 소장으로서 재직 중이다. 다윈주의에 관한 새로운 이슈들을 소개하는 《다위니즘 투데이》의 공동 편집자이며, 진화 생물학과 현대 사회의 접점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서 《가디언》, 《뉴욕 타임스》 등 여러 매체의 기고자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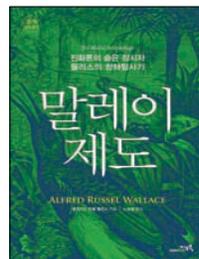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우리는 조상의 지혜가 담긴, 살아 있는 기록 보관소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선조들의 드문 성공을 기리는 산 기념물이다.”(23쪽)



종의 기원
찰스 다윈
2013



말레이 제도
앨프리드 러셀 월리스
2017



다윈의 정원
장대의
2016

동물에게 배우는 노년의 삶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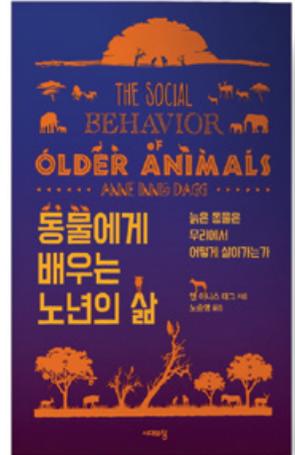
그 옛날 길가메시와 진시황이 에타게 찾았던 것은 불사(不死)초가 아니라 불로초였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생물은 늙으며, 늙으면 신체 능력과 생식 능력이 저하된다. 나이 먹은 동물이 겪는 변화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개체 간 즉, 군집 생활을 하는 무리 안에서 그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나이 든 지도자는 젊은 개체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지배력을 잃는다. 이는 생존 경쟁의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늙은 개체는 그대로 삶에서 도태되는 것일까?

책에 따르면, 그렇지만은 않다. 랑구르원숭이의 경우처럼 먹이와 물의 위치, 다른 원숭이 세력과의 관계 등을 꿰고 있는 늙은 개체가 존경받는 것은 그리 드문 사례가 아니다. 공동육아를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코끼리나 향고래의 경우 노련한 암컷들이 육아를 맡아 주는 것이 무리의 생존율을 크게 높인다. 또 으뜸 수컷의 지위에서 내려온 망토개코원숭이는 전에 없이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늙기 위해 살아가는 생물은 없다. 살다 보니 늙을 뿐이다. 그리고 그 나름의 역할을 행한다. 수많은 현장 연구와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이 책을 읽다 보면 적자생존의 비정함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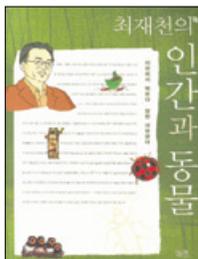
저자 소개

앤 이니스 대그(Anne Innis Dagg)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워털루 대학교의 독립연구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쇼핑 중독은 유전자가 아니다: 다윈주의 심리학의 문제점』, 『기린에게 반하다: 시민과학자로서의 나의 삶』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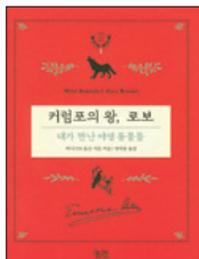


앤 이니스 대그 지음
노승영 옮김 | 시대의창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
최재천
2007



커림포의 왕, 로보
어니스트 톰슨 시튼
2016



동물을 깨닫는다
버지니아 모렐
2014

책 속 한 문장

“...늙은 동물은 자신의 ‘개성’을 간직하며 삶에 만족한다. 더는 젊은 동물과 부대끼지 않지만 연장자로서의 조심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는다.”
(260쪽)

매혹하는 식물의 뇌



스테파노 만쿠소,
알레산드라 비올라 지음
양병찬 옮김 | 행성B이오스
2016

사서의 추천 글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동물이 지구상에 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오늘날에도 먹이사슬의 최하층부에서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다.

고착생활을 하는 식물은 포식자에게 신체 일부를 잡혀 먹혀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중요한 기능을 모듈화 하여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완전포식을 모면하는 모듈화 구조는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 선택한 고도의 전략이다. 또한 이 책에 따르면 식물도 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인식 한다. 이것은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실제로 식물은 자기 주변의 환경을 정확히 인식한다. 식물은 빛의 색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반응한다. 또 자신을 둘러싼 냄새를 맡아 위험을 감지한다. 이처럼 식물은 물리적인 세계를 감지하고 인식하는 데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식물이 가진 뛰어난 인식 체계와 섬세하게 발달된 감각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자는 그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음으로써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확인시키며, 도처에 숨 쉬고 있는 식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저자 소개

스테파노 만쿠소(Stefano Mancuso) 식물신호 및 행동국제협회(PSB)의 창립 멤버이다. 2013년 《뉴요커(The New Yorker)》지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알레산드라 비올라(Alessandra Viola) 과학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극본을 쓰는 방송작가이다. 2011년에는 제노바의 과학페스티벌을 총감독하기도 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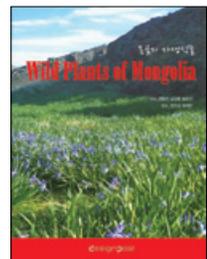
“식물은 입이 없어도 먹을 수 있고 폐가 없어도 숨쉴 수 있으며 그 밖의 특별한 기관이 없어도 보고, 맛보고, 느끼고, 의사소통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187쪽)



세상을 바꾼 식물 이야기 100
크리스 베어쇼
2014



꽃보다 아름다운 잎
권순식, 노희은, 배준규,
손상용, 정대환, 정우철
2016



몽골의 자생식물
권용진, 남상용, 송윤진
2015

바이털 퀘스천

사서의 추천 글

‘생명은 왜 이런 모습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현생 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와 세균의 생물학적 차이에 주목한다. 원시 세균으로부터 분화하여 진화한 진핵세포와 달리 세균은 오랜 시간을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원핵세포인 채로 남아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는 방식의 효율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저자에 의하면 진핵세포는 세포막을 경계로 한 농도 차이, 즉 ‘양성자의 기울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는 원시세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차이가 양성의 진화, 예정된 세포 죽음, 유산소 적합성과 생식력 사이의 거래와 같은 모든 특성들을 결정지었으며, 그 중심에는 생명의 기원으로부터 이어져 온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 책의 요지다.

생명이란 얼마나 많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존재인가. 이 경이로운 탄생의 역사를 따라가며 저자 닉 레인이 풀어낸 21세기 생물학의 정수를 맛보기를 권해본다.

저자 소개

닉 레인(Nick Lane)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유전, 진화, 환경학과의 생화학자로, UCL 생명의 기원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2015년에는 분자생명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생화학 학회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2010년 왕립학회 과학도서상을 수상한 『생명의 도약 : 진화의 10대 발명』과 『미토콘드리아 : 박테리아에서 인간으로, 진화의 숨은 지배자』, 『산소 : 세상을 만든 분자』가 있다.



닉 레인 지음
김정은 옮김 | 까치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생명의 도약
닉 레인
2011



최초의 생명플, 세포
데이비드 디머
2015



우연과 필연
자크 모노
2010

책 속 한 문장

“우주에서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생물학적 장치인 우리의 정신에도 이 끊임없는 에너지의 흐름이 전달된다는 것은 정말로 큰 행운이다.”(363쪽)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이형주 지음
책공장더블어 | 2016

사서의 추천 글

서울의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그와 함께 동물복지의식도 성장하여 동물보호법의 확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다. 시야를 넓히면 단순히 동물에게 가하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유기뿐만 아니라 내가 소비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동물학대에 일조하는 일도 벌어진다.

산업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공장식 사육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사람이 먹기 위해 동물이 도살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차지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야 하는 경제의 원리에 따라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한 공장식 축산 시스템 안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속박당하고, 생태적 습성은 철저히 무시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고 말한다.

야행성 동물인 사향고양이에 대한 학대는 어떤가. 들에서 따먹은 커피열매는 사향고양이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위산과 효소의 작용으로 단백질이 분해되어 배설되는데 이 배설된 커피의 그 특이한 향이 소문이 나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자 사향고양이를 따라다니며 채취하는 방법을 그 만두고 아예 사향고양이를 포획해 우리에 가두고 강제로 커피열매를 먹이는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연하지만 자기 몸보다 조금 큰 공간에 갇혀 커피열매만 먹고 배설하는 일이 전부인 사향고양이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또 카페인에 중독되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이상자해 행동을 보였다.

소비재로 쓰이는 동물들

현대사회에서는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종류와 수,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꼭 음식이 아니라도 소비재로 쓰이는 거의 모든 동물의 처지 또한 농장동물과 다르지 않다. 수요와 반대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모피산업, 잔인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파충류가죽 뿐 아니라 호랑이 가죽을 벗겨 만든 양탄자, 호랑이 술과 향암효과가 있다는 코뿔소 뿔 등 농장의 동물이 아닌 야생의 희귀동물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구경거리로 사용되는 동물들

몸 색깔이 하얀 알비노 현상은 몸에서 멜라닌 합성이 결핍되는 유전자 변이 때문에 발생하는데 눈은 홍채에 멜라닌 색소가 없어 망막의 혈관이 비

쳐 붉은 빛을 띤다. 야생에서는 무리와 다른 생김새 때문에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멜라닌 색소가 없어 자외선에 취약하여 각종 피부질환에 걸리거나 유전적 결함으로 시력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동물원에서는 희귀성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근친교배로 알비노 동물을 번식시키고 야생의 70여 마리의 돌고래를 사육하여 야생의 알비노 돌고래 1마리를 산 채로 포획해 햇빛도 들지 않는 작은 수족관에 가두고 있다. 모두가 잔인한 동물 학대다.

이 책은 다양한 관점에서 동물학대의 현장을 소개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선택이 동물과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준다. 이제는 한국도 직·간접적으로 동물학대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 무심코 내가 선택하던 것들이 지구건너편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저자 소개

이형주 미국 피바디 음악대학과 맨해튼 음악대학 대학원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고 뉴욕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 2010년 귀국해 대학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에서 동물이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물보호 운동가의 길로 들어섰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서 정책국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동물관련 법률과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국제비영리기구인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의 동아시아 지부 캠페인 매니저로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운동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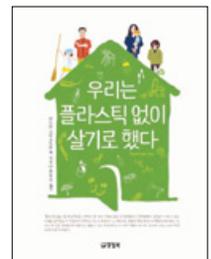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고등학생의 국내 동물원 평가 보고서
최혁준
2014



베른트 하인리히, 홀로 숲으로 가다
베른트 하인리히
2016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산드라 크라우트비슬
2016

아인슈타인의 주사위와 슈뢰딩거의 고양이



풀 헬퍼 지음
김성훈 옮김 | 플루토 | 2016

사서의 추천 글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에 대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슈뢰딩거는 유명한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실험을 통해 양자역학 이론의 역설을 설교했다. 각각 상대성이론과 파동방정식이라는 대표적인 이론을 구축한 두 과학자는 물리학의 통일이론 완성을 위해 교류하고 협력했다. 이 책의 독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명의 천재적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슈뢰딩거의 성공과 통일이론을 위한 진리탐구 과정을 통해 근·현대물리학 이론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계를 위해 고민하기도 했던 모습이나 유별난 여성편력 등의 사생활도 엿볼 수 있다.

여담이지만, 다행인 것은 고양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슈뢰딩거의 사고실험이 실제 고양이를 대상으로 시도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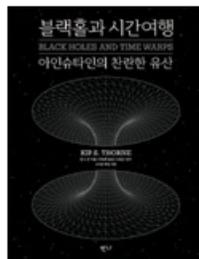
저자 소개

폴 헬퍼(Paul Halpern) 필라델피아 과학대학교 물리학 교수. 시간과 공간, 고차원,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외계행성, 입자물리학, 우주론, 그리고 과학의 문화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10여 권의 과학책과 수많은 글을 썼으며, 구겐하임 장학금, 풀 브라이트 장학금, 애서니엄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미국 PBS 방송의 물리학 블로그 ‘실재의 본질(The Nature of Reality)’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히스토리 채널, 디스커버리 채널, PBS 등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과 텔레비전 쇼에 출연했다. 지은 책으로는 『Time Journeys』, 『Cosmic Wormholes』, 『The Cyclical Serpent』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썩썩하고 달콤한 것은 외부로부터 오고, 고난은 내면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온다.”
(390쪽)



블랙홀과 시간여행
킵 S. 손
2016



슈뢰딩거의 고양이
애덤 하트데이비스
2017



빛보다 느린 세상
최강진
2016

틀리지 않는 법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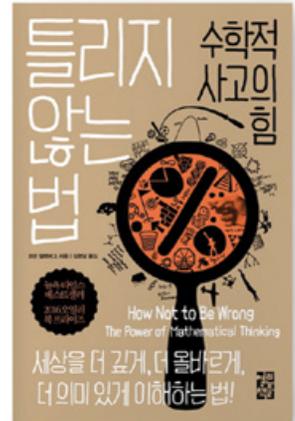
이 책의 프롤로그 제목과 같이, 수학을 “어디에 써먹을까?” 입시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억지로나마 수학과 친해지려고 노력한 이도 드물 것이다. 그만큼 수학이란 어렵고 까다로우며,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주는 학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저자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때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들로부터 수학적 구제해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상식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한다.

주식 시장 변동에 대한 예측을 열 번 연속 명중시킨 주식 중개인이 당신을 어떻게 속인 것인지, 테러의 희생자 수를 비율로 따져 그 규모를 가늠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선부른 일인지, 또 MIT 학생들이 매사추세츠 주 복권의 기댓값을 계산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옳게 짚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수학의 진가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간단한 추론이나 확률을 얼마든지 사용한다. 책에 소개된 큰 수의 법칙, 귀무가설, 평균으로의 회귀 효과 등의 수학적 산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수와 공식의 세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도구들을 통해 세상을 통찰할 때 우리가 틀리지 않도록, 저자 특유의 유쾌한 문체로 흥미로운 가이드를 제공하는 책이다.

저자 소개

조던 엘렌버그(Jordan Ellenberg) 수론과 대수 기하학, 대수 위상학 등을 주 연구 분야로 하는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의 수학자로서,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 등에 기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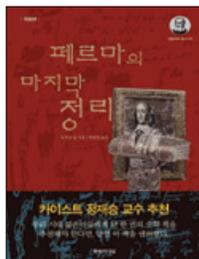


조던 엘렌버그 지음
김명남 옮김 | 열린책들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
오스카 E. 페르난데스
2015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사이먼 싱
2003



세계를 바꾼 17가지 방정식
이언 스튜어트
2016

책 속 한 문장

“인생과 마찬가지로 수학에는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다. 수학의 맥락에서 좋은 선택이란 새로운 혼란을 빚어내지 않으면서 기존의 불필요한 혼란을 해결하는 선택이다.”(68쪽)

그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류위즈, 바이잉위 지음
강은혜 옮김 | 시그마북스 | 2017

사서의 추천 글

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역사 속 유명인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책의 공저자인 두 젊은 의사는 암살자의 총격을 받은 미국대통령들, 치명적인 병에 걸린 과학자, 약물에 중독된 슈퍼스타들이 사망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그때의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적인 사인을 분석한다. 또한 오늘날의 현대 의학으로는 과연 그들을 살릴 수 있을지 과거의 의학기술과 현대의 의학기술을 비교하면서 의학발전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잘린 머리가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죽은 사람의 뼈가 만병통치약으로 쓰였는지,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등의 죽음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들을 의학적으로 설명하여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친숙한 유명인들의 일화와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의학 분야에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저자 소개

류위즈(劉育志) 외과의사 겸 칼럼니스트. 현재는 글쓰기에만 전념하며 《황관잡지》, 《빈과일보》, 《과학소년》, 《민보》, 《상업주간》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고 《국어일보》의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칼 밑의 인간』, 『의료 붕괴! 유토피아의 실현과 환멸』, 『공주병에는 약이 없다』, 『대만의 환자가 가장 행복하다』, 『목숨이 걸린 메스』 등이 있다.

바이잉위(白映俞) 외과 전문의. 독서와 글쓰기, 운동을 좋아하며 의료, 역사, 심리 관련 에세이를 쓴다. 《상업주간》에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외과실락원'을 운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소녀의 특기는 배 가르기』, 『목숨이 걸린 메스』, 『뱃속의 비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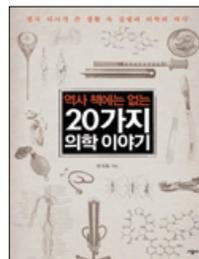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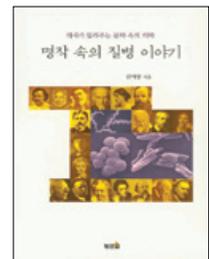
“사람의 목숨과 정치는 이렇듯 언제나 중첩을 수 없고 무정하며 무상한 법이다.”(27쪽)



위험한 저녁식사
조너선 에드로
2010



(역사 책에는 없는) 20가지 의학 이야기
박지욱
2015



명작 속의 질병 이야기
김애양
2014

녹

사서의 추천 글

일반적으로 녹을 청소가 필요한 오염물질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피해 규모를 놓고 보면 녹은 현대 인류에게 있어 가히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GDP의 3%인 4370억 달러로, 이 금액은 스웨덴의 전체 GDP보다도 많다. 자동차는 녹으로 인한 부식 때문에 1년에 약 3.5kg씩 가벼워진다. 공학자들은 맥주를 캔에 담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무려 125년 동안 녹과 사투를 벌였다. 녹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학자들과 부식방지 전문가들의 활약 덕분에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약하고 끔찍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자유의 여신상 복원사업, 스테인리스강의 개발, 음료 캔 코팅기술의 발전 등 녹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의 발달과 녹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녹과 인류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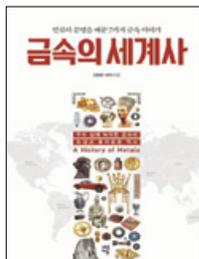
저자 소개

조나단 월드먼(Jonathan Waldman)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다트머스대학교에서 환경과학을 공부하고, 보스턴대학교에서 과학저널리즘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아웃사이드》,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맥스 위니스(McSweeney's)》, 《어트니 리더(Utne Reader)》 등에 과학, 문화, 정치를 주제로 많은 글을 썼으며 지게차 운전사, 별목꾼, 여름캠프 강사, 등반 강사,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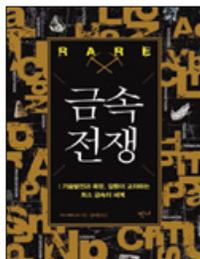


조나단 월드먼 지음
박병철 옮김 | 반니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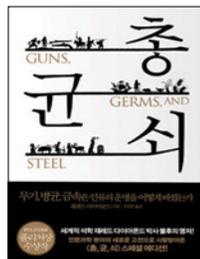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금속의 세계사
김동환, 배석
2015



금속 전쟁
키스 베로니즈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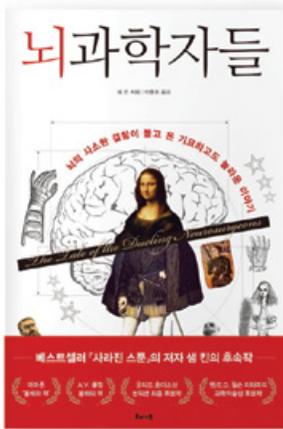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2013

책 속 한 문장

“금속은 단단함의 상징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처럼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20쪽)

뇌과학자들



샘 킨 지음
이충호 옮김 | 해나무 | 2016

사서의 추천 글

이야기는 마상창시합 중에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16세기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뇌수술로부터 시작한다. 뇌와 같이 섬세하고 복잡한 고등기관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있을 리 없던 시대 이래로 인류는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코끼리를 더듬듯이 뇌과학을 발전시켜 왔다.

뇌는 정말 신비한 기관이다. 전쟁, 질병, 의료사고 등의 불행으로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 특별한 이유 없이 강박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왼손이 오른손을 통제 불능으로 방해하거나, 자신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이를 방증한다. 글을 쓸 수 있음에도 읽을 수 없는 한편, 쇠막대로 머리뼈를 관통당하고도 의식을 잃지 않은 사례까지 있다. 지금 우리는 신경전달물질의 존재를 알고, 좌뇌와 우뇌가 각기 다른 기능을 관장하고 언어나 시각, 기억 등을 담당하는 구역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뇌가 얼마나 정교하고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기능하는지 안다. 그 과정에는 이토록 기묘한 증상의 환자들과, 이들의 치료와 연구에 집요하리만치 힘썼던 의사 혹은 뇌과학자들이 있었다. 생생하게 묘사된 흥미로운 사례로 가득 찬 이 책은 뒷부분의 주석 노트에 이르기까지 버릴 데가 없다.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필독을 권한다.

저자 소개

샘 킨(Sam Kean) 미국 워싱턴 D.C.에서 작가로 활동 중이며, 미국과학작가협회 특별상(2009)을 받았다. 각각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사라진 스푼』, 『바이올리니스트의 엄지』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어떤 사람의 뇌도 평생 동안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버텨나갈 수는 없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아주 많은 것이 온전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이다.”(463쪽)



어제가 없는 남자, HM의 기억
수잔 코킨
2014



우리는 우리 뇌다
디크 스왑
2015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섉스
2016

뭐든지, 호르몬!

사서의 추천 글

호르몬은 인체의 활동이나 생리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자극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물질이다. 인간의 몸속에 있는 장기, 두뇌, 손, 발 등은 유기적이고 기계적인 장치 속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들을 연결하는 신호체계가 바로 호르몬이다.

불같은 사랑과 결혼, 출산과 육아도 호르몬의 폭발 없이는 불가능하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빼놓고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으며, 코르티솔 없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도 없다.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내분비계 호르몬, 신경계 호르몬, 면역계 호르몬을 통해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세포 간, 장기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하게 한다.

호르몬에는 생물 진화의 기원에서 남녀 성별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물학의 원리와 인체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공의 방식도 남녀는 다르다. 남자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여자는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한다. 이러한 인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호르몬의 작용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책은 인체의 복잡한 생리현상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았다. 우리 일상을 보다 건강하고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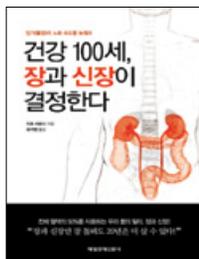
저자 소개

이토 히로시(伊藤裕) 고혈압과 당뇨병, 안티에이징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장기의 시간을 늦춰라』, 『건강 100세, 장과 신장이 결정한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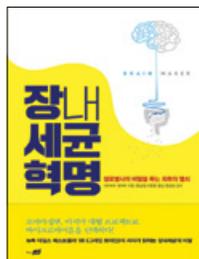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내 몸에 똥보균이 산다
후지타 고이치로
2016



건강 100세, 장과 신장이 결정한다
이토 히로시
2016



장내세균 혁명
데이비드 펠머터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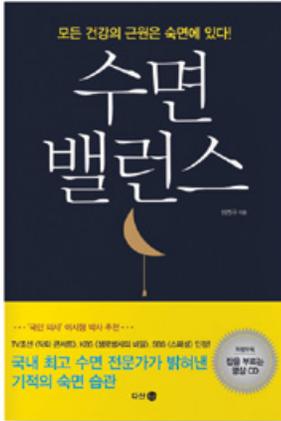


이토 히로시 지음
윤혜원 옮김 | 계단 | 2016

책 속 한 문장

“호르몬은 뇌의 명령에 따라,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준다. 그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호르몬과 보완대체의학의 관계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45쪽)

수면밸런스



한진규 지음
다산 4.0 | 2016

사서의 추천 글

수면은 우리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다. 그만큼 자신의 수면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건강한 사람은 밤에 잘 때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며 일정한 자세로 잔다. 똑바로 정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뒤척이며 자는 사람들은 수면 중 호흡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수면은 뇌가 과열되어 뇌세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뇌를 쉬게 하고, 피로를 해소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또한 생리주기를 맞추는 생체시계의 역할도 하고 기억을 정돈한다.

이 책은 수면의 질에 대한 설문을 배치하여 독자 스스로 자신의 수면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수면장애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별로 제시하고, 꼭 필요한 수면밸런스 수칙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는 좋은 수면이 필수적이다. ‘수면밸런스’는 올바른 수면을 위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한진규 고려대 의대 졸업,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 서울스페셜수면의원 원장, 국립보건원 뇌신경 질환과 연구원,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수면전임의, 수면 분야 최고의 권위자, 한국수면학회 이사.

책 속 한 문장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하려면, 몸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스트레칭을 해주듯이 지친 뇌의 피로를 풀어 주는 잠을 자야 한다.”(77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10년 젊어지는 수면법
아오키 아키라
2016



수면혁명
아리어나 허핑턴
2016



내 삶을 깨우는 행복수면
미야자키 소이치로
2016

알파하우스를 꿈꾸다

사서의 추천 글

건축가 교수인 아버지와 건축가인 아들이 일, 휴식, 문화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한 기울어진 집 이야기다. 아버지의 호를 딴 '수헌정'을 새로운 구축방식을 시도한 건축물을 지으면서 두세대는 치열한 고민을 서로 나누었고, 집의 공간 하나 하나를 기능적으로 구획하기보다는 공간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기울어진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수헌정'을 설계했다. 그렇게 하여 일과 휴식 그리고 살림 공간으로서의 침단의 알파하우스가 탄생하게 되었다. 모던니즘을 극복하기 위한 현대건축의 노력, 즉 구조를 이루는 각 요소들이 다른 기능까지 흡수하고 미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게끔 하려는 소규모프로젝트가 '수헌정'에서 시도된 것이다.

이 책은 집을 어떤 공간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새롭게 상상하는 데 중요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임창복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21세기엔 이런 집에 살고 싶다』(공저), 『건축 계획론』(공저) 등이 있다.

임동우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도시설계 건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설계사무소 프라우드(PRAUD)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뉴욕 젊은 건축가상,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2014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의 한국관 참여 건축가이다. 저서로는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북한 도시 읽기』(공저), 『I Want to be METROPOLITAN』(공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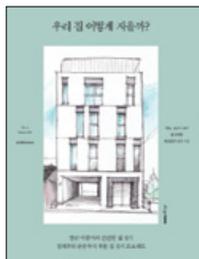


임창복, 임동우 지음
효형출판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노미경
2015



우리집 어떻게 지을까?
허은순
2015



내가 꿈꾸는 너만의
전원주택 짓기
유광수
2016

책 속 한 문장

“기존의 전원주택이 자연의 경험이나 풍경은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알파하우스는 좀 더 다양한 공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다시 말하면, 알파하우스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에 무게를 둔다.”(41쪽)

여행 잘하는 사람으로 크다면



류한경 지음
애플북스 | 2016

사서의 추천 글

엄마와 사춘기인 두 아이와 함께 겨울방학 동안 뉴질랜드 여행에서 겪은 가족여행 이야기이다. 여행하면서 얻은 모험담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여행 잘하는 사람으로 크다면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저자의 교육 철학을 담고 있는데, 아이들 스스로 여행 계획을 짜고,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행은 아이들이 호기심과 동기 유발에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아이와 부모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여행지마다 언어, 특색 지명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된다. 또 새로운 것들과 만나는 여행은 창의성을 기르기에 더 없이 좋은 시간이다.

일상 속에서 아이와 함께 함께 웃으면서 산책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며 하루하루 여행하는 마음으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다 보면 아이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매 순간이 더 소중히 여겨질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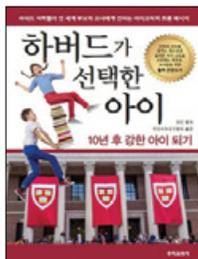
저자 소개

류한경 연세대학교 국문학 전공, 카피라이터로 일을 시작했으며, 글 쓰는 일과 교육에 뜻을 두고 중학교 국어교사로도 일했으며,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책따세)' 운영진으로 독서 교육 연구와 청소년들과 좋은 책을 나누는 자원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소신 있게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을 울리며 큰 호응을 받은 『아이들은 길에서 배운다』가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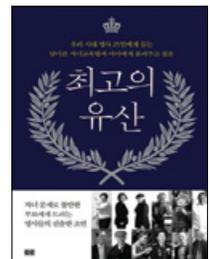
“여행은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라 생각도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나도 아이를 바라보면서 성적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88쪽)



하버드가 선택한 아이
위린
2016



탈무드 인성수업
웨인 도식
2015



최고의 유산
중앙일보 강남통신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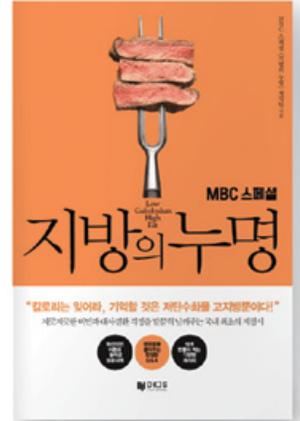
지방의 누명

사서의 추천 글

내 몸을 위한 식사 혁명,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으로 MBC 스페셜에 방송된 《지방의 누명》이 책으로 출간됐다. 지방에 대한 오해와 탄수화물의 진실,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레시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가 어떠한 원리로 체중감량을 이끄는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제2부는 지방 섭취가 체중감량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데 주력한다. 제3부는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방송 후 질문 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Q&A 형식으로 담았고, 제4부는 집에서든 쉽게 만들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의 레시피를 실었다.

지방을 알고 먹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책은 말한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의 핵심과 성공사례가 궁금한 독자라면 일독해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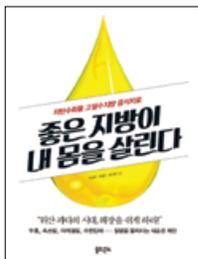


MBC 스페셜 <지방의 누명> 제작팀, 홍주영 지음
디케이제이에스(DKJS) | 2017

저자 소개

MBC 스페셜 <지방의 누명> 제작팀, 홍주영 1993년 SBS에능극에서 방송계에 입문, 현재 교양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 EBS 다큐프라임 <엄마도 모르는 아이의 정서지능>, <놀이의 반란>, <화산>, KBS <생로병사의 비밀>, SBS 스페셜 <이영애의 만찬>, MBC 스페셜 <밥상, 상식을 뒤집다> 시리즈의 <채식의 함정>, <탄수화물의 경고>, <지방의 누명> 등 수많은 다큐멘터리 집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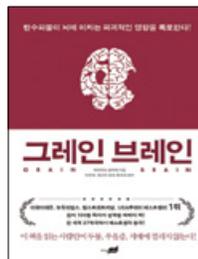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좋은 지방이 내 몸을 살린다
이권세, 조창인, 채기원
2017



지방의 역할
니나 타이솔스
2016



그레인 브레인
데이비드 펄머터
2015

책 속 한 문장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다.”(215쪽)

코타로와 나



곽지훈 지음
미래의창 | 2016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시바견 코타로가 귀여운 강아지에서 늙름한 성견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성장기록이다. 도쿄에 살고 있는 한국인 싱글남인 저자는 우연히 시바견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과감한 행동력으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주택으로의 이사도 불사하며 아기 코타로를 입양하고 이때부터 그의 생활의 중심은 코타로가 되었다. 강아지 시절의 배변교육부터 성견이 되고 함께했던 캠핑까지 저자와 코타로의 행복한 추억담은 독자들에게 반려견에 대한 ‘로망’을 가지게 한다. 한편으로는 코타로에 대한 저자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며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커다란 책임감이 필요인지 알게 된다. 반려동물이 인간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반려동물과의 교감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느낄 수 있다. 지금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쾌한 공감울, 반려견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간접체험을 전해줄 것이다.

저자 소개

곽지훈 한국외대 일본어과를 졸업한 뒤 2007년부터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다. 시부야의 IT 벤처기업 료게이샤(RYOGEISYA Inc.)에서 인터넷 광고 업무를 맡고 있다. 2012년 12월 시바견 코타로와의 운명적 만남이 있는 뒤부터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코타로를 중심으로 바뀌었다. 일과 코타로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고달픈 워킹대디. 그러나 코타로로 인해 크게 달라진 제2의 인생을 감사히 여기며 코타로와 즐거운 산책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무슨 일이 있어도 너석을 책임지고 끝까지 잘 키우겠다는 의지와 함께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던 책임감이 밀려왔다.”(31 쪽)



개를 그리다
정우열
2014



강아지야, 너 무슨 생각해?
윤승아
2013



고양이가 알아서 할게
이용한
2015

햇빛의 선물

사서의 추천 글

자연에는 없어서는 안 되고 믿을 만한 풍부한 천연치료제가 많은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이다. 햇빛은 ‘자연의 약국’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그 효과가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다. 자외선으로 노출된 햇빛에 관한 잘못된 상식과 사례를 저자는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 햇빛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치명적인 피부암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밝힌다.

햇빛은 약물이나 수술처럼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이 많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루 20~30분 햇빛 산책으로 면역체계를 강화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보자.

저자 소개

안드레아스 모리츠(Andreas Moritz) 아이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 의학 전문가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의식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암은 병이 아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소』, 『끓지 말고 해독하라』 등 10여 권에 이르는 대체 의학 관련 서적을 펴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지음
정진근 옮김 | 에디터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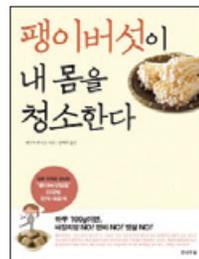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김효준
2016



(가족의 몸을 살리는) 바이러스 예방습관
프레데릭 살드만, 프랑수아 브리케르
2014



팽이버섯이 내 몸을 청소한다
에구치 후미오
2014

책 속 한 문장

“생명력과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이다 말하고 있다. 비타민 D가 우리의 면역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간이 비타민 D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피부에 햇빛을 쬐어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다.”(222쪽)

헤어



쿠르트 스텐 지음
하인해 옮김 | MID(엠아이디) | 2017

사서의 추천 글

털의 탄생은 생명의 진화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포유류는 전신의 털 덕분에 밤에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 파충류에 비해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나 털의 열 보존성으로 인해 더운 기후에 적응이 방해되었다. 특히 너조직은 체온상승에 민감하였고 인간은 촘촘한 털외투를 벗어야만 진화할 수 있었다.

인간의 털은 생물학적 기능뿐만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사회적 기능을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인간의 미적기준에 영향을 주고, 그 형태와 스타일로 지위, 인종, 종교 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며, 예술품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동물의 모피는 인간에게 중요 자원으로 인류 경제에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모피를 얻기 위해 비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털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식과 인간의 털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 동물의 모피가 인류역사에 끼친 영향 등 털이 우리에게 갖는 다양한 가치와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 소개

쿠르트 스텐(Kurt Stenn) 지난 30년 동안 털을 연구하며 200편 이상의 논문을 출간한 털 전문가이다. 그는 20년 간 예일대학교에서 병리학과 피부과학을 가르쳤으며, 존슨앤존슨에서 피부생물학 디렉터로 10년 동안 근무했다. 최근에는 생명공학 스타트업에서 탈모를 치료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다.

책 속 한 문장

“털은 인간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미래에도 계속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2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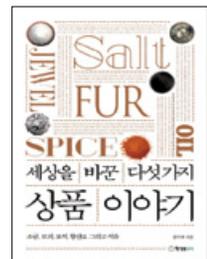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유별난 호모 사피엔스
이영호
2017



깃털
쇼어 한스
2013



세상을 바꾼 다섯 가지 상품 이야기
홍익희
2015

그림의 맛

사서의 추천 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이 시사하듯이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기 전 눈으로 먼저 소비된다. 그래서 요리가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미술과 만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이 책은 오너 셰프였던 저자가 현대 미술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이 둘을 잘 버무려 담아낸 결과물이다.

저자는 책속 폴록의 뚝뚝 떨어뜨린 듯한 그림을 그대로 접시 위에 옮긴 듯한 오마주 요리를 소개하는가 하면, 푸드 트럭의 길거리 음식과 담벼락에 그려진 뱅크시의 낙서 그림을 엮어 보기도 한다. 시계, 여행 가방 등 같은 형태의 물건을 탐쳐럼 높이 포개 쌓은 미술 양식 아상블라주와 과자, 빵 따위를 쌓아 올린 음식인 피에스 몽테를 닮은꼴 예술로서 소개해주며, 와인의 얼굴과도 같은 아티스트 라벨에 대한 이야기 등 미술과 미식에 얽힌 다채로운 면들을 저자 특유의 감각적인 시선과 상상력으로 흥미롭게 풀어냈다.

보는 예술, 먹는 예술, 어느 한 쪽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강력히 권한다. 맛있는 요리를 비우듯 책을 독파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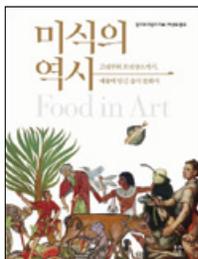
저자 소개

최지영 뉴욕 CIA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 컨템포러리 퀴진(contemporary cuisine)을 표방한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여러 매체에 요리와 미술을 주제로 칼럼을 썼으며 현재 아트다이너(ARTDINER) 대표로 일하고 있다.



최지영 지음
홍시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미식의 역사
질리언 라일리
2017



고흐의 다락방
프레드 리먼,
알렉산드라 리프
2011



그림으로 본 음식의 문화사
케네스 벤디너
2007

책 속 한 문장

“현대미술이 어려운 것처럼 현대 요리도 어렵다. 대상을 완전히 분리 혹은 해체한 후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재구축하면 그게 바로 예술이다.”(182쪽)

동양인은 모나리자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크리스틴 카롤, 우흥마오 지음
전혜영 옮김 | 예세 | 2016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베이징에 살면서 중국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인 크리스틴 카롤과 우한대(武漢大)에서 프랑수를 가르치는 중국인 우흥마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서양화를 보며 이해되지 않았던 점이나 궁금증을 동양인의 관점에서 질문하고 서양인의 관점으로 대답한다.

두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롯해 피카소의 「자화상」까지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품을 함께 감상한다. 그들의 대화는 어려운 미술 이론을 제시하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상이나 개념을 다른 문화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생각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

그동안 서양미술을 감상하면서 품었던 궁금증이나 숨겨진 역사적 배경을 알고 싶어 하는 독자라면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이다. 두 저자의 미묘하게 다른 시각을 비교해보는 것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크리스틴 카롤(Christine Cayol) 베이징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 교육철학자다. 저서로는 『보는 것이 곧 예술이다』, 『나는 가톨릭교도이며 고통받고 있다』 등이 있다.

우흥마오(吴泓缈) 중국 우한대 프랑수어학과 교수로 『붉은 정자 안에서의 꿈』, 『소자연의 대자연』, 『이론의 악마』, 『보는 것이 곧 예술이다』 등을 번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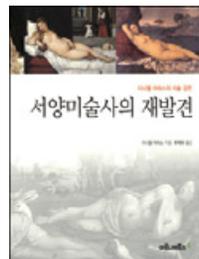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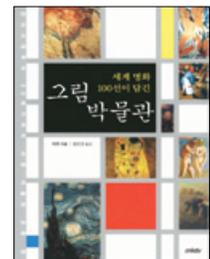
“우리는 각 문화권의 특징이 드러난 작품을 감상하며 휴머니티를 상징하는 기호를 해독함으로써 비로소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 할 수 있다.”(9쪽)



이성의 눈으로 영화와 마주하다
수임
2015



서양미술사의 재발견
다니엘 아라스
2008



(세계 명화 100선이 담긴) 그림 박물관
이러
2007

명작 뒤에 숨겨진 사랑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KBS 제2라디오 해피FM 프로그램 <그곳에 사랑이 있었네>에서 방송한 사연을 재정리하여 펴낸 작품이다. 15명의 세계적 음악가와 화가, 문학가들의 명작과 그에 얽힌 사랑이야기를 담았다. 책을 통해서 모든 작품에는 자신 앞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역경을 극복하는 그들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의 반전의 빛을 엿볼 수 있다. 중년 남성 바흐의 사랑이 묻어나는 선율, 최선보다는 차선을 사랑해야 했던 모차르트, 어머니와의 사랑과 아픈 추억을 간직한 다빈치, 간호사 아그네스와의 첫사랑을 이루지 못한 헤밍웨이 등 이들의 숨겨진 사랑과 애절했던 운명이 명작을 탄생시켰다. 예술가들의 최고의 감동과 승리의 기록을 만날 수 있는 소설 같은 인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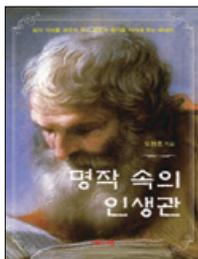
저자 소개

이동연 창조적 해체시대에 적합한 역사와 리더십, 심리학, 고전문학과 현대경영학 등을 융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저서를 내놓고 있다. 주요저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자』, 『명작에게 사랑을 묻다』, 『연예낭독살롱』, 『조선 왕조실록 - 리더의 품격』 등이 있다.



이동연 지음
평단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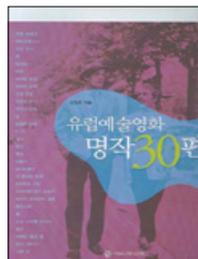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명작 속의 인생관
도한호
2014



명작, 역사를 만나다
우정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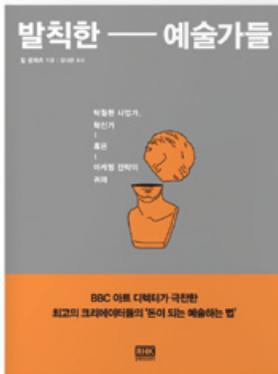


유럽예술영화 명작 30편
신강호
2006

책 속 한 문장

“내가 힘겨울 때 유일한 안식처는 당신뿐입니다.”(408쪽)

발칙한 예술가들



월 고퍼츠 지음
강나은 옮김 | RHK(알에이치코리아)
2016

사서의 추천 글

창조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획일화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온 현대인들은 창의적 능력을 요구받을 때마다 어려움을 표현한다. 이들은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 예술가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저자는 누구나 예술가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 책은 BBC 아트디렉터이자 미술 전문 기자인 월 고퍼츠가 30년 동안 품어온 질문인 '우리 안에 숨은 창조성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예술가들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잠재되어 있는 창조성을 이끌어내는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다.

최고의 예술가는 좋은 사업가다

'은행가들은 식사를 하며 예술을 논하고, 예술가들은 식사를 하며 돈을 논한다.'

아일랜드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이다. 우리는 흔히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술가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성공한 모든 예술가들은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낭만적인 이미지로 느껴지는 보헤미안 예술가 중 아마 가장 칭송받는 화가는 빈센트 반 고흐일 것이다. 그 역시 사업가적 태도가 충분했으며 미술 활동의 상업적 측면을 잘 이해하는 사업가였다. 그는 알려진 이야기처럼 지독한 가난에 시달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미술상인 남동생 테오와 협력 관계를 맺은 벤처 사업가였다.'

예술가가 사업가라는 말은 모순된 말이 아니다. 창작활동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가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케팅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지녀야하고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저자는 미래를 전망하며 행동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야심차게 스스로 경쟁을 찾는 것이 예술가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모방과 창조의 경계 속에서 차이를 만든다

20세기 최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피카소도 창조로 가기 위한 모방의 과정을 거쳤다. 그는 반 고흐의 표현주의를, 틀루즈 로트레크의 주체를, 드가의 대범한 윤곽 표현을 훔쳐 자신의 작품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모방에서 나아가 개인의 기질과 본능이라는 필터를 거쳐 하나의 창조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었다.

‘모방과 훔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모방하는 것은 기술이 필요하지만 상상력은 필요하지 않다. 창조성도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모방은 기계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훔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훔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무언가를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건 훨씬 큰 일이다. 가져간 그것이 나의 책임이 되니 말이다. 그것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책에서는 멈추어 생각하는 예술가, 융감한 예술가 등 발칙한 예술가들이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책의 뒷부분에는 소개된 예술가의 작품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자신 안의 창조성을 표현할 통로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 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혁신’, ‘스타트업’ 등 과제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윌 고펜츠가 제시하는 해법을 따라 내재된 창조성의 날개를 펼쳐보기를 권해본다.

저자 소개

윌 고펜츠(Will Gompertz) 현대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과 역량을 인정받아 BBC 아트 디렉터로 발탁된 미술 전문 기자. 《크리에이티비티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50인 중 한 사람이다. 저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발칙한 현대미술사』가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아이디어 기획의 정석
강석태
2016



발칙한 현대미술사
윌 고펜츠
2014



스마트한 생각들
롤프 도벨리
2012

위작의 기술



노아 차니 지음
오숙은 옮김 | 학고재 | 2017

사서의 추천 글

‘진짜 같은 가짜’와 ‘가짜 같은 진짜’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난경에 빠진다. 이 오랜 난제는 진위 여부의 상당 부분을 전문가의 감정에 의지해야 하는 미술품의 역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위작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고도 복잡적이다. 누군가는 걸작을 흉내 낼만한 기교와 실력을 과시하고자, 또는 자기 작품을 퇴짜 놓은 미술계에 복수하기 위해, 때로는 명성, 돈, 권력을 욕망해서다. 저자는 위조의 동기를 여덟 개의 장으로 나누어 그 심리와 주도면밀한 속임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판단의 맹점과 통쾌한 적발 과정 등을 담아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도 고대 헬레니즘 작품을 모작하며 천재성을 싹틔웠다. 그러나 결코 모작과 위작의 경계를 흐리거나 넘어서서는 안 되며, 이를 관용으로 보아 넘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 소개

노아 차니(Noah Charney) 미술 범죄 분야의 전문가로 비영리단체 미술범죄연구협회를 설립했다. 《뉴욕타임스 매거진》, 《타임 매거진》, 《보그》, 《태틀러》 등에 글을 기고하고 BBC, ITV, CNBC,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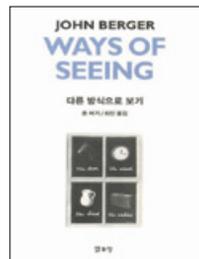
책 속 한 문장

“실제보다 더 위대한 예술인 척 행세하는 속임수와 사기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위조에도 기술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체로 위조꾼들은 위대함이라는 요소를 갖추지 못한 실패한 미술가들이다.” (131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게이트웨이 미술사
데브라 J.드위트, 멜프 M.라만, M. 캐스린 실즈
2017



다른 방식으로 보기
존 버거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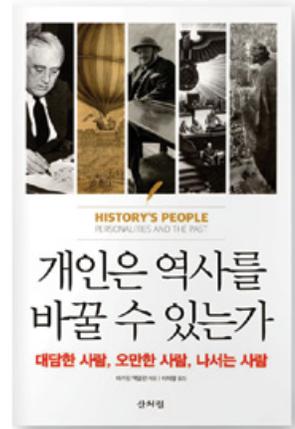
시대를 훔친 미술
이진숙
2015

개인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074

사서의 추천 글

캐나다의 저명한 역사학자 마거릿 맥밀런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역할에 주목한다. 역사에 뚜렷하게 자신의 흔적을 남긴 특별한 인물들의 개성과 자질을 관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는가를 조명한다. 생생한 증언과 기록을 참고하여 저자는 역사속의 다양한 사건과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본다. 수십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 있던 독일어권 국가들을 통합해 현재의 대국 독일의 모태를 만든 오토 폰 비스마르크, 성공과 권력에 도취되어 오만과 독선의 먹이가 되는 히틀러,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열정을 출현시킨 에이다 킹, 이례적인 역사의 기록자 바부르 황제 등 다양한 인물들이 사례로 등장한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저자의 고찰과 평가는 우리가 지닌 선과 악의 가능성을 돌아보게 한다. 또한 기록 유산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이해하고 계속 이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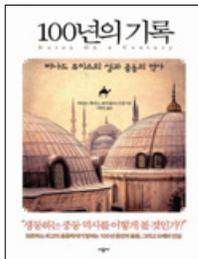


마거릿 맥밀런 지음
이재황 옮김 | 산치럼 | 2016

저자 소개

마거릿 맥밀런(Margaret MacMillan) 캐나다의 역사학자 국제 관계 전문가다. 캐나다 라이어슨 대학과 토론토 대학 교수를 거쳐 트리니티 칼리지 학장을 지냈다. 현재 옥스퍼드 대학 세계사 교수와 같은 대학 세인트앤터니 칼리지 학장, 토론토 대학 역사학 교수로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많으며 『과리 1919 : 세계를 바꾼 6개월』은 총독 저술상과 새뮤얼 존슨상 등을 받았다. 그의 『평화를 끝낸 전쟁 : 제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 『중국에 간 닉슨 : 세계를 바꾼 한 주일』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100년의 기록
버나드 루이스,
분치 엘리스 처칠
2015



유럽을 만든 사람들
현경병
2015



기적을 행하는 왕
마크 블로크
2015

책 속 한 문장

“역사는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질문에 의해 만들어지는 진행중인 작업이다.”(336쪽)

누가 이슬람을 지배하는가



류광철 지음
말글빛냄 | 2016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직업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시간 중동에 관심을 가져온 저자의 역사 지식을 엿볼 수 있다. 중동을 뒤흔든 이슬람의 출현과 십자군 전쟁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아랍 세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담았다. 또한 동서양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슬람의 탄생이다. 이슬람은 평범한 상인 무함마드와 코란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슬람의 거대한 바람은 서구문화의 과학기술진흥, 산업혁명 등 변혁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두 번째는 기독교와 이슬람 양 진영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십자군 원정이다.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유럽과 중동의 정치적 상황과 정세, 모험가들의 충동과 탐욕이 작용하여 일어난 전쟁으로 이슬람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역사서다.

저자 소개

류광철 직업외교관 출신, 외교부 중동과에 근무, 주 아제르바이잔 대사, 주 짐바브웨 대사,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 등을 지냈다. 현재는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겸 국제교류원장으로 있다. 주요저서 『아프리카의 극과 극 만델라와 무가베』, 『아프리카를 말하다』, 『외교를 생각한다』, 『코카서스의 땅 기름진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 『외교현장에서 만나는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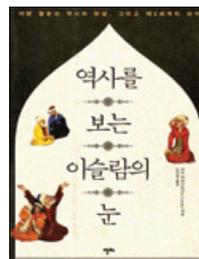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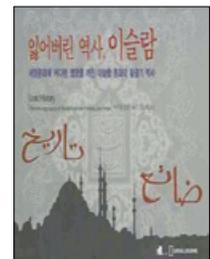
“맘룩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95쪽)



우리가 모르는 이슬람 사회
김동문
2016



역사를 보는 이슬람의 눈
노서경
2015



잃어버린 역사, 이슬람
마이클 모건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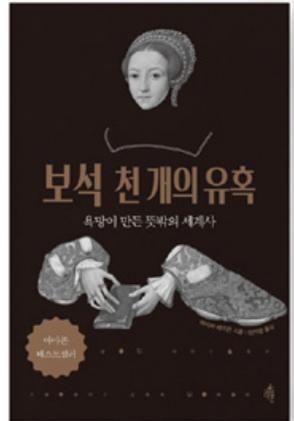
보석 천 개의 유혹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소유, 갈망과 탐욕의 책을 통해서 보석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1부 ‘원하다’에서는 네덜란드인 페터르 미나위트가 약 24달러 정도의 구슬과 단추로 맨해튼을 바꾼 사람들의 주관적인 가치의 놀라운 이야기를 다룬다. 2부 ‘취하다’에서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와 거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프랑스 왕국의 몰락이라는 비극적 결과의 이면에는 보석의 아름다움과 이를 둘러싼 질투가 숨어 있었다. 3부 ‘가지다’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과학, 경제, 사회분야에서 가져온 놀라운 발전을 다룬다. 전 세계 모든 여성의 목을 진주 목걸이로 장식하는 꿈을 가졌던 일본의 미키모토 고키치 이야기다. 미키모토는 메이지 시대 진주 양식에 성공함으로써 진주를 대중화한 인물이다. 그의 양식진주 발명은 생명공학 산업의 시작을 열며 근대 일본이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했다. 이 책은 인간의 ‘갖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과 보석의 유혹이 인류역사에 미친 흥미진진한 사실들을 들려주는 역사서다. “인간을 홀리는 모든 것에 대한 보석 같은 연구서”라는 평을 실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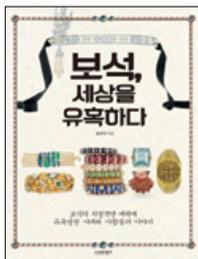
저자 소개

에이자 레이든(Aja Raden) 카고대학교에서 고대사와 물리학 전공, 로스엔젤레스의 고급 보석 회사 카고리(Tacori)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보석에 대한 학문적인 소양과 산업 경험, 과학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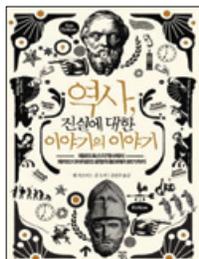


에이자 레이든 지음
이가영 옮김 | 다룬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보석, 세상을 유혹하다
윤성훈
2015



역사 진실에 대한 이야기의 이야기
앤 커소이스, 존 도커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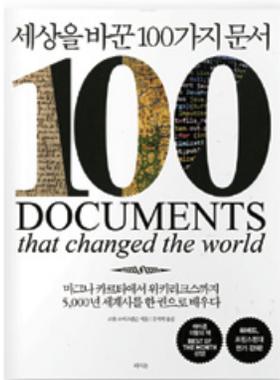


프랑스 혁명
서정복
2007

책 속 한 문장

“진짜 보석은 땅속이나 실험실이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서 태어난다.”
(442쪽)

세상을 바꾼 100가지 문서



스콧 크리스텐슨 지음
김지혜 옮김 | 라이는 | 2016

사서의 추천 글

인류는 그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역사가 시작된 것은 기록이 있고 나서부터다. 인간은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온갖 기록으로 남겨 왔고 그 중에서도 가치 있는 것들은 오래도록 보존되었다.

이 책은 세계 역사의 방점이 된 100가지의 기록물을 선정해 소개한다. 마그나 카르타, 미국독립선언문,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현대 사회의 근간을 이룩한 족적들도 있고, 1863년의 노예해방 선언이나 공산당 선언처럼 세계사를 뒤흔든 문서들이 있는가 하면 최초의 사진, 전보, 최초의 지하철 시스템 기획 문서는 현대 문명이 탄생한 편린을 보여준다. 또한 알래스카 매입 수표나 타이타닉 호 침몰 시 오고 간 전보는 역사적 사건의 순간을 포착한 것이며, 당대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안네 프랑크와 새뮤얼 피프스의 일기는 기록의 역사적 중요성을 입증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모든 원본 문서의 풍부한 사진 자료는 보는 즐거움과 함께 문서가 작성될 당시의 생생한 현장감도 선사한다. 시대순으로 나열된 100개의 문서를 따라 가다 보면 단숨에 세계사의 맥을 짚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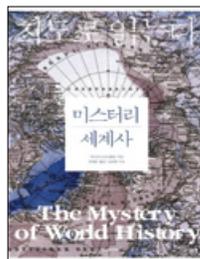
저자 소개

스콧 크리스텐슨(Scott Christianson)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며 인권활동가이다. 『세계를 바꾼 100개의 그림: 동굴 벽화에서 아이팟까지』, 『악명 높은 감옥들: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기관 안에서 바라본 시선』, 『증거가 된 몸: 법의학과 범죄』를 비롯해 다수의 논픽션 작품들로 많은 상을 수상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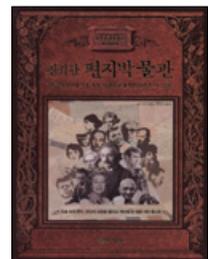
“기록되어 보존된 진본 기록들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각인되어 기억되는 역사는 없을 것이고 우리는 과거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다.”(11쪽)



미스터리 세계사
역사미스터리클럽
2016



세상을 훑친 지식 설계도,
다이어그램
스콧 크리스찬슨
2013



진귀한 편지 박물관
손 어서
2014

안나푸르나에서 밀크티를 마시다

078

사서의 추천 글

동네 뒷산도 자주 오르지 않던 여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33살에 네 팔로 향한다. 계속되는 재취업 걱정으로 구인광고를 보며 지내는 시간보다 안나푸르나를 등반하는 시간이 더 값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를 부리는 여행을 거절하며, 무섭도록 자신을 다독이는 과정의 묘사를 통해 독자에게도 묘한 성취감을 안겨준다. 무엇보다 8,000m가 넘는 거대한 안나푸르나를 넘으며 저자가 느낀 잔인한 추위, 좌절, 기쁨 등 생생한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안나푸르나 등반 중에 생긴 에피소드에 저자가 읽었던 책의 구절을 연결하여 여행기가 더욱 풍부하게 느껴지게끔 했다. 네팔을 소개하는 짧은 글들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작가는 이 책을 안나푸르나에 갈 계획이 전혀 없는 이에게 권한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독자들이 안나푸르나를 등반했다는 대리만족을 느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차가운 밀크티 한잔과 함께 안나푸르나의 파고드는 얼음 바람을 느껴보길 바란다.

저자 소개

정지영 중앙대학교에서 영화학과를 졸업했다. 영화 홍보사, 데이터입력회사, 종교단체 등 다양한 회사를 전전했다. 2014년 두 달간 네팔여행을 하며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일주 트레킹을 했다. 정유정의 『(정유정의) 히말라야 환상방황』의 유쾌함과 빌 브라이슨의 박식함이 어우러진 여행기를 써보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작가는 40대가 되면 딸아이와 함께 다시 안나푸르나 일주 트레킹을 하길 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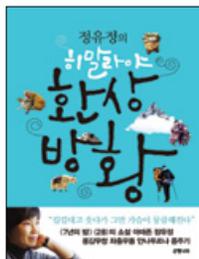


정지영 지음
더블엔 | 2017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끝림 이병률
2010



(정유정의) 히말라야 환상방황
정유정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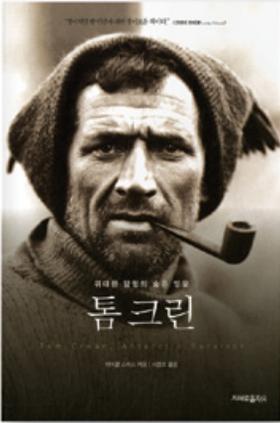


(생각으로 인도하는) 질문여행
전명운
2017

책 속 한 문장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흰 비둘기가 되어 안나푸르나를 향해 날아갔다.”(274쪽)

툼 크린



마이클 스미스 지음
서영조 옮김 | 지혜로울자유 | 2017

사서의 추천 글

아일랜드 남서부 케리 가운티의 덩글 반도의 중간쯤에 아나스카울이라는 작은 마을에 술집 ‘사우스폴 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남극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술집 현관 위에 붙어 있는 작은 청회색 명판에서부터 위대한 남극 탐험가 톰 크린 이야기가 펼쳐진다. 톰 크린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작가는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온 탐험가 톰 크린의 위대한 도전정신과 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톰 크린과 함께 떠나는 남극 미지 세계는 전율과 흥미로움의 연속이다. 빙하에 간혀버린 디스커버리 호,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스콧 탐험대, 새클턴의 대담한 남극 횡단, 인듀어런스 호와 악명 높은 웨들 해 빙하에서의 운명적 극한 상황에서 보여준 톰 크린의 지혜와 강인함은 감동을 안겨준다. 한 인간의 남극점 정복을 향한 도전 정신과 헌신, 숨겨져 있던 영웅적 행동과 만나게 해준다.

저자 소개

마이클 스미스(Michael Smith) 영국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극지방 탐험의 권위자로 유명, TV와 라디오 출연 극지방 탐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며, 신문과 잡지에 극지방 탐험의 역사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남극의 전사』, 『툼 크린의 삶』 등이 있다.

책 속 한 문장

“이제 우리는 예전만큼 기력이 없다. 그렇지만 계속 전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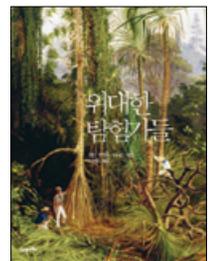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세상 끝 최악의 탐험 그리고 최고의 기록
로버트 팔콘 스콧
2017



남극을 열다(아시아 최초의 남극 탐험가, 시라세 노부)
김예동
2015



위대한 탐험가들
로빈 한부리-테니스
2010

파리의 열두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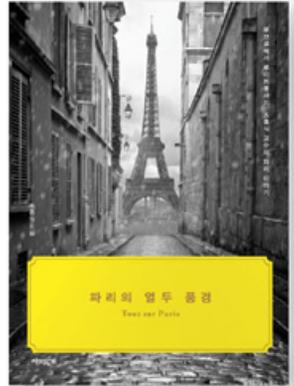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예술과 낭만의 파리는 잘 알려져 있다. 고등학교부터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파리에서 유학한 저자 조홍식 교수는 책에서 예술·낭만뿐만 아니라 명품·혁명·이성·과학·자본·미식·운동·연대·세계·기억의 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 혁명 이념으로 저자는 형제애를 박애의 더 정확한 의미로 보았다. 실제 형제가 아니더라도 마치 형제인 것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파리는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소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 연대의 도시라고 하였다.

지폐 제도를 처음 대중적으로 사용한 곳이 프랑스이며, 세계에서 최초로 백화점이 생기고, 현대식 레스토랑이 처음 생겨난 곳도 파리다. 저자와 함께하는 파리 여행을 통해 이 도시의 매력과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길 바란다.

저자 소개

조홍식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 가봉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프랑스 루이그랑 고등학교와 파리정치대학에서 수학하면서 구대륙을 두루 체험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정치경제와 유럽경제를 가르치며, 《경향신문》,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의 칼럼니스트로 대중적 글쓰기를 해왔다. 지은 책으로 『나의 사랑 나의 아프리카』, 『똑같은 것은 싫다』, 『유럽통합과 '민족'의 미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세상을 향한 눈』, 『케인즈는 왜 프로이트를 숭배했을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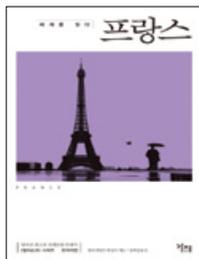


조홍식 지음
책과함께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봉주르 프랑스
엄홍식
2015



프랑스
샬리 애덤슨 테일러
2015



파리, 에스파스
김면
2014

책 속 한 문장

“파리는 프랑스인이 2000년 동안 가꾸어온 집이자 정원이고, 가구이자 도서관이며, 문화이자 정신이다.”(350쪽)

서평전문가 추천도서

20선

서평가 김정연

개성 넘치는 서평으로 출판계에서 '차세대 서평가'로 꼽혀 왔다. 온라인 서점 MD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문학과지성사 편집동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설리스트 멤버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난폭한 독서』, 『서서비행』, 『실패를 모르는 멋진 문장들』 등이 있다.

북 칼럼니스트 윤미화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블로거 '파란여우'로 활동. 각 분야의 책을 섭렵하여 작성한 날카로운 서평으로 정평이 나 있다. <경향신문>, <전원생활> 등 여러 잡지에 서평을 기고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교육연수원과 지방 도서관에서 쉬우면서도 원칙이 있는 서평 쓰기 이론을 강의한다. 저서로는 『간간한 독서본능』, 『독과 도』 등이 있다.

북 칼럼니스트 김성희

1983년 기자생활을 시작하여 여러 신문사에서 경력을 쌓았고, <중앙일보>로 돌아가 문화부 출판 담당 기자, 대중문화 팀장을 지낸 뒤 미디어기획실 라이팅에 디터팀 부장을 지냈다. 27년간의 기자 생활을 마친 뒤 2010년부터는 북 칼럼니스트, 출판기획위원,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 겸임교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저서로는 『맛있는 책읽기』, 『취재수첩보다 생생한 신문기사 쓰기』 등이 있다.

칼럼니스트 한수희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잡지사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지금은 이웃을 위해 빵을 굽고 커피도 내리며 매일 조금씩 글을 쓴다. 짬짬이 학생들에게 영화 만들기를 가르치고, 잡지 <어라운드>에서 4년째 책과 영화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울할 때 반짝 리스트』, 『온전히 나답게』 등이 있다.

금정연 추천도서

다시, 피아노



앨런 러스브리저 지음
이석호 옮김 | Phono(포노) | 2016

추천 글

원일곱 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앨런 러스브리저는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를 연주하기로 마음먹는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도 두려워한다는 무시무시한 곡이다. 앨런의 피아노 경력은 어린 시절 몇 년과 사십대 후반부터 취미 삼아 받아온 레슨이 전부. 하지만 여름 휴가 기간에 뭔가에 홀린 듯 <발라드> 악보를 펼친 그는 더듬더듬 건반을 더듬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매일 피아노를 연습하자! 1년 후에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자!

문제는 그가 영국 《가디언》지의 편집국장이었다는 사실. 설상가상, 그 해는 《가디언》 역사상 가장 바쁜 해였다. 정신없이 터지는 특종과 대형스캔들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 속에서도 그는 짬을 내서 피아노 앞에 앉는다. 매일 20분 동안 쇼팽을 연습한다. 『다시, 피아노』는 폭풍 같았던 그 1년(정확히는 16개월) 동안의 기록이다. 긴 여정의 끝에서 앨런은 우리에게 말한다. “시간이 없다고? 너무 늦었다고? 다시, 피아노다.”

저자 소개

앨런 러스브리저(Alan Rusbridger) 1979년 《가디언》에 입사해 1995년 편집국장 자리에 올랐다. 위키리크스 외교 문건 보도, 세계적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소유의 《뉴스 오브 더 월드》 폐간을 이끌어낸 진화 해킹 스캔들,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국가안보국 도감청 폭로 등 세계적인 특종을 터뜨리는 틈틈이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습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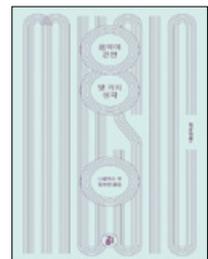
“음악을 하면 친구가 생길 거라시면서 피아노 연습을 강요하신, 돌아가신 어머니 바버라 러스브리저께 바칩니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5쪽)



음악에서 무엇을 들어 낼 것인가
에런 코플랜드
2016



음악의 기쁨
롤랑 마뉴엘
2014



음악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니콜라스 루
2016

김정연 추천도서

보이는 것과의 대화

추천 글

752쪽에 달하는 르네 위그의 『보이는 것과의 대화』를 몇 마디 말로 요약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이런 설명은 어떤가. 저명한 미술사가가 동서고금을 아우르며 미술, 특히 회화의 역사와 본질을 탐구하는 책이다. 혹은, 이미지가 텍스트를 압도해버린 시대에 이미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책이다. 음, 물론 그런 책이 맞지만, 반드시 그런 책만은 아니다. 난해한 현대미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술’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각각의 시대를 만들어왔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고 하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나마도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러니 나는 그냥 이렇게 말해야겠다. 휴가가 시작되면 편한 자세로 앉아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계속해서 읽고 싶은 책이라고. 고백하자면 나는 아직 이 책을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아직 나의 휴가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 소개

르네 위그(René Huyghe) 프랑스의 미술사학자이자 미술비평가. 소르본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루브르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를 지냈다. 그 후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로 취임하여 조형예술심리학 강좌를 담당했다. 1960년,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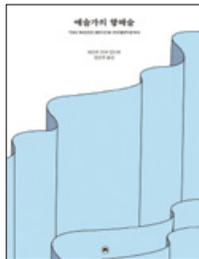


르네 위그 지음
곽광수 옮김 | 열화당 | 2017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북해에서의 항해
로절린드 크라우스
2017



예술가의 항해술
화이트 리비 인터뷰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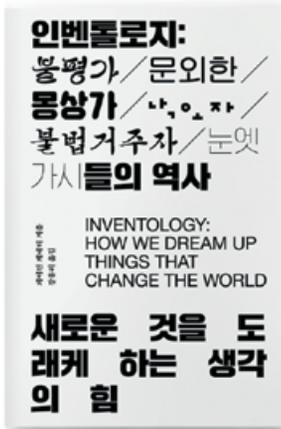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
윤원화
2016

책 속 한 문장

“세계와 그 외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화가는 세계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가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써 그는 세계의 답변을 해석하고, 때로는 심지어 그 답변을 세계에 암시해 주기까지 한다. 이렇듯 회화를 통해 인간은 보이는 것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13쪽)

인벤톨로지



페이건 케네디 지음
강유리 옮김 | 클레마지크 | 2016

추천 글

에디슨은 천재는 99퍼센트의 노력과 1퍼센트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우리는 보통 99퍼센트의 노력을 이야기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1퍼센트의 영감이다. 99퍼센트가 충족되어도 1퍼센트가 모자라면 안 된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화룡점정. 그렇다면 1퍼센트의 영감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바로 페이건 케네디가 탐구하는 지점이다.

물론 영감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뮤즈가 선물해주는 것이 아니다. 케네디는 그가 '발명학inventology'이라고 이름붙인 방법론을 통해 발명의 5대 원칙(문제 찾기, 발견, 예언, 연결, 역량 강화)을 세우고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사고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장애물을 뛰어넘어 해결에 이르게 만드는 행동방식은 또 무엇인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귀중한 원천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고, 3D 프린터를 통해 간단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다. 어느 때보다 '새로운 것을 도래케 하는 생각의 힘'이 중요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통찰과 영감을 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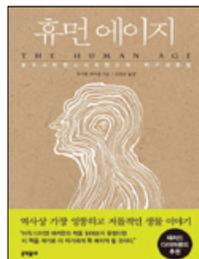
저자 소개

페이건 케네디(Pagan Kennedy) 《뉴욕타임스매거진》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누가 만들었을까(Who Made That?)”라는 디자인과 혁신에 관한 칼럼을 연재했다. 반스앤노블 디스커버 어워드를 수상한 데뷔 소설 『스핀스터 Spinsters』, 《뉴욕타임스》가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한 논픽션 『블랙 리빙스턴(Black Livingstone)』을 비롯해 열한 권의 책을 출간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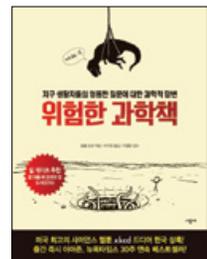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은, 만약 휴대전화가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그 기반 기술을 위한 부품들이 상당한 공간을 차지할 터라 차량 내에 구출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160쪽)



휴먼 에이지
다이앤 애커먼
2017



인체재활용
메리 로치
2010



위험한 과학책
랜들 머로
2015

금정연 추천도서

인포메이션

추천 글

배가 터지게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것처럼, 이제 '정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 바야흐로 정보가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시대다. '감수의 글'을 쓴 김상욱 교수의 말처럼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개인이 열람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된 적도 없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세상이 긴밀하게 얽힌 적도 없었다... 우리는 정보의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정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보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가 흘러넘친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분류해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임스 글릭이 『인포메이션』을 통해 우리 대신 그 일을 해냈으니까. 글릭은 '정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 656쪽이라는 페이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정도면 거의 백과사전을 두 문장으로 줄인 격이다. 물론 이 책을 읽고 나면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지겠지만...

저자 소개

제임스 글릭(James Gleick) 1954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문학과 언어학을 공부했다. 『카오스』로 '나비 효과'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베스트셀러 교양과학 작가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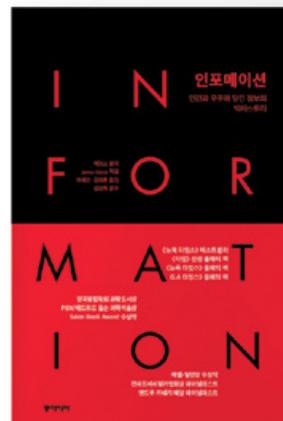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
2017



나의 어머니는 컴퓨터였다
N. 캐서린 헤일스
2016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빌렘 플루서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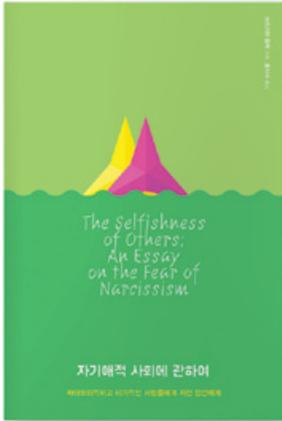


제임스 글릭 지음
박래선, 김태훈 옮김 | 동아아시아
2017

책 속 한 문장

“우리는 유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복도를 걸으면서 서가를 뒤지거나 재배치하고, 불협화음과 허튼소리가 모인 곳 한가운데서 의미 있는 행동을 찾고, 과거와 미래의 역사를 읽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집하며, 종종 거울을 힐끗 보면서, 우리는 정보의 피조물을 알아볼 것이다.” (579쪽)

자기애적 사회에 관하여



크리스틴 돔벡 지음
홍지수 옮김 | 사이행성 | 2017

추천 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식당에서, 야구장에서. 그들은 곳곳에서 나타나 우리의 하루를 망친다. 하루만 망치면 다행이지. 가끔 그들은 우리 인생의 몇 년을 망치기도 하고(이기적인 직장 상사와 동료) 운이 나쁘면 우리의 평생을 망치기도 한다(이기적인 부모나 배우자). 세상에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지? 말세야, 말세! 누구나 가끔은(실은 자주) 해봤을 생각. 하지만 자신 또한 다른 이들의 눈에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일단 나는 아니다)?

크리스틴 돔벡은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에게 경기를 일으키는 ‘나르시포비아’가 실은 동전의 양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심리학에 대한 오해와 좌절된 욕망, 타인 의존적인 성향과 상업적인 대중매체가 ‘그들’을 ‘악’으로, ‘우리’는 ‘선’으로 분류하는 분열증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돔벡은 어느 하나 단정하지 않는 치밀한 글쓰기를 통해 우리의 문화적 편견들을 점검하게 한다. 한 마디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말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틴 돔벡(Kristin Dombek) 에세이스트, 문화 비평가, 심리 상담가. 브루클린의 문학 잡지 《n+1》 매거진에서 심리 상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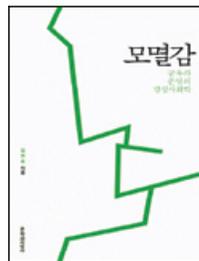
책 속 한 문장

“당신이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면, 즉 당신의 실존이 욕망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당신의 실존이 욕망에 의해 파괴될 세상의 종말에 다다르면, 나르시시즘 각본이 당신을 구하려 온다. 고통을 덜어 줄 처방을 들고.”(1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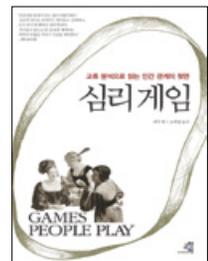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오찬호
2016



모멸감
김찬호
2014



심리 게임
에릭 번
2009

김성희 추천도서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책 읽기

086

추천 글

소설 주인공 두 명과 실존 인물 두 명의 독서 편력을 통해 해방 직후부터 유신체제까지 한국 현대사를 엮어냈다. 덕분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새롭게 조명하는 등 독서 에세이로도 읽히고 숨가쁘게 달려온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사회사로도 읽힌다.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가 민족적 가난을 낳은 ‘적폐’로 몰린 5·16 군사쿠데타 이후 풍경이 신기하다가도, ‘광주 대단지사건’, ‘무등산 타잔사건’ 등을 접하면서 충격을 느끼는 이도 있었다. 1970년을 전후해서 월급의 4배가 넘는 ‘세계문학전집’이 보통사람들에게 폄나는 문화와 교양의 상징이며 자식을 위한 투자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든가 배움을 통해 인간답게 살고 싶어 ‘대학생 친구’를 간절히 원했던 노동자 전태일의 외로운 싸움을 보면서 ‘책’ 또는 독서행위가 이렇게 오롯이 역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간결하고 명징한 문장도 이 책의 미덕.

저자 소개

박숙자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읽은 책은 『전태일 평전』이다. 친구들과 김남주 시인의 시를 노래로 부르는 것이 즐거웠고, 도서관에 혼자 있을 때는 최승자 시인의 시집을 만지작거렸다. 못다 이룬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김광석의 ‘나의 노래는 애달픈 양식’이라는 구절을 흥얼흥얼하며 소설을 읽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다. 2012년 『속물교양의 탄생』을 펴냈고, 현재는 경기대학교에서 동서양 명작을 가르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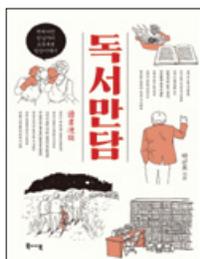


박숙자 지음
푸른역사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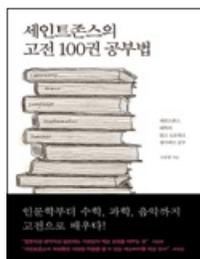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다른 생각의 탄생
장동석
2017



독서만담
박균호
2017



세인트존스의 고전 100권 공부법
조한별
2016

책 속 한 문장

“‘들립니까 들립니까 들립니까’라고 외쳤으나 들리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이 있었고 근로감독관에게 말했지만 들리지 않은 것처럼 외면 되었다.” (234쪽)

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이기호 지음
마음산책 | 2017

추천 글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장편 소설이 부담스러운 이라면 농치기 가까운 책이다. ‘가족소설’이란 분류에서 보듯 삼 남매를 둔 작가가 가족 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와 소감을 장편(掌篇) 소설로 엮어냈다. 막내 딸 임신을 알게 된 사연에서 시작해 바람 잘 날 없는 가족의 웃픈 사연이 이어져 몽클하기도 하고 슬며시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큰 아들이 한글을 배우더니만 책에서 읽었다며 아빠에게 묻는다. “아빠, 세 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는 줄 알아?” 아빠가 ‘제법이네’라고 기특해 하며 “글쎄?”라고 궁금해 하자 아이가 씩씩하게 하는 말. “그건 말이지…… 여름까지 간다.” 지은이인 아빠는 속으로 생각한다. ‘그래, 여름까지 가자. 그러면 그만큼 클 거야’라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최인호의 소설 《가족》 시리즈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선물이겠다.

저자 소개

이기호 1972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다. 1999년 <현대문학> 신인추천 공모에 단편 「버니」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김 박사는 누구인가?』, 『갈광질광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최순덕 성령충만기』, 짧은 소설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장편소설 『차남들의 세계사』, 『사과는 잘해요』 등을 펴냈다. 이효석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김승옥문학상 등을 받았다. 2017년 현재 광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책 속 한 문장

“아내와 세 아이들이 침대 바로 아래 좁은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나도 침대 위로 오르지 못하고 그들 틈에 살짝 모로 누웠다. 썩썩거리는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리고 아내의 콧김이 내 뺨에 와닿았다… 누운 자리는 좁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있었다.”(68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이기호
2016



사랑하는, 너도 사랑하네
성석제
2017



아마겟돈
프레드릭 브라운
2016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우연학 입문

추천 글

유쾌하면서도 알찬 과학교양서다. 지은이는 독일에서 과학유머 공연으로 이름을 떨친 물리학을 전공자. ‘코이의 법칙’이란 게 있다. 코이는 비단 잉어의 일종인데 어렸을 때 작은 어항에서 자라면 10센티미터 내외로 자라지만 넓은 강에서 키우면 1미터가 넘게도 자라다고 한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결정을 미룬다면 딱 거기까지만 성장한다는 산 증거란다. 그런가 하면 “헨리 포드가 이동수단에 관해 소비자조사를 했다면 (자동차가 아니라) ‘더 빠른 말’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열정과 패기, 창의력의 소중함을 일깨우기도 한다. “인간은 자녀들 뒤를 오랫동안 따라다니기 위해 직립 보행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식의 풍자도 이 책의 매력. 그러나 가볍지만은 않다. 행복은 뇌에서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빛어내는 일종의 화학작용이므로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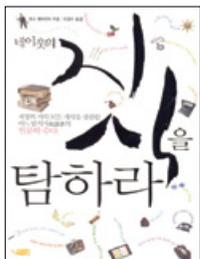
저자 소개

빈스 에버트(Vince Ebert) 1968년 독일 바이베른의 오펜발트에서 태어났다.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한 뒤 광고회사 등에서 경영 컨설턴트, 마케팅 전략 연구가로 활동했다. 1998년부터 카바레티스트로 무대에 서기 시작해 2004년 과학적 사실과 현실문제의 연관관계를 유머의 법칙으로 재해석한 단독 공연인 ‘물리학은 책시하다’를 통해 과학 카바레티스트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 “독일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리학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과학 유머의 지존으로 등극했다. 지금까지 집필한 네 권의 책들은 모두 5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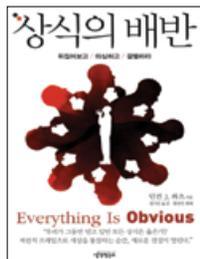


빈스 에버트 지음
장윤경 옮김 | 지식너머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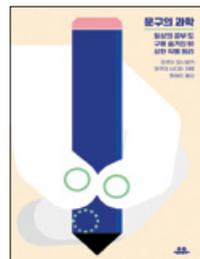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네 이웃의 지식을 탐하라
빈스 에버트
2009



상식의 배반
던컨 J. 와츠
2011



문구의 과학
와쿠이 요시유키,
와쿠이 사다미
2017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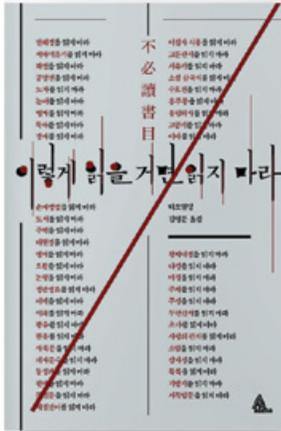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9쪽)

김성희 추천도서

이렇게 읽을 거면 읽지 마라

추천 글

비판적 고전 읽기를 위한 에세이다. 《논어》, 《맹자》는 물론 이제는 경영 고전의 위치까지 오른 《손자병법》, 동양에서 가장 많이 읽혔다는 《삼국지》 등 40여 종의 동양 고전을 도마 위에 올렸다. 중국 고대의 신화, 지리, 동식물 등을 백과사전식으로 다룬 《산해경》이 첫 머리에 나온다. 이 책을 근거로 아메리카 대륙을 중국인이 발견했다든가 유대인이 중국의 한 종족이러든가 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이럴 바에야 안 읽는 것이 낫단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역사학 논쟁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제왕학 필독서로 꼽히는 《정관정요》 또한 조정의 풍경을 왕, 신하, 백성 세 층으로 단순화해서 실제 정치와 큰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전을 대하는 색다른 시각도 흥미롭지만 《삼자경》, 《서목담문》 등 좀처럼 듣기 힘든 고전도 다뤘기에 독서 가이드 구실도 톡톡히 하지 싶다.



다오얼딩 지음

김영문 | Alma(알마 출판사) | 2017

저자 소개

다오얼딩(刀爾登) 1964년 선양(沈陽)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추샤오강(邱小剛)이다. 1986년 베이징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허베이성(河北省) 사회과학원에서 10년간 재직했다. 그 후 신문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다음 프리랜서로 다양한 매체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칼럼니스트이며 죽림칠현처럼 기가 있고 한적한 삶을 산다 해서 '당대대은(當代大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읽을 거면 읽지 마라(不必讀書目)』는 《랴오왕둥팡 주간(瞭望東方週刊)》 독서 전문 코너에 연재한 글을 모은 책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손자병법》을 읽을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는 이미 남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갖가지 지혜를 갖고 있다. 또 어떻게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격언을 참고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한 권의 책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에 쓰여 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은 바로 나의 행복이다.'”(73쪽)



고전, 어떻게 읽을까
김경집
2016



종이책 읽기를 권함
김무곤
2011



뒤적뒤적 끼적끼적
김탁환
2008

김성희 추천도서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추천 글

충청도 농투사니들의 사연을 엮었으니 온전히 소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에세이라 하기도 뭐하다. 수덕사 관광을 가기로 했는데 일행 중 ‘성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기차를 놓쳐 소동이 벌어진 광경. “빠스 불렀으면 발췌 도착 허구두 남았유. 일찍 인날(일어날) 자신이 읊으른 돈이래두 총무헌티 땀기 든가!”라고 닦아세운다. “비빔밥 맞춰논 거 다 섞어 터지게 생겼네”란 불평이 터지자 문제의 ‘성님’이 하는 말. “아, 수덕사가 워디 가.” 이처럼 배를 안고 쓰러질 웃음만 있는 게 아니다. “일자리가 읊다니께 그러른 밖으루 겨 나가라 현다는디 그게 창조여?” 하는 식의 일리 있는 불통가지도 읽는 맛을 더해 책을 한 번 들면 놓지 못할 정도다.

이문구의 소설을 좋아했던 이라면 옆에 아홉은 지은이의 전작(前作)을 찾아 읽을 거라 장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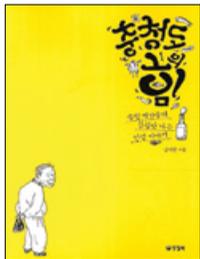
저자 소개

남덕현 1966년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등학교와 서강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2013년에 충청도 노인들의 인생 이야기 『충청도의 힘』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뒤이어 산문집 『슬픔을 권함』과 시집 『유랑』을 발표했고, 2013~2014년에는 《중앙일보》에 칼럼 ‘남덕현의 귀촌일기’를 연재했다.



남덕현 지음
빨간소금 | 2017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충청도의 힘
남덕현
2013



여자전
김서령
2017



우리말 절대지식
김승웅
2016

책 속 한 문장

“그때나 시방이나 시상이 크게 달버진 게 읊다는구먼. 시방두 시상이 왔다배기루 부자 아니른 갔다배기루 가난헌 사람들만 수두룩 뻑뻑이지 중간은 읊다는겨. 땀깡 시상이 작전 실패라는데 나는 참 말루 알다가두 모르졌어.” (61쪽)

눈 이야기



조르주 바타유 지음
비채 | 2017

추천 글

에로티즘 거장 조르주 바타유가 쓴 『눈 이야기』는 격렬한 성적 집착을 그린 포르노그래피다. 상대방 몸에 오줌을 누면서 마무리하는 기묘한 성애가 반복되다가 황소와 사체가 등장한다. 마침내 성욕과 엄숙한 도덕관념이 동반 출연했다. 작가는 육체적 쾌락을 죄악시한 종교를 죽임으로써 정념을 손들어준다. 절정과 죽음은 커플 아니던가. 상상이 들어맞는 순간, 아아, 소설 잘못 봤어!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작가 체험을 반영한 이 소설은 너무나 적나라해서 성적 자극은 커녕 별의별 생각만 든다. 왜곡된 시선만 없다면 장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게 성애이다. 육체적 쾌락, 감정 표현, 합의된 음란함은 개인 취향이므로 비록 오줌과 피 때문에 기분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이 책을 던져 버릴 수 없다. 지지부진한 인생에서 섯길을 흘깃할 수도 있지.

저자 소개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 1897년 프랑스 비용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맹인에 매독환자였고 어머니는 우울증 환자였다. 스무 살 때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곧 그만두고 파리 국립고문서학교에 입학한다. 런던을 여행하다가 앙리 베르그송이 쓴 『웃음』을 읽고 종교보다 육체가 더 본질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종교를 버린다. 1962년에 죽을 때까지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다. 에로티즘 소설, 니체의 무신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헤겔의 종교철학 등을 섭렵하고 잡지를 펴냈다.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장 보드리야르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는다. 주요 저서로 『하늘의 푸른 빛』, 『에로티즘』, 『니체에 관하여』,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하늘의 푸른 빛
조르주 바타유
2017



에로티즘
조르주 바타유
2009



불가능
조르주 바타유
2014

책 속 한 문장

“머지않아 우리는 자전거를 찾아냈고, 알몸에 신발만 신은 채 자전거에 올라탄, 자극적이면서도 더러운 구경거리를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야릇하게도 서로의 존재에 흡족해하면서 웃지도 않고 말도 없이 재빠르게 페달을 밟았는데, 음란함과 무기력과 부조리 속에 똑같이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둘은 비슷했다.”(49쪽)

유미화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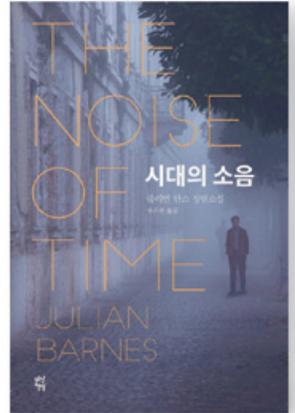
시대의 소음

추천 글

사람이 자기 의지로 살 수 없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도저히 어찌 해 볼 수 없어서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극대화된 불안감은 공포이다. 맨부커상 수상 작가 반열에 오른 줄리언 반스는 『시대의 소음』에서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루하루를 마치는 것이었다.”고 한다. 스탈린 치하에서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견딘 공포는 하루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게 가장 중요했다. 쇼스타코비치는 잠옷 바람에 끌려가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주지 않고자 매일 저녁 여행 가방을 챙기고 외출복을 입은 채 잤다. 엄혹한 시대에 거의 유일한 마지막 존엄이었다. 예술, 용기, 처세, 자긍심, 명예, 죽음과 같은 뜨거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는 작가는 우리 인생의 그 많은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마음의 뼈를 흔드는 문장에 책장을 덮으며 목상을 한다.

저자 소개

줄리언 반스(Julian Barnes) 1946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현대 언어학을 공부했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 증보판을 편찬했다. 문학 잡지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TV 평론가로도 활동했다. 1980년 첫 장편소설 『메트로랜드』로 서머싯품상을 받으며 데뷔부터 주목 받았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맨부커상을, 『플로베르의 앵무새』로 프랑스 메디치 상을 비롯해 미국과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문학상을 석권했다. 아내를 잃고 쓴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의 장편소설과 소설집 다수가 있다.



줄리언 반스 지음
다산책방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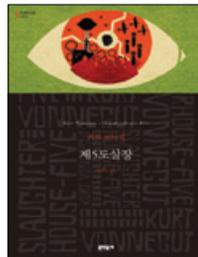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처절한 정원
미셸 갱
2005



동급생
프레드 울만
2017



제5도살장
커트 보니컷
2017

책 속 한 문장

“그러니까 역사가 도달한 곳이 바로 여기로군. 그 모든 분투와 이상주의와 희망과 진보와 과학과 예술과 양심, 그 모든 것이 결국 담배와 속옷, 치약이 든 작은 가방을 발치에 놓고 승강기 옆에 선 한 남자와 함께 이런 식으로 끝난다니. 거기 서서 잡혀가기만 기다리면서.”(64쪽)

식물도시 에도의 탄생



이나가키 히데히로 지음
글항아리 | 2017

추천 글

배반과 살인이 난무하던 막부에서 원예를 가꿨다고 하니 조합이 안 맞는 구색이지만 『식물도시 에도의 탄생』을 보면 말이 달라진다. 무사들은 지배 명분으로, 전략 차원에서, 생존수단으로, 때로는 서정성을 이유로 식물을 키우고 이용했다. 화려한 벚꽃놀이 축제를 좋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약초로 직접 약을 조제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너진 적 없는 구마모토 성의 비밀, 관상용으로 전해진 옥수수 꽃을 좋아한 오다 노부나가 등 에도 뒷담화는 ‘폭력과 미학’으로 정리된다. 벚꽃 아래에서 옥쇄를 맹세하고 전투를 치룬 후 차를 마셨다. 쭉을 발효시켜 화약을 만들고 장뇌와 송진을 섞어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횃불을 만든 닌자는 칼을 찬 과학자였던가. 에도시대 무사들은 주군을 호위한 칼잡이이자 농부였으며 정원사였고 화학자이자 수입업자였다. 에도가 식물을 애정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킁킁한 바다처럼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이나가키 히데히로(稲垣滎洋) 1968년 일본 시즈오카 시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잡초 생태학을 전공했으며 시즈오카 대학원 교수로 재직한다. 쓴 책으로 『풀들의 전략』, 『이토록 아름다운 약자들』, 『잡초의 성공 전략』, 『나비는 왜 유채 잎에 앉을까?』 등이 있다.

책 속 한 문장

“꽃은 벚꽃, 사람은 무사’란 말이 유행했던 무사의 시대에 벚꽃은 아름답게 지지는 않았다. 질 때가 너무나도 선연한 왕벚나무의 이미지는 비참한 군국주의 시대의 와중에 ‘죽음의 미학’을 필요 이상으로 조장해버렸다.” (165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공생의 디자인
마스노 묘
2015



미야베 미유키 에도 산책
미야베 미유키
2014



하이쿠와 우키요에, 그리고 에도 시절
마쓰오 바쇼, 요사 부손, 잇사 외 지음
가츠시가 호쿠사이, 우타가와 히로시게 외 그림
2006

윤미화 추천도서

제국과 낭만

추천 글

『제국과 낭만』은 19세기 유럽 그림에 나타난 배경을 조명한 책이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식민지 쟁탈전에 합세한 영국·독일·벨기에·이탈리아를 씨줄과 날줄로 직조했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딛고 유럽 열강은 고유한 문명을 지켜 온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를 식민지 각축장으로 삼았다. 사하라에 집착한 프랑스는 루브르 박물관을 이집트 유물로 채웠다.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경쟁하듯 침공과 약탈을 자행했다. 벨기에는 황제가 직접 나서 콩고를 절단 냈다. 황제, 궁정대신, 외교관, 예술가, 군인, 황후, 백작부인 등 탐욕을 주체 못하는 사람들은 잔혹하고 비이성적인 제국주의에 가담했다. 오늘날 유럽이 누리는 풍요는 타대륙이 흘린 핏물이 서렸다. 계몽과 우애, 종교와 교류를 표방한 학살과 강탈 결과이다.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일화를 박람회강기로 펼친 저자의 해박한 입담에 밤이 이슬하도록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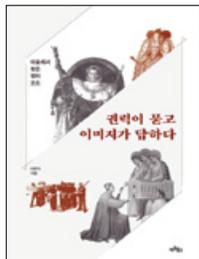
저자 소개

정진국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파리1대학원에서 미학을 공부했다. 미술 평론가와 번역가로 활동한다. 『여행 가방 속의 책』, 『사진가의 여행』, 『유럽의 괴짜 박물관』, 『포도 루트 유럽』, 『유럽 책마을에서』를 썼다. 옮긴 책으로 빅토르 타피에가 쓴 『바로크와 고전주의』, 다니엘 지라르맹이 쓴 『논쟁이 있는 사진의 역사』, 세르주 부롱베르제의 『한국전쟁통신』, 역사학자 질 미슐레 저작 『마녀』와 『바다』가 있으며, 루이 피에라르가 쓴 『이해받지 못한 사람, 마네』 등이 있다.



정진국 지음
깊은나무 | 2017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권력이 묻고 이미지가 답하다
이은기
2016



대영 박물관
루카 모자티
2007



나의 서양미술 순례
서경식
2002

책 속 한 문장

“어떤 나라든 시작할 때는 신화로 넘친다. 그러나 망할 때 그 신화는 희미해지고 그 대신 사실이 두드러진다.”(127쪽)

윤미화 추천도서

팔컨



헬렌 맥도널드 지음
경향미디어 | 2017

추천 글

매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지 못한 여자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참매를 만난 이후 여자는 매에 빠졌다. 매를 길들이다가 마침내 글을 썼다. 집, 도서관, 카페, 열차 안, 심지어 휴가지 호텔에서도 매 이야기를 썼다. 매는 예민하며 집중력이 뛰어나고, 시력이 좋고, 지상 생물 가운데 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잘난 것들 대개가 무리 짓지 않듯이 매도 고독한 사냥꾼이다. 인간은 매에게 위엄 있는 자태, 진중한 행동, 막강한 생사여탈권을 투영해 귀족과 동일시 여겼다. 가문의 문장, 취미, 국가 산업, 전쟁에서 매는 인간의 이해타산과 편리에 따라 이용됐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에조차 이용된 매는 이제 신화를 뚫고 외려 보호종이 되었다. 신에서 사냥감까지 매의 삶도 영광과 굴욕으로 지난하다. 왠달박달한 인간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무심한 매를 보고 인간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자 소개

헬렌 맥도널드(Helen Macdonald) 1970년 영국 처트 시에서 태어났다. 작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과학사 및 과학철학을 강의한다. 『메이블 이야기』와 『새일리의 물고기』로 새뮤얼 존슨 상과 코스타 올해의 책에 선정됐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야생동물의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역할 중 하나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이다.”(238쪽)



메이블 이야기
헬렌 맥도널드
2015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2011



비드 브레인
나단 에머리
2017

한수희 추천도서

다시, 연습이다

추천 글

나는 종종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책을 읽는다.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시각을 얻기 위해서다. 이 책은 음악에 관한 책, 그것도 클래식 기타에 관한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은 또 제복처럼 '연습'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재능과 창의성에 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천재들은 천재이기 이전에 지독한 연습벌레들이었다. 어쩌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자신이 원해서 독하게 연습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흥내조차 내기 힘든 타고난 재능이 아닐까.

작가 글렌 커츠는 한때 기타 영재였다. 그는 7살 때부터 무려 15년간을 기타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타를 잡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기타를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실패한 예술가 지망생인 그는 중년의 나이에 다시 기타를 꺼내들고 연습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뼈아픈 실패를 되돌아본다. 그리하여 이것은 연습의 효용성을 설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이야기가 된다. 좀 더 손을 뻗으면 잡힐 듯했던 꿈을 겁이 나서 포기했던 자들을 위한 이야기, 사랑했던 대상과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대상에게 상처받은 자들을 위한 이야기, 운명의 신에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이야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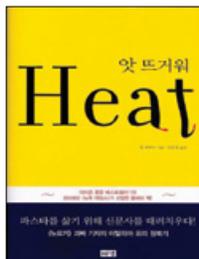
저자 소개

글렌 커츠(Glenn Kurtz) 어려서부터 독학으로 기타 코드를 익혔다. 여덟 살에 정식으로 기타 레슨을 받기 시작하여 음악 명문 뉴잉글랜드 음악원에 입학했다. 이후 음악의 도시 빈에서 연주가로서의 경력을 쌓고자 했으나 성공적인 음악가가 되기에는 재능이 부족함을 깨닫고 음악가의 길을 포기했다. 이후 대학으로 돌아가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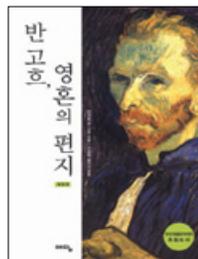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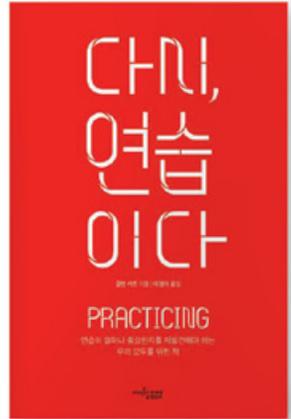
독턴
가즈오 이시구로
2010



앗 뜨거워
빌 버포드
2007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
2005



글렌 커츠 지음
이경아 옮김 | Mujintree(뮤진트리)
2017

책 속 한 문장

“아직도 표현해야 할 것들이 잔뜩 남아 있다. 연습해야 할 것들도 잔뜩 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연습을 마친다. 나는 오늘 오전 연습을 충실하게 했다. 적어도 최선을 다했다. 이제 불을 꺼 음악과 내 기타가 내일까지 편히 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아침이 찾아오면 늘 그렇듯이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350쪽)

베를린 일기



최민석 지음
민음사 | 2016

추천 글

소설가 최민석은 독일 베를린에서 90일 동안 머물게 된다. 그 생활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히 낭만적이지도, 특별하지도 않다.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이 도시에서 그는 외로움에 떨며 70년대 문인들의 문체를 빌려와 고독한 이방인의 하루하루를 기록하는데, 진지한 문체와는 달리 내용은 싱겁기 그지없다. 와이파이기가 연결되지 않는 절망감, 잘못 자른 머리 모양에 대한 한탄, 젊은 외국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대한 취중기록, 춥고 비 내리는 날씨 이야기가 전부라 해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는 시간은 즐거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싱거운 하루하루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먼 곳으로 떠난다고 해도 그런 일상은 금세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루하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추워도, 매일 비만 내려도, 머리 모양이 우스꽝스러워도, 와이파이기가 안 터져도, 집에 빛이 있어도, 별 수 없으니 어깨에 힘을 빼고 농담이라도 한 마디 던져보자. 그게 이 책이 가르쳐주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삶의 기술이다.

저자 소개

최민석 2010년 단편소설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로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2012년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으며, 쓴 책으로는 장편소설 『능력자』, 『풍의 역사』, 『쿨한 여자』, 소설집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 『미시시피 모기떼의 역습』, 산문집 『청춘, 방향,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시』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고독은 현재 진행형일 때는 처참하지만, 과거 완료형일 때는 낭만적일 수 있다.”(42쪽)



(나를 부르는) 숲
빌 브라이슨
2008



빌 브라이슨 발칙한 유럽산책
빌 브라이슨
2008



그냥 집에 있을걸
케르스틴 기어
2009

한수희 추천도서

수잔 이펙트

추천 글

40대의 덴마크 여성 수잔에게는 일종의 초능력인 ‘수잔 효과’가 있다. 어떤 상대든 그녀가 눈을 들여다보면 속마음을 모조리 털어놓는 것이다. 페터 회의 『수잔 이펙트』는 인도에서 사고를 쳐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수잔과 그녀의 사고뭉치 가족들이 죄를 사면 받는 대가로 ‘미래위원회’라는 수상한 조직의 명단을 찾아내는 모험을 그린 이야기다.

내게 페터 회의 출세작인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 언제나 책꽂이에 꽂아두고 생각날 때마다 뒤적여 보고픈 책이다. 페터 회의 스밀라라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이누이트의 혼혈 여성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어냈다. 그의 이야기는 솔직히 집중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산만하다. 그런데 그의 소설 속에는 그런 산만함이 감사할 정도로 근사한 문장들로 가득한 것이다. 나는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의 문장들에 수없이 줄을 그었고, 『수잔 이펙트』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나는 수잔을 스밀라만큼 사랑하고 동경할 수 있을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럼에도 페터 회의 멋진 여성 캐릭터를 만들고 그녀에게 독특한 개성을 불어넣을 줄 아는 몇 안 되는 남성 작가인 건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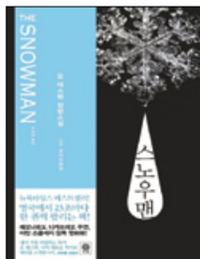
저자 소개

페터 회(Peter Hoeg) 덴마크 소설가. 발레 무용수, 배우, 등반가, 선원, 이런 독특한 전력이 그를 개성 넘치는 작가로 만든 것이 분명하다. 세 번째 책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유명해졌고, 이후 20년에 걸쳐 『경계에 선 아이들』, 『여자와 원숭이』, 『콰이어트 걸』, 『코끼리 파수꾼의 아이들』 등 단 네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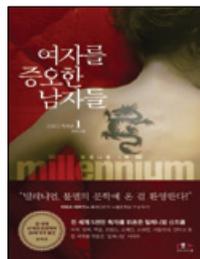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페터 회
2005



스노우맨
요네스 보
2012



(밀레니엄 1부)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스티그 라르손
2011



페터 회 지음
김진아 옮김 | 현대문학 | 2017

책 속 한 문장

“현실이란 그래서 문제인 거다. 인간은 견고한 화학적 화합물이 아니라 액체의 불안정한 혼합일 뿐이고 그 혼합액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고통인 것이다.”(39쪽)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



사노 요코 지음
전경아 옮김 | 을유문화사 | 2017

추천 글

사노 요코의 책들을 읽을 때마다 나는 솔직함보다는, 정직함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다. 솔직한 사람은 많다. 자신의 성적 취향까지도 책으로 써서 파는 세상이다.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알고 싶지 않다. 내게 솔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속옷 안까지 다 보여준다는 뜻이고, 정직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위장하거나 포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노 요코는 솔직하기보다 정직한 작가이다.

사노 요코는 사람들이 쉽게 기대기 마련인 안일한 낙관주의와 낭만주의의 꺼풀을 굳이 들춰보고야 만다. 그러나 그 끝에는 황폐한 사막 같은 시니컬함과 허무함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하는 밝음과 씩씩함이 있다. 그래서 나는 사노 요코가 좋다.

이 책은 사노 요코가 중년의 나이에 쓴 산문들을 모은 책이다. 최근 그녀의 산문집들이 무더기로 출간되어 팬인 나조차도 '아아 또 사노 요코란 말이냐' 싶었지만, 그녀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건 잊게 된다. '으음 그렇구나' 하며 시답잖은 일상을 따라가다가도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정직하고 날카로운 문장들에 냉수마찰이라도 당한 듯 깜짝 놀라 자세를 고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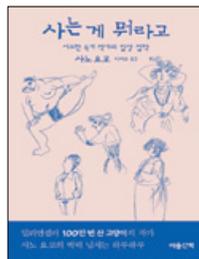
저자 소개

사노 요코(佐野洋子) 일본의 그림책 작가. 대표작으로는 『100만 번 산 고양이』, 『아저씨 우산』 등이 있다. 2010년 암으로 사망했으나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 등의 거침없고 독특한 에세이들로 한국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책 속 한 문장

“인생의 재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인생이다. 그것이 재미있어서 그만 둘 수 없다. 천 년이고 만 년이고 살고 싶다. 기분 전환 따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쪽에서 찾아오는 것이다.”(133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사는 게 뭐라고
사노 요코
2015



내 인생은 로맨틱 코미디
노라 에프룬
2007



(기타노 다케시의) 생각 노트
기타노 다케시
2009

한수희 추천도서

하루키씨를 조심하세요

추천 글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도, 우치다 타츠루도 좋아한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몸으로 생각하는 타입의 인간형이라는 것과(하루키는 러너, 타츠루는 무도가다.) 다소 뻘뻘한 데가 있는 아저씨들이라는 사실일 테다. 게다가 몰랐는데 우치다 타츠루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30년 팬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가 오로지 팬심으로 쓴 이 책은 꼭 읽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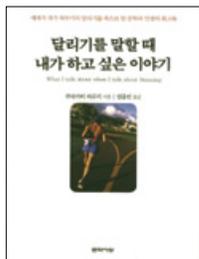
읽는 내내 책장이 넘어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즐거웠다. 우치다 타츠루에게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이유는 그가 몸으로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의 글은 머릿속에서만 떠도는 복잡하고 설익은 사유가 아닌, 실제 세상과 부딪치며 얻은 건강하고 단단한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을 공식을 들어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사과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식이라고 할까.

그는 그저 좋아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하지만 이 책은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를 정도의 세계적 작가가 된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충실한 연구서로도 읽을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디에도 기대치 않은 채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 대해 쓰는, 그리고 그 자신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키가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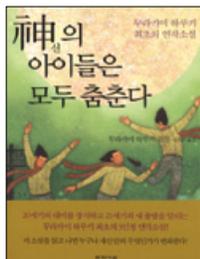
저자 소개

우치다 타츠루(内田 樹) 일본의 사상가이자 작가이다. 도쿄대 불문과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고베여학원대의 문학부 명예교수인 동시에 무도와 철학을 위한 배움터 '개풍관'을 열어 문무를 함께 단련하고 있기도 하다. 철학, 문학, 사상,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명쾌하고 신선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2016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
무라카미 하루키
2010



하루키향
우치다 타츠루
2013



우치다 타츠루 지음
김경원 옮김 | 바다출판사 | 2016

책 속 한 문장

“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없는 세계에서든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는 우리 자신이 매일 스스로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 동시에 잊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이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입니다.” (161쪽)

분야	연번	서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년
문학	001	그 산 그 사람 그 개	평젠밍	펄복스	2016
	002	글쓰는 삶을 위한 일 년	수전 티베르기영	책세상	2016
	003	기쁨의 정원	조병준	산티	2016
	004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	정성기	헤이복스	2016
	005	만약은 없다	남궁인	문학동네	2016
	006	먼지 먹는 개	손솔지	새움	2016
	007	모나리자 바이러스	티보어 로데	북핼	2016
	008	뫼르소, 살인사건	카멜 다우드	문예출판사	2017
	009	(권영민 교수의) 문학 콘서트	권영민	해냄	2017
	010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더숲	2017
	011	없는 사람	최정화	은행나무	2016
	012	영국에서 사흘 프랑스에서 나흘	이안 무어	남해의봄날	2016
	013	완벽한 인생	이동원	포이에마	2016
	014	월요일의 문장들	조안나	지금이책	2017
	015	일곱 가지 이야기	가노 도모코	피니스 아프리카에	2016
	016	천천히, 스미는	G.K. 체스터튼 외 영미작가 25인	봄날의 책	2016
	017	피프티 피플	정세량	창비	2016
	018	한 스푼의 시간	구병모	예담	2016
	019	홀	편혜영	문학과지성사	2016
철학	020	인간 인터넷	마이클 린치	사회평론	2016
	021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	후지하라 가즈히로	비즈니스북스	2016
	022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콜린 엘러드	더퀘스트	2016
	023	굿 라이프	마크 롤랜즈	추수밭	2016
	024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	데이비드 니븐	부키	2016
	025	슬픈 불멸주의자	셸던 솔로몬, 제프 그린버그, 톰 피진스키	흐름출판	2016
	026	웃음의 가격은 얼마인가	울리히 슈나벨	새로운현재	2016
	027	의심의 철학	이진우	휴머니스트	2017
	028	일본인 심리상자	유영수	한스미디어	2016

분야	연번	서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년
사회·경제	029	가족이 날 아프게 한다	시모주 아키코	경향BP	2017
	030	(데이비드 버커스) 경영의 이동	데이비드 버커스	한국경제신문사	2016
	031	기억이 사라지는 시대	애비 스미스 럼지	유노박스	2016
	032	요리책 쓰는 선비 술 빛는 사대부	김봉규	담앤박스	2016
	033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	윤경일	서교출판사	2016
	034	우리들의 변호사	박준영	이후	2016
	035	워킹 브레인	양은우	이담박스	2016
	036	이야기 우리 문화	김진섭	지성사	2016
	037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선대인	인플루엔셜	2017
	038	전쟁사에서 건진 별미들	윤덕노	더난출판사	2016
	039	중독 사회	앤 윌슨 샤프	이상박스	2016
	040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이원재, 황세원	서해문집	2017
	041	행복한 나라의 조건	마이케 반 덴 붐	푸른숲	2016
	042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제이컵 솔	메멘토	2016
교육·자기 계발	043	담담하게 걷고 뜨겁게 뛰어나라	김동현	북스토리	2016
	044	멍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강의모	더시드 컴퍼니	2016
	045	멈추고 정리	루스 수컵	코리아 닷컴	2016
	046	(2030년 학력 붕괴 시대의 내 아이가) 살아갈 힘	텐게 시로	오리진하우스	2016
	047	옥스퍼드는 어떻게 답을 찾는가	오카다 아키토	엔트리	2016
	048	잘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리민	정민미디어	2016
	049	창의성, 내 아이의 미래에 마법을 부리다	문정화	영진미디어	2016
자연 과학	050	가능한 최선의 세계	이바르 에클랑	필로소픽	2016
	051	개미와 공작	헬레나 크로닌	사이언스박스	2016
	052	동물에게 배우는 노년의 삶	앤 이니스 대그	시대의창	2016
	053	매혹하는 식물의 뇌	스테파노 만쿠소, 알레산드라 비올라	행성B이오스	2016
	054	바이털 퀘스천	닉 레인	가치	2016
	055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이형주	책공장더불어	2016
	056	아인슈타인의 주사위와 슈뢰딩거의 고양이	폴 헬펀	플루토	2016
	057	틀리지 않는 법	조던 엘렌버그	열린책들	2016

분야	연번	서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년
기술 과학	058	그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류위즈, 바이잉위	시그마북스	2017
	059	늑	조나단 월드먼	반니	2016
	060	뇌과학자들	샘 킨	해나무	2016
	061	뭐든지, 호르몬!	이토 히로시	계단	2016
	062	수면밸런스	한진규	다산4.0	2016
	063	알파하우스를 꿈꾸다	임창복, 임동우	효형출판	2016
	064	여행 잘하는 사람으로 큰다면	류한경	애플북스	2016
	065	지방의 누명	MBC 스페셜 <지방의 누명> 제작팀, 홍주영	디케이제이에스 (DKJS)	2017
	066	코타로와 나	곽지훈	미래의창	2016
	067	햇빛의 선물	안드레아스 모리츠	에디터	2016
068	헤어	커트 스텐	MID(엠아이디)	2017	
예술	069	그림의 맛	최지영	홍시	2016
	070	동양인은 모나리자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크리스틴 카울, 우흥마오	에세	2016
	071	명작 뒤에 숨겨진 사랑	이동연	평단	2016
	072	발칙한 예술가들	월 곰퍼츠	RHK(알에이치코리아)	2016
	073	위작의 기술	노아 차니	학교재	2017
역사·지리	074	개인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마거릿 맥밀런	산처럼	2016
	075	누가 이슬람을 지배하는가	류광철	말글빛남	2016
	076	보석 천 개의 유혹	에이자 레이든	다른	2016
	077	세상을 바꾼 100가지 문서	스콧 크리스텐슨	라의눈	2016
	078	안나푸르나에서 밀크티를 마시다	정지영	더블엔	2017
	079	툼 크린	마이클 스미스	지혜로울자유	2017
	080	파리의 열두 풍경	조홍식	책과함께	2016

분야	연번	서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년
예술	081	다시, 피아노	앨런 러스브리저	Phono(포노)	2016
예술	082	보이는 것과의 대화	르네 위그	열화당	2017
기술과학	083	인벤톨로지	페이건 케네디	클레마지크	2016
사회·경제	084	인포메이션	제임스 글릭	동아시아	2017
철학	085	자기애적 사회에 관하여	크리스틴 돔벡	사이행성	2017
역사·지리	086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책 읽기	박숙자	푸른역사	2017
문학	087	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이기호	마음산책	2017
자연과학	088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우연학 입문	빈스 에버트	지식너머	2017
문학	089	이렇게 읽을 거면 읽지 마라	다오얼딩	Alma(알마 출판사)	2017
문학	090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남덕현	빨간소금	2017
문학	091	눈 이야기	조르주 바타유	비채	2017
문학	092	시대의 소음	줄리언 반스	다산책방	2017
자연과학	093	식물도시 에도의 탄생	이나가키 히데히로	글항아리	2017
예술	094	제국과 낭만	정진국	깊은나무	2017
문학	095	팻컨	헬렌 맥도널드	경향미디어	2017
문학	096	다시, 연습이다	글렌 커츠	Mujintree(뮤진트리)	2017
문학	097	베를린 일기	최민석	민음사	2016
문학	098	수잔 이펙트	페터 회	현대문학	2017
문학	099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	사노 요코	을유문화사	2017
문학	100	하루키씨를 조심하세요	우치다 타츠루	바다출판사	2016

ㄱ	가능한 최선의 세계	63	ㅁ	멈추고 정리	57	
	가족이 날 아프게 한다	41		명작 뒤에 숨겨진 사랑	85	
	개미와 공작	64		모나리자 바이러스	18	
	개인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89		뫼르소, 살인사건	19	
	(데이비드 버커스) 경영의 이동	42		(권영민 교수의) 문학 콘서트	20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34		뭐든지, 호르몬!	75	
	굿 라이프	35		ㅂ	바이탈 퀘스천	67
	그 산 그 사람 그 개	12			발칙한 예술가들	86
	그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72			베를린 일기	114
	그림의 맛	83			보석 천 개의 유혹	91
	글쓰는 삶을 위한 일 년	13		ㅅ	보이는 것과의 대화	99
	기쁨의 정원	14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68
	기억이 사라지는 시대	43			(2030년 학력 붕괴 시대의 내 아이가) 살아갈 힘	58
	ㄴ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			15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책 읽기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		36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21		
늑		73	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104		
뇌과학자들		74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우연학 입문	105		
누가 이슬람을 지배하는가		90	세상을 바꾼 100가지 문서	92		
눈 이야기		108	수면밸런스	76		
ㄷ		다시, 연습이다	113	수잔 이펙트	115	
		다시, 피아노	98	슬픈 불멸주의자	37	
		담담하게 걷고 뜨겁게 뛰어라	55	시대의 소음	109	
		동물에게 배우는 노년의 삶	65	식물도시 에도의 탄생	110	
		동양인은 모나리자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84	ㅇ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	116
		땡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56		아인슈타인의 주사위와 슈뢰딩거의 고양이	70
ㄹ		만약은 없다	16		안나푸르나에서 밀크티를 마시다	93
		매혹하는 식물의 뇌	66		알파하우스를 꿈꾸다	77
	먼지 먹는 개	17				

없는 사람	22
여행 잘하는 사람으로 큰다면	78
영국에서 사흘 프랑스에서 나흘	23
옥스퍼드는 어떻게 답을 찾는가	60
완벽한 인생	24
요리책 쓰는 선비 술 빛는 사대부	44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	45
우리들의 변호사	46
웃음의 가격은 얼마인가	38
워킹 브레인	47
월요일의 문장들	25
위작의 기술	88
의심의 철학	39
이렇게 읽을 거면 읽지 마라	106
이야기 우리 문화	48
인간 인터넷	31
인벤톨로지	100
인포메이션	101
일곱 가지 이야기	26
일본인 심리상자	40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49
㉔ 자기애적 사회에 관하여	102
잘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61
전쟁사에서 건진 별미들	50
제국과 낭만	111
중독 사회	51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52
지방의 누명	79

㉕ 창의성, 내 아이의 미래에 마법을 부리다	62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	32
천천히, 스미는	27
㉖ 코타로와 나	80
㉗ 톰 크린	94
틀리지 않는 법	71
㉘ 파리의 열두 풍경	95
펠컨	112
피프티 피플	28
㉙ 하루키씨를 조심하세요	117
한 스펀의 시간	29
한 치 앞도 모르면서	107
햇빛의 선물	81
행복한 나라의 조건	53
헤어	82
홀	30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54

A	G.K. 체스터튼 외 영미작가 25인	27		마이클 스미스	94
	MBC 스페셜<지방의 누명> 제작팀	79		마크 롤랜즈	35
가	가노 도모코	26		문정화	62
	강의모	56	나	바이잉위	72
	곽지훈	80		박숙자	103
	구병모	29		박준영	46
	권영민	20		빈스 에버트	105
	글렌 커츠	113	사	사노 요코	116
	김동현	55		샘 킨	74
	김봉규	44		선대인	49
	김진섭	48		셀던 솔로몬	37
나	남궁인	16		손솔지	17
	남덕현	107		수전 티베르기앵	13
	노아 차니	88		스콧 크리스텐슨	92
	닉 레인	67		스테파노 만쿠소	66
다	다오얼덩	106		시모주 아키코	41
	데이비드 니븐	36	안	안드레아스 모리츠	81
	데이비드 버커스	42		알렉산드라 비올라	66
루	루스 수컵	57		애비 스미스 럽지	43
	류광철	90		앤 월슨 샤프	51
	류시화	21		앤 이니스 대그	65
	류위즈	72		앨런 러스브리저	98
	류한경	78		양은우	47
	르네 위그	99		에이자 레이든	91
	리민	61		오카다 아키토	60
마	마거릿 맥밀런	89		우치다 타츠루	117
	마이케 반 덴 북	53		우흥마오	84
	마이클 린치	31		올리히 슈나벨	38

월 곰퍼츠	86		조흥식	95
유영수	40		줄리언 반스	109
윤경일	45	㉨	최민석	114
윤덕노	50		최정화	22
이기호	104		최지영	83
이나가키 히데히로	110	㉩	카멜 다우드	19
이동연	85		커트 스텐	82
이동원	24		콜린 엘러드	34
이바르 에클랑	63		크리스틴 카울	84
이안 무어	23		크리스틴 돔벡	102
이원재	52	㉪	텐게 시로	58
이진우	39		툼 피진스키	37
이토 히로시	75		티보어 로데	18
이형주	68	㉫	평젠밍	12
임동우	77		페이건 케네디	100
임창복	77		페터 회	115
정성기	15		편혜영	30
정세랑	28		폴 할펀	70
정지영	93	㉬	한진규	76
정진국	111		헬레나 크로닌	64
제이컵 솔	54		헬렌 맥도널드	112
제임스 글릭	101		홍주영	79
제프 그린버그	37		황세원	52
조나단 윌드먼	73		후지하라 가즈히로	32
조던 엘렌버그	71			
조르주 바타유	108			
조병준	14			
조안나	25			

(2017)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펴낸 날 2017년 7월 13일
펴낸 이 국립중앙도서관
펴낸 곳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우) 06579
전화 (02)590-0649 / 팩시밀리 (02)590-0607
홈페이지 <http://www.nl.go.kr>

편집 · 디자인 디노 디자인

© 국립중앙도서관, 2017

ISBN 979-11-5687-381-5

ISBN 978-89-7383-654-3 (세트)

2017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비매품



9 791156 873815

ISBN 979-11-5687-381-5

ISBN 978-89-7383-654-3 (세트)